노인 고독 극복을 위한 예술교육

A STUDY ON ART EDUCATION FOR OVERCOMING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

By

SANGA LEE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New York

2018

ABSTRACT

A STUDY ON
ART EDUCATION FOR OVERCOMING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

By

SANGA LEE

In modern society, one-third of our lives is spent in the period of old age. In this age of aging, elder alienation has become a real social problem. It’s very important that we recover the self-esteem of the elderly and prepare them for the upcoming loneliness of old age. Art (διδασκαλιον) education is a great way to combat old age problems. It gives elders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preserves their mental stability, while building resolution skills through cognitive thinking as they analyze personal conflicts and explore the inner world of their conscious, unconscious, and subconscious minds. The theory behind this study is Rogers' person-centered art therapy. Person-centered art therapy presupposes that a person has the tendency of self-actualization and assumes that he can actively construct his own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courage the elderly with the value of self-development through art education, overcoming solitude, developing a conscious state of cooperation, restoring self-esteem, and understanding the values of sharing.

The research method is to educate people in their late 50’s who live in New York City. Classes are held regularly for at least 10 months – once a week for 1 hour and 40 minutes. Through art education, we pursue whole-person development and form a positive self-concept so that we can live our lives proactively.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art education was the view of surrounding objects. The daily view of the sky, flowers, trees, birds, and perspective has changed. I was able to observe things around me and to discover the new joy of life. I was confident that I was able to collaborate with others with a feeling of accomplishment when I completed a work. Self-esteem was improved by obtaining the attitude of a positive life while presenting finished work of oneself. I was able to get a positive effect by moving away from loneliness while interacting directly with other people in the same classroom, or even outside of class, through SNS. We should change our attitudes toward a positive life filled with high self-esteem by returning to service and by seeing others through our own experiences of life that has been acknowledged rather than resist and deny old age. If the church can refine the psychological sentiments of its members and residents through art education, it will contribute more to practicing God's lo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Carl Rogers' human centered art therapy, I suggest the research and discussion about the creative art education of the elderly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To my parents, Man hwa and Chun ja Lee,

my husband Chi hong Ryu

and my children Gloria, Barnabas and James,

for always loving and supporting me.

Without their support this doctoral thesi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ACKNOWLEDGEMENT

8년 전 한국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으로 오기전에 나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왔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끄셨고, 지금의 생활은 내가 생각했던 삶과는 너무나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건 지금 내가 계획했던것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8년동안 나의 뉴욕생활을 돌아 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믿게 된것이다. 뉴욕에 와서 남편을 만나고 남편을 따라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상담공부와 신학공부를 하게되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과정과정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 까지 인도해 주셨다.

부족함 많은 저에게 논문 제목 부터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하고 격려해주신 백창건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커뮤니티센터의 든든한 후원자이시며 새선교교회 담임목사님이신 윤태섭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가족처럼 저희 가정을 축복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새선교교회 교인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철없는 딸에게 언제나 넘치는 사랑 베풀어주시고 큰 힘이되어주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교다니고 논문쓸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이되어준 남편과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선물 하은, 하랑, 예랑이에게 감사합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도 사랑커뮤니티센터를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손안젤라교수님과 강미영교수님을 비롯한 블랜튼필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모든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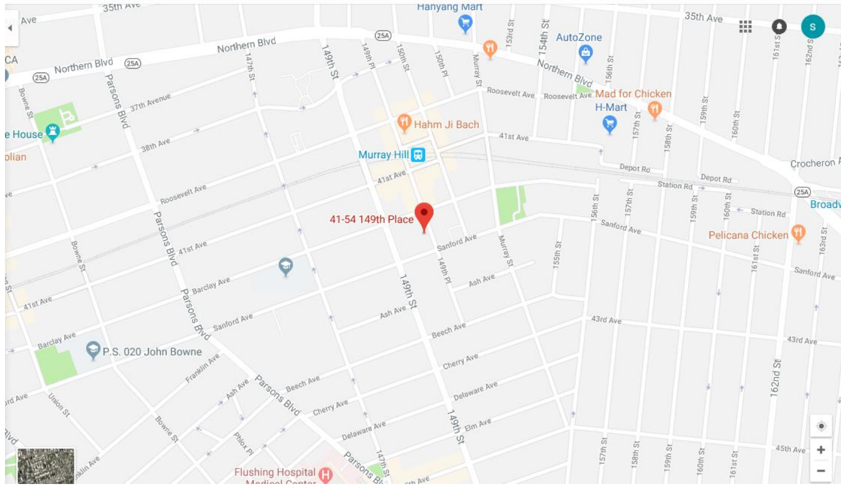
Ⅰ. 서론

한자의 사람 인(人)이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정의 했다. 이러한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λαος)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뜻 한다. 인간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 할때 비로소 살아 있음을 느낀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외로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게 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고독이라는 단어로 정의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우리인생에서 1/3 이 노년기에 접어든 만큼, 노년의 소외는 사회적으로 문제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고독한 노년을 어떻게 풍요롭게 대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법의 하나인 예술(διδασκαλιον)교육은 성취감과 정신적 안정감을 주며, 개인의 심리상태나 무의식에 잠재된 갈등과 내면세계를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교회가 예술교육을 통하여 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정서까지 순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배 경

1) 사랑커뮤니티센터의 지역적 배경

사랑커뮤니티센터(Sarang community center)는 뉴욕 퀸즈 플러싱에 위치해있다. 플러싱은 중국, 히스패닉, 인도 등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중국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의 다양성이 인정이되어 이슬람사원, 절, 교회 등 여러 종교의 사원을 찾아 볼 수 있다.



2) 사랑커뮤니티센터의 역사배경

(1) 목표

본 센터는 교육을 통하여 한인 이민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사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기쁨을 통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민족 섬김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돕는 것이 저희 단체의 사명입니다. 구제 사역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저희 사랑커뮤니티센터의 목표입니다.

(2) 역사

2006 년 10 월: 사람커뮤니티센터 설립(설립자: 주성률목사, 김태철 목사, 류요셉, 김경석), 컴퓨터 · 영어교육, 구제사역 시작

2007 년 10 월: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www.hankookin.us)개설로 정보공유 및 교육제공

2009 년 4 월-현재: 아침 구제사역(커피, 물, 빵, 의류)(새선교교회, 소자선교교회와 협력)

2009 년 4 월-2012.12: 장학회 설립(뉴욕 장학생 3 인 선발, 서울 장학생 3 인 선발 후 장학급지급)

2009 년 7 월: 뉴욕 및 뉴저지주에 비영리단체 등록(주성률 목사, 김태철 목사, 김경석)

2010 년 11 월-현재: 미술교실과 사진교실 개설

2011년 8월-2016.3: 피아노교실, 노래교실 개설

2012년 3월-2015.3: 매월 1회 무료 가족사진 촬영

2012년 4월-2014. 11: 매주 화요일 히스패닉 노숙자 및 노무자 점심사역 시작(Go4Jesus 협력사역, 담당: 주성률 목사)

2012년 7월-현재: 'LOVE BANK' (식료품 및 의류를 모아 지역사회의 빈곤층에게 나누어 주는 사역을 칭함), 새선교교회와 협력하여 시작

2012년 7월-2017년 11월: 금요일 무료 저녁식사 제공(한인 대상)새선교교회와 협력

2018년 1월-현재: 목요일 무료 저녁식사 제공(한인 대상) 새선교교회, 소자교회, 빌립보교회, 한마음교회와 협력.(NY LOVE MISSION)

3) 사랑커뮤니티센터의 과제 중심배경

사랑커뮤니티센터는 교육과 봉사, 구제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단체입니다. 본 센터는 2006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자원봉사자들과 개인후원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민족 섬김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개인후원자들의 후원과 지역교회 및 단체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스텝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파트타임 강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사랑커뮤니티센터 비전

우리는 한인 이민자로서 타민족 이민자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이 일에 밑거름이 되고 또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2) 사랑커뮤니티센터 핵심사역

•현재 컴퓨터교실, 미술교실, 사진교실 그리고 검도교실과 무료식사와 구제사역 등을실천하고있습니다.

•선한맘선교(Good Heart Mission)구제 및 사회봉사

매 주 금요일 아침 빵과 커피를 나누어주는 사역과 매 월 노숙자를 찾아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FOOD BANK 사역을 통하여 지역 빈곤자들에게

음식과 의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센터에 찾아오시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 목적

우리가 삶 속에서 노화를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않다. 많은 노인들이 인생의 종착점인 노년기에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무력감으로 끊임 없는 후회와, 의식 · 무의식적 저항들로 인해 힘들어한다. 에릭슨(Erikson,1963)은 이러한 과정을 노년기의 절망감 혹은 위기감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노인들은 두 가지 뚜렷한 기분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는 인생이란 다시 살 수 없다는 후회와, 다른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외부 세계로 투사(projection) 함으로써 그것을 부인하려는 심리이다.[1]
노후를 저항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타인을 돌아보고 봉사하며 자존감을 회복하여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가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건 누구나 겪는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소외되기도 한다.

현대사회는 고령화시대로 자기인생의 1/3 에 해당하는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마지마으로 인생을 의미있게 통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늙음에 대해 저항하기 보다는 올바를 자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은 자기개발을 하는 좋은 취미활동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취미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전시회를 통하여 타인을 돕고 온라인갤러리를 통하여 여러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더욱더 의미있는 일이 될것이다. 이것은 타인을 돕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소외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긍정적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회와 커뮤니티센터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예술교육을 통하여 노년의 자기개발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소통하며,

[1] 한국노년학회, *노년학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0), 20.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의식, 협동의식을 함양 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교회나 커뮤니티센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넷째, 노년의 고독극복을 위하여 예술교육이 실버계층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배경이 된 이론은 칼 로저스(Carl Rogers)의 인간중심 미술치료이다. 인간중심의 치료를 주장한 칼 로저스(Carl Rogers)의 이론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실현을 향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임상경험을 통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성장을 해나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Rogers, 1983). 이러한 관점에서 로저스는 상담에서 비지시적 혹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론을 개발하였다. 로저스는 능동적, 자기 성장적 인간관을 토대로 상담의 기술보다도 상담자 및 치료자의 인간관과 인간에 대한 토대를 더 중시하였다. 그는 상담자 및 치료자에게 특별한 이론과 기법보다는 진솔성 혹은 일치성, 공감 혹은 이해 및 비소유적 배려 혹은 확인을 요구한다.(Corsini, 1998).[2]
로저스(Rogers)의 인간중심 치료를 바탕으로 연구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식변화를 위한 실천과정

첫째, 예술교육을 통하여 정서적 치유와 함께 자존감을 회복한다.
둘째, 예술교육과 SNS, 온라인 겔러리를 통하여 타인과의 소통 능력 향상시킨다.
셋째, 작품전시회를 통하여 협동의식,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다. 이러한 의식변화를 위하여 10 개월이상 매주 1 회 예술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2) 고독극복을 위한 실천 과정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50 대 후반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고독 극복을 위한 예술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활동을 통하여 타인과 소통하며, 협동의식, 공동체의식, 자존감 회복,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는다. 프로젝트 실행기간은 10 개월 이상으로 하며, 매주 1 회, 1 시간 40 분 수업을 진행한다.

---

[2]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42-43.

(3) 교회시스템 바꾸기

현대의 교회는 단순히 예배의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한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태도로 교인 및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에따라 노인들을 위한 상담, 교육, 복지, 봉사, 취미활동을 위한 교회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4) 설문조사 결과 연구분석

설문조사는 뉴욕에 거주하는 59 명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질문 14 문항과, 여가활동에 관련된 질문 8 문항, 고독에 관련된 질문 26 문항, 그리고 자존감에 관한 질문 16 문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설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50 대이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하며, 자료분석은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빈도표, 그리고 막대 도표를 사용할 것이다.

Ⅱ. 연구 분석

1. 성서와 건강한 자존감

1) 사울의 열등감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을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은 제 각기 다르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각자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것일까? 그건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떠한 유형의 부모와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정체성(Identity)이 형성된다. 이 정체성은 곧 자존감(Self-esteem)과 연결된다. 자존감(Self-esteem)이란 자기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잘 형성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때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생의 힘든시기가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외부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열등감이나 우울증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성서안에서 자존감과 관련하여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 수 있다. 사울을 첫 임금으로 선발함으로써 이스라엘에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막이 오른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근 500 여 년간 지속된다. 정확히 말하면 왕정체제는 기원전 1030 년경부터 기원전 587 년까지 이어진다.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은 불행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많은 외적인 문제를 놓고 투쟁했다. 왕은 허다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거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각 부족들 간의 공동관심사를 찾아내어 구체화시켜야 했다. 사울의 통치시대는 쉴새없이 압박해오는 블레셋인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곳곳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때였다. 약 20 여년 간의 통치기간 말미에 가서(그의 통치기간에 대한 견해는 일치되지 않는다) 사울은 결국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사실은 야훼의 징벌로 이해된다.[3]

사울(saul)은 사사 시대에 거의 전멸되었던 베냐민 지파였으며 무서운 재앙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살았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겸손했던 사울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왕이 되었다. 다윗(David)은,키가 작고, 혈색이 좋고, 잘 생겼으며, 힘 세고, 매력적이었으며, 군인답고, 말 잘하고, 용감했으며, 매우 음악을 좋아하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다윗의 음악가로서의 명성은 사울 왕의 관심을 끌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을 가지고 다니는 시종이 되었다. 이 일은 다윗이 왕과 신하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4]

다윗의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러한 수려한 외모와 음악적 재능은 사울왕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것 같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대단히 겸손한 왕이었으나, 점점 교만해졌으며 하나님께불순종하며 점점 더 병들어 가고 있었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사울의 질투에 찬 의심은 더욱 심화되어 간다. 드디어 그는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민다. 사울은 다윗의 가난한 약점을 이용하여 그의 딸을 주는 값으로써 생명이 걸린 모험을 하도록 요구한다. 사울이 요구한 바 사람의 양피(陽皮) 일백을 얻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일가는 원수인 블레셋 사람 일백을 쳐죽이든가 사로잡든가 해야만 했다. 이는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다윗은 사울의 요구를 배로 만족시키고 무사히 돌아와

[3] Kirchschläger Walter, *구약성서 첫걸음,* 신교선 역 (서울: 성서와함께, 1998), 83.

[4] Henry H. Halley, *최신 성서핸드북*, 박양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0), 218.

왕의 사위될 권리를 주장한다.[5]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과 열등감(υποδεης)이 깊어 갈수록 상대적으로 다윗의 명성과 능력은 보란듯이 더욱더 빛을 내고 있었다.

사울이 '천천' 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 을 죽였다는 비교는 시의 병행구에서 매우 큰 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법이다. 이 말의 의도는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위대하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수를 나타내려는 것 이다. 그렇지만 사울은 단지 다윗이 자기 자신과 같이 언급되고, 그럼으로써 그가 왕과 같은 반열에 놓였다는 것으로 성이 났을 것이다.[6]

결국 다윗의 용맹과 명성은 사울 왕의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으며사울은 낮은 자존감과 질투심으로 인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사울은 다섯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때 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 주셨다. 하나님으로 부터 모든것을 다 부여받은 듯한 다윗을 보고 있는 사울왕의 심정은 어떻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열광할 수록 사울왕은 더욱더 불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자신이 스스로의 감옥에 갖혀 더욱더 힘들었을 것이다. 타인과의 대화도 단절된체 자신만의 세계에서 점점더 고립되어 헤어나지 못한것이다.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 18~20 장: 다윗의 인기는 사울을 그와 대립시켰다.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다윗은 도망하여 여러 해 동안 산 속에서 숨어 살았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20 장). 요나단(Jonathan)은 왕위 계승자였다. 그는 블레셋에게 크게 이겼고(14 장), 성격이 고상하여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계승권을 깨끗이 버리고, 경쟁자에게 헌신했다. 이것은 역사에서 가장 고귀한 우정의 하나가 되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다윗 21~27 장:다윗은 미친 것처럼 블레셋으로 피신했다. 위험을 느낀 그는 서쪽 유다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 숨고, 그 다음 모압에, 다시 남쪽 유다에 돌아와 그일라, 십, 마온으로 피신했다. 600 명이 다윗을 따랐다. 사울은 그를 추격했으나, 다윗은 항상 피했다. 다윗은 이때 에 많은 시를 썼다. 엔게디에서 사울은 함정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피를 흘리고 왕위를 차지하고 싶지 않아서 사울을 살려 주었다. 또 사울은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으나, 그 마음을

[5] *성경 핸드북*, 김만풍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239.

[6] John H. Walton, Victor H. Matthews, Mark W. Chavalas, *IVP 성경배경주석 구약*, 정옥배 외 3 명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2), 440.

돌리지 않았다. 다윗은 마온에서 부유하고,재치 있고, 우아한 여자 아비가일(Abigail)을 아내로 맞았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사울이 죽을때 까지 거기 있었다.[7]

사울은 점점 병리화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고 말았다.그는 결국 길보아 산 전투에서 아들 셋과 많은 병사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이렇게 사울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힘들다. 다른 사람과 의끊임 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결국 정신적 병리현상으로 인해 타인들로 부터 대화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대화(dialogue)는 말을 나누는 두 사람을 전제로 한다. 어떤 개인들은 증거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러면 그는 듣는다.그러나 증거, 권고, 위로, 그리고 격려는 회화(conversation)를 함축하기 때문에 대화의 결여는 당연히 혼란을 초래한다.[8]

우리는 진심어린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 놓고 타인과 소통해야 한다. 그러나 사울 처럼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면 올바른 선택이 어려워질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외면당하게 된다. 사울왕이 힘든시기에 진정으로 대화할 누군가가 있었다면 아니,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않고 계속 소통하였다면 성서의 역사적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타인과의 소통의 방법중 하나인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은 인정해 주며, 타인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누군가의 장점을 인정해주기위해서는 우리 내면에서 치열한 감정들이 다툼을 일으킨다. 시기, 질투, 부러움, 투사, 등 한마디로 타인의 장점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사울도 다윗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것을 인정해 주기위해서는 자신 내면의 열등감과 치열한 싸움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지키기위해 잘못된 일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했을지도 모른다.

2) 다윗을 향한 잠재된 분노

우리는 흔히 분노(παροργισμος)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대로 “앙갚음하려는 욕망”또는 우리에게 가해진 어떤 가벼운 해나 실제적 해에 대해 보복하거나,

---

[7] Halley, *최신 성서핸드북,* 219.

[8] A. Berkeley Mickelsen, *성경해석학*, 김인환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11), 460.

되갚으려는 불타는 욕구로 정의한다. 어떤 학자들은 분노를 "쌀쌀한 광기"로 보았지만, 락탄티우스는 분노를 "죄를 제어하기 위해 스스로 자극하는 영혼의 운동"으로 정의 했다. 분노와 진노의 문제는 이것이 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채로 방치될때, 악이 될 수 있고 또 악이 된다는 사실에 있다. 사실 이것은 진노 또는 분노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분노의 정의들은 자제의 상실, 일시적 감정 충동, 잠정적인 발광을 의미한다. 따라서 극소수만이 이 정의와 하나님을 연관시키려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9]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타인과 끊임 없이 비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행의 시작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된다. 건전한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과의 비교에서 내가 가진 것이 상대방보다 많을때 겸손함을 모르고 자만심과 타인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행동 속에서 또는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깨달았을때 상대적으로 오는 박탈감에서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사울왕 역시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낀 분노 속에서 불행의 연속이 시작되었다.

사울왕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했다. 사울의 첫째 실수는 급속한 성공에 만족하여, 겸손은 교만으로 바뀌었다.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사울이 교만해졌다는 첫째 표시였다. 사울의 두번째 실수는 군대에게 식량을 삭감시킨 어리석은 명령과 요나단을 지각없이 사형을 내린 사실은,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왕이란 인상을 주었다. 사울의 세 번째 실수-고의로 하나님께 불복종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무엘의 불길한 선언을 들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15:26).[10] 사울왕의 분노는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분노는 그가 평소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울은 분노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가 아닌 다윗을 통하여 외부세계를 향해 표출 하였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르다. 자존감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깊은 가치를 아는 것이다.[11]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대한 믿음이다. 자존감은 굉장히 높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드물다. 건강한 자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

[9] Walter C. Kaiser, *구약성경윤리*, 홍용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295.

[10] Halley, *최신 성서핸드북*, 218.

[11] Ilse Sand, *센서티브*, 김유미 역 (서울: 다산, 2017), 64.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도전을 찾고, 그 도전을 성공으로 이끈다. 더 일반적인 조합은 자신감은 높고 자존감은 낮은 경우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정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직장에서 훌륭한 동료로 인정받고 전문 분야에서 당당하게 능력을 발휘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은 자신이 남들이 좋아할 만큼 괜찮은 사람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높은 기준은 낮은 자존감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높은 기준은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한 방편이다.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보상할 전략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것이다.[12]

사울왕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위해 상대적으로 다윗에게 더 많이 집착했던것 같다. 낮은 자존감이 승화되어 좋게 작용하기 보다는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며 결국 자신 내면의 세계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것이다. 낮은 자존감과 높은 기준은 서로 강화하고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만일 계속해서 보상적인 전략을 만들어 높은 기준에 맞춰 행동한다면, 당신은 끝까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도움을 좋아하는 건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유효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낄 때도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높은 기준 때문에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13]

사울이 좀더 자신의 내면의 진실된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려 놓았다면 타인의 시선이나 다윗을 향한 분노로 부터 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었을 것이다. 왕이라는 자리의 부담감과 더불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높은 기준들이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남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베푸는 도움을 좋아하는 건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점점 더 낮아지게 만든다. 지금 당신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제 그 기준치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과중한 부담에 짓눌려 허덕이는 삶에서

---

[12] Sand, *센서티브,* 65.

[13] Ibid., 69.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기준을 낮추는 첫 단계는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원칙을 재검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기준을 낮추는[14]

훈련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당신이 예상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느 걸 경험해야 한다. 높은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압박감에서 벗아나고, 더 여유로운 자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기준을 낮추고 개인적인 행동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시도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다. 당신은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아도[15]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오히려 당신이 더 느긋하고 편하고 유쾌해져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16]
이렇듯 때로는 내려 놓음의 미학도 필요하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 시선으로 만들어 놓을때가 있다.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위해서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섬 기대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만족을 못 느끼며 결국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된다.

다윗은 뒤에 가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그의 생애중 가장 아름다왔던 일들 가운데 하나로 회고하게 될 것이다(삼하 1:26).그 왕의 아들과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갈 사람 사이의 놀라운 결속을 흔들 수 잇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사울의 질투에 찬 의심은 더욱 심화되어 간다. 드디어 그는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민다. 사울은 다윗의 가난한 약점을 이용하여 그의 딸을 주는 값으로써 생명이 걸린 모험을 하도록 요구한다. 사울이 요구한 자 사람의 양피 일백을 얻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일가는 원수인 블레셋 사람 일백을 쳐죽이든가 사로잡든가 해야만 했다. 이는 다른 민족들은 할레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의 요구를 배로 만족시키고 무사히 돌아와 왕의 사위될 권리를 주장한다.[17]
사울왕은 많은 유망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낮은

[14] Ibid., 70.

[15] Ibid., 71.

[16] Ibid., 72.

[17] *성경 핸드북*, 김만풍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238-239.

자존감이라는 크나 큰 장벽으로 인해 실패한 삶이 되었다.

경건주의(윤리 행위의 중요성을 경시하면서 인간의 마음과 태도를 종종 강조한다)도 사회 행동주의(인간의 마음과 태도의 우선성을 경시하면서 시장과 공동체에서의 행위에 강조점을 둔다)도 구약의 양식에 어울리지 않는다. 양자가 균형을 있고 성경적인 우선 순위를 가짐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상대를 무시한 어느 한편의 일방적 강조는 반성경적이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18]

당신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아직도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분노는 슬픔의 감정으로 바뀐다. 그것은 당신이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푸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슬픔이다.[19]

분노는 기대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당신의 분노도 마찬가지다.당신은 공감 능력을 활용해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잇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이 필요로한느 것을 이해하고 분노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20]

분노는 흔히 피상적인 단계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은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연약한 감정에 연결되기보다는 본노로 가득한 피상적인 단계에 더 오래 머무르려고 한다. 분노 밑에 숨어 있는 슬픔의 감정과 당신이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분노의 감정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어떤 대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과 더 격렬하게 싸울수록 자신의 감정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직시하는 것보다 분노의 감정을 부모에게 돌리는 걸 더 편하게 느낀다. [21]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바꿀 수 없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평생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현실을 인정히고 받아들일때, 분노는 슬픔으로 바뀐다. 슬픔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슬픔은 기다려야하는 과정이다. 슬픔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사랑과

---

[18] Kaiser, *구약성경윤리*, 277.

[19] Sand, *센서티브*, 89.

[20] Ibid., 136.

[21] Ibid., 148.

배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애정과 친절을 베풀지 못한다. 당신이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슬픔은 사람들을 곁으로 불러들이지만, 분노는 멀어지게 한다.[22]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거나 행복한 일만 있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대부분 나쁜 감정은 억제하고 좋은 감정만을 표현하기를 은연중에 강요당한다. 기쁜 감정 못지 않게 분노나 슬프거나 우울한 감정 모두가 소중한 경험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분노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때 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 개인의 태도이다. 사울왕과 같이 본인의 분노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기 보다는 자신 내면의 문제에 좀더 집중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할때 분노는 악의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 내면의 성숙의 과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죄책감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심리치료사 벤트 포크(Bent Falk)는 이런 유형의 죄책감을 ‘실존적 부가가치세 (Existential Value Added Tax)’라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그를 실망시켰다고 가정해보자. 아버지에게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항고 보상으로 무언가를 해드리는 대신, 아버지를 실망시켰[23] 다는 자기 인식 또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벤트 포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치르는 이러한 대가를 실존적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하고 있다[24]

인간은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때 좌절감과 더불어 여러가지 감정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본인이 조정할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분노이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걸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분노는 결국 타인과 비교하게 되면서 더 깊어진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시련이 닥쳤을때 지혜롭게 잘 극복하지만, 자존감이 낮을 수록 더욱더 절망감과 분노에 휩싸여 내면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나 기타 방법을 찾는다. 결국 이러한 분노는 참다 폭팔하여 나보다 힘이 약한 약자에게로 표출되고 본인도 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분노의 표출로 문제가

---

[22] Ibid., 149.

[23] Ibid., 155.

[24] Ibid., 156.

해결되기보다는 또 다른 죄책감에 사로잡혀 더욱더 힘들 상황이 연속된다.

우리는 분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추려 한다. 우리는 건전하지 못한 부적절한 두 가지 형태의 분노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된다. 우리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만일 감추어진 분노가 표면으로 노출되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종종 심리적, 육체적 또는 심신적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25]

3) 그리스도 안의 기쁨

"교회"(εκκλησια)라는 말은 "불러 내다"라는 의미의 그리이스어 "에클레시아"에서 연유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제도에서 불러 내어져 "그리스도 안에"있게 된다.[26]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는 힘이요 원동력이 된다.

신앙은 보다 심오하고, 풍부하며 개인적이다. 어떤 경우에 신앙은 종교적 전통에 의하여,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교리에 의하여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체제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 자신의 이웃, 우주에 대한 인격의 지향성이다. 신앙은 총체적인 응답이며, 사물을 보고 취급하는 방법인 동시에 세속적 수준 이상으로 사는 능력이고, 초월적 차원의 견지에서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27]

교회내에서 일상 삶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우리는 누군가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윌리암스는 영혼들에 대한 모든 돌봄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사랑은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해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계시해 주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 행동은 예수에 대한 기독교의 이야기 속에 전해진다. 그렇다면 신학적 의미에 있어 사랑한다는 것은 이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

[25] Martin H. Padovani, *감정의 치유*, 백승치 역 (경북: 분도출판사, 1999), 63.

[26] Alban Dougles, *주제별 성경연구*, 두란노서원 역 (서울: 두란노, 2003), 287.

[27] James W. Fowler,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7.

것이어야 한다.[28] 돌봄(προτιμαω)사역에 있어서 중요한건 내입장 나의 만족감때문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하는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베푸는것이다.



위의 그림은 착시그림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똑 같은 그림을 보고 서로 다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어떤 사람은 컵 모양의 그림이라고 하고 또 다른사람들은 두 사람의 얼굴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모두 각자가 보는 관점이 다를뿐 정답은 없다. 우리는 한 그림속에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다. 각자가 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기가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그림이 거기 있다. 컵만 모양으로 보는 사람은 컵을 배경으로 하고 사람 머리를 모양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며, 사람 머리만 모양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컵의 모양을 볼 필요가 있다. 각자의 견해나 입장을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이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을 보완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림 전체를 볼 수 있게 된다. 내 자신의 입장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29]

이러한 입장에서 돌봄은 매우 조심스럽다. 나자신의 의욕이나 순간의 측은한마음이 아니라 상방의 입장 및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누군가 과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존재적 확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그 사람에게 미성숙하다는 이름표나 비현실적으로 자신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진심어린 충고가 아니라 과대한 자부심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과대한 자부심을

[28] Howard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106.

[29] 김선배, 변화를 위한 *이민목회 프로그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202.

인정받는다는 것은, 비록 그가 자신에 대해 부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그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가 기쁨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기쁨발견자가 있어야 한다.[30]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대방의 과대한 자부심을 비난하는것이 아니라 인정해주며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줌으로써 기쁨의 발견자가 되도록 도와주는것이다. 교회가 나눔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 스스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부심을 재대로 인정받지 못해 자신의 경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적절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과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고갈된 자부심르로도 힘들어한다. 그들은 너무 지나친 자부심과 너무 부족한 자존감 사이를 회전하며 삶을 소진한다. 이들은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열정, 활력, 생동감 그리고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해 결국은 무력한 사람들 혹은 의무에 속박된 사람들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는 길은 그들의 자존감이 현실적이 되도록 돕고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된 그들 자신의 모습을 점차로 떠나보내도록 돕는다. 달리 말하자면, 자신의 과대함을 내세우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철수하는 것은 제거되어야아는 것이 아니라 용납되고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결국 과대하거나 고갈된 자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31]

돌봄 사역의 방법 중의 하나로 교인들과의 정기적 만남으로 성경적 나눔을 통해 상처받은 교인들의 치유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도 회복하여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어야한다. 여기서 타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기쁨을 발견하도록 돕기위해서는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교회는 주를 따르는 가운데 한 아버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 형제들을 섬기라는 부름을 받았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밖을 향해, 즉 인류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에 의해 산다. 세계는 -알든 모르든 간에-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계에 대해, 즉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교회게게는 은사인 동시에

---

[30] 안젤라 손, *기쁨의 영성*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178-179.

[31] 안젤라 손, *기쁨의 영성,* 176.

과제이기도 하다.[32]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의미의 영적 통일성-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을 자기자신들의 것과 동일시하고, “시험을 받지 않도록 자신들을 돌아보는”(갈 6:1)-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권고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전체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는 것이다.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 참된 들음도 있다. 이때 비로소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된다. 성경의 주제들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대화에 참여하는 두 당사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인격적 대화 속에서 성경이 가지는 역할이다.[33]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가 이루어낸 결과이다. 가정환경, 대인관계, 시련 속에서 좌절, 성취감,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굳어져 버린 결과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에 직면했을때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다.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교과서적이고 해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즉 해답을 얻기가 쉽지않고 설사 해답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 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다.
즉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형성된 낮은 자존감이나 마음의 상처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에 충실했으며, 다음 세대 즉 성전을 건축하게 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온갖 자재들을 비축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선물이자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다. 그러자면 때때로 삶에 대해 품고 있던 꿈과 기대를 내려놓아야하는 슬픔을 감수해야 한다.[34]

수십 년에 걸친 연구는 종교적 확신과 기대 수명 사이에 실제로 긍정적인

[32] Hans Kü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697.

[33] Mickelsen, *성경해석학*, 461.

[34] Peter Scazzero, *건강한 교회,* 최종훈 역 (서울: 이레서원, 2005), 243.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종교활동에 충실한 삶을 살면 사망률이 30퍼센트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종교는 인생을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최신 연구들은 그 답이 '자기 통제감'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만족스럽고 건강한 삶을 산다. 자신을 종교의 목표와 동일시한다면 목표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스러운 가치가 된다. 그래서 신비의 기운을 담은 '거룩한 가치'는 특별한 힘을 발휘해 습관의 관성을 극복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35]

2. 신학적 소외

1)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정신의학자 케플란(Gerald Caplan)은 위기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요구를 모든 전문가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의 저서 「예방정신의학의 원리」(Principles of Preventive Psychiatry)에서 지적하기를 누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에 끊임없이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케플란은 인간의 위기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네 가지 특징을 들어 구분한다.
첫째, 자극은 신체 내 조직 속의 긴장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라 신체조직 내부에서는 자신의 습관적인 문제해결 반응이 일어난다.
둘째, 위의 해결반응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옥구가 계속 충족되지 않을 때 내적인 장애를 발생시키고 따라서 불안감, 혼돈, 죄책, 비능률성 및 어느 정도의 기능 혼란을 초래한다.
셋째, 해결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에서 오는 긴장이 어느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것이 강력한 자극이 되어서 부가적인 위기처리 능력을 가동시키게 된다.
넷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 때문에 내적 긴장이 고조되게 되고 이것은 성격 혼란의 단계에 까지 으르게 된다.(심리적, 정신-신체적, 대인관계 영성적 질환 등).[36]

정신의학자 케플란(Gerald Caplan)이 언급한 인간의 위기들로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자의든 타의든 사회 속에서

---

35 Voker Kitz, Manuel Tusch, *심리학나좀구해줘*, 김희상 역 (서울: 갤리온, 2013), 128-129.

36 Clinebell Howard,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287-288.

소외되게 된다. 구약에 의하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소외시킨 것은 인간의 불순종,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자유의 행사 때문이었다. 성서 기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악용하여, 자신을 모든 사물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그렇게 파괴적인 요소로 여기지는 않는다. 대부분 그들은 자유를 대단히 찬양한다.[37]

우리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쓰고 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 역사에 있어서나 이것은 지금 있는 현존이 꼭 있어야 할 실존에서 떨어져 있음전제한다. 현존이 실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소외(εκπολεμοω)라는 말로 나타낸다. 아무리 사회가 개화하고, 문명이 진보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정치가 민주화하고 소유의 균등이 보장된 세계에서도 사람의 삶의 현실은 그대로 소외상태를 간직하고 있다.[38]

우리사회는 경제적 수준, 지적 수준, 가치관, 이념, 학벌, 피부색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정당화하고 명분을 만들어 자신들 만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이러한 부류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면 결국사회로 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의 현상은 약자일 수록 더욱더 심하게 나타난다. 소외를 시키는 사람은 소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소외는 오직 소외당한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55 년에 마틴 루터 킹의 주도로 버스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구분하여 앉는 데 대해 항의한 결과, 1961 년에 주간 통상 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ion)는 주간 고속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의 좌석을 구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종 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연좌 항의들을 벌인 결과 흑인들에게도 식당, 공원, 기타 공공 시설이 개방되었다. 1964 년에 소수 민족 그룹의 평등법(Civil Rights Act)은 이러한 조치를 강화했고,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했다.[39]
마틴 루터킹 목사는 미국사회에서 소외된 흑인들을 주류사회로 함께하기 위해 많은 희생과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뉴욕에는 히스패닉, 아시안, 인도, 유럽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을 위대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든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37] 맹용길, *현대신학사상 I* (서울: 성광문화사, 1990), 188.

[38] 송기득, *인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119.

[39] Earle E Cairns, *세계교회사 2,*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5), 303.

다시한번 우리교회가 소외된 민족과 가정들을 위해서 마틴 루터 킹목사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한다.

교회는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법과 규정들을 인간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복종 대신에 두려움에서 나오는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청을 이해하고 긍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주어졌기 때문에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요청이 주어지면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교회에는 외적인 합법성보다 내적인 마음이, '옛 전통'보다 '시대의 징표'가, 입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마음의 순결이, '인간의 계명'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40]

(1) 교회분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A. 불참석:분규에 감정적으로 불안, 분노, 위협을 느끼고, 이것들이 쌓이면 폭발하게 된다.또 소극적으로 이것을 피해 물러가려고도 하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의에 불참석하거나, 헌금을 중단하거나, 교적을 옮기기도 한다.

B. 비난: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시킨다. 자신들은 옳고 선하다고 착각한다.또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한다.

C. 공격:목사는 게으르다든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든지, 무능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공격을 직접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형태로 여러 형편에서 인신공격의 기회를 만든다.

D. 일반화:교회분규와 갈등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다루지 않고 일반화시켜 애매하게 문제를 다루는 일이다.

E. 대화의 단절과 왜곡:서로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 또한 직접이야기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말하게 된다. 제삼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다.[41]

성적 부도덕, 술취함, 이혼, 결혼하지 않은체 동거생활을 하는일 등의 증가,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도덕적 수준의 저하 때문에 서양에서는 가정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범죄자들의 평균 연령도 낮아져서, 많은 범죄가 십대

---

[40] Küng, *교회*, 138.

[41] 김선배, *변화를 위한 이민 목회 프로그램*, 200.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다.[42]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 쇠퇴나 인종차별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간 소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의 시작되는 가장 기본전인 단위는 가정이며 그 해결을 가지고 있는것 또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은 매일 가족 예배를 드리여 모인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휴식과 사생활과 안심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다. 즉 성실, 정직, 협력 등은 가족이라는 팀의 각 구성원이 훈련하고 배우는 곳이다.그리스도 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와 저녀들로 이루어져 있다.[43]

세상에서 가장 위로받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답을 이야기 하겠지만 그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드릴수 있는 교회야 말로 우리삶의 진정한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상처를 치유하러 온 교회내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자가 많은 뉴욕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긴다. 모두들 자신만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세계의 중심지인 미국이라는 곳에 왔지만 하루하루 힘 겹게 살아가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신분의 문제, 언어의 문제, 교회내에서 교인들과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30 대의 한 여성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여 행복한 삶을 꿈 꾸며 미국에 왔지만 결국 친정식구 하나 없는 이곳에서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시달려 정신치료까지 받기도 했다. 결국 자식들과 남편으로 부터 버림을 받고 홈리스로 전락하여 쉘터생활을 하며 지낸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내에서도 소외되기도 한다.
우리는 끊임 없는 타이과의 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하고 소외되기도 한다. 가정, 직장, 교회 등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서 우리스스로가 타인을 소외시키고 있는건 아닌지, 나자신 스스로 소외된체 살아가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

[42] Cairns, *세계교회사 2*, 367.

[43] Dougles Alban, *주제별 성경연구*, 두란노서원 역 (서울: 두란노, 2003), 341.

2) 아디아포라

어린 시절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며 악한 거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곤 했다. 우리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뉴델리나 오슬로에서 자랐다고 해도 비슷한 거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건 젠세계적인 이야기다. 이런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들은 모두 똑 같다. 무시무시하지만 주인공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멍청하다. 거인들은 또한 불경스럽다. 그들은 신들과 전쟁을 벌인다. 다른 버전의 이야기에서 골리앗은 이교도이거나 사탄을 대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둘 다다. 유년시절부터 우리는 큰 것을 악한 것과 동일시 했다.[44]

늑대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다. 늑대는 크기만 한경이 아니라 나쁘기까지 하다. 크고 나쁜 늑대, 멍청이들 역시 작지 않다. 그들은 거대한 멍청이들이다. 단정치 못한 사람들은 절대 작지 않고 항상 뚱뚱하고 크다. 그들은 크고 뚱뚱한 게으름뱅이들인 것이다. 고질라나 티라노사우르스 렉스, 거대한 흰 고래 모비딕, 커다란 백상어 죠스, 거대한 것은 나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은 것들과 동일시 한다.[45]

이러한 이야기 속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늑대는 나쁠것이다, 거인은 악하고 난폭할 것이다, 뚱뚱한 사람은 게으를 것이다. 즉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로부터 선입견을 주입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들은 또다른 누군가를 소외시키기 쉽다.

무어 (G. E. Moore;1873~1958)는 『윤리학의 원리』(Principia Ethica)에서 올바른 행동을 정의내리려는 모든 노력은, 쾌락이 올바른 행동으로 귀착될 수 있으므로 양자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무어에 따르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일 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다른 무언가의 관점에서 올바른 행동을 정의내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무언가를 본질적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46]

우리는 이렇듯 우리들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기위해서 소외당한 이웃들을 또다른

---

[44] Harry Beckwith, *언씽킹*, 이민주 역 (서울: 토네이도, 2011), 79.

[45] Beckwith, *언씽킹*, 80.

[46] Norman L.Geisler, *기독교 윤리학*, 위거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5-16.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소외시킨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한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외된 예화로 사마리아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들 때문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인처럼 세상과 단절되어 지내야만 했다.

예수는 요단 강 유역으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통로 대신에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셨다. 아마도 신중히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사마리아는 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의 관할 지역이 아니었다. 예수는 오직 통과할 뿐이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눈 것은 유일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사건의 하나였다. 사마리아 인은 700 년 전에 (왕하 17:6, 24, 26, 29: 5:1, 9, 10), 앗수르에 의해서 여기에 온 외국 민족으로, 모세 오경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에서 메시야가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예수는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로부터 협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멸시받는 사마리아 인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복음서에서 항상 반복되는 대조의 하나는 예수께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에게는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서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다는 것이다.[47]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공감과 치유는, 편견에서 벗어나 소외당한 사람들을 당당히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불러세우셨다. 누군가 나자신을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건 삶 속에서 큰 축복이고 희망인것이다.

자기의 바탕을 잃어버린 자기소외가 가져오는 자기동일성의 상실과 자기분열은 내적으로는 무려감, 열등감, 고독감, 불안감 따위에 휩싸이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람과의 연대관계의 상실에서 가중되는데, 이 때 사람이 자발성과 개체성을 확보함으로써 무력감과 고독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거기에서 도피하려는 메카니즘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자기의 터전을 잃은 자기소외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48]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소외계층은 점점더 늘어나고 소외의 종류도 다양한것 같다. 모든 일들이 정의를 위해서 흐르고 있는것 같지만 사회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개인의 이득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을때가 많다. 즉 점점 개인주의로

---

[47] Halley, *최신 성서핸드북*, 624.

[48] 송기득, *인간*, 135.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우선으로 이루어 지기때문에 소외현상이 심해진다. 이런한 상황 속에서 교회내에서의 현실은 어떠한가? 신학자들이 소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하여 전자는 동일시 할 수 없지만, 후자는 그 나라와 동일시 하는 노력도 한다. 또 때로는, 더 나아가 교회는 단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의 성격만을 부여받고, 그 나라는 최고 선(summon bonum)과 목적 자체로 여겨지는 것이다. 목적보다는 수단이 생각될 때 더 쉽게 경멸이 나타나고 개발되므로, 이런 태도와 위에 언급한 반종차주의의 동기가 쉽게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49]

기독교의 신앙 양심 자유 곧, 아디아포라(adiaphora)문제를 취급한다. 아디아포라는 성경에 금하거나 명령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건에 관한 행동 원리이다. 아디아포라의 사항에 있어서는 기독자가 자기 신앙 양심의 결정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그러나 기독자의 신앙 양심 자유라는 것은 결단코 자율주의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기독자들은 결국 각자의 신앙,양심대로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것(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니, 그것이 역시 신본주의에서 고려된 자유인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남의 신앙 양심에 생각하는 표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50]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공감하고 도와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던 33 살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삶,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를 선택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삶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위해 이를 추구한다. 오늘날 서점에 가면 행복의 추구가 온종일 사력을 다하는 목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 년에는 이 주제에 관해 출간된 책이 40 권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8 년 후에는 하루 평균 15 권의 행복에 대한 신간들이 출간된다.[51]
이러한 현상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소외가 아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궁긍적 목적은 행복을 위한 것이다.

---

[49] Vos Geerhardus, *성경 신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440.

[50] 박윤선,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1984), 217-219.

[51] Beckwith, *언씽킹*, 95.

그러나 행복은 나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다.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때에 행복 또한 배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 최근에는 미디어에 대한 소외도 심각하다.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이런곳에 올리는 사진들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멋진 여행, 멋진 식사, 명품, 행복한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댓글을 남기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뭔가?' '남들은 행복한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무미건조한가?' '왜 나만 불행한가?' 하는 상대적 소외를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소외가 결국 나자신을 사회로 부터 점점더 멀어지게 만들며 인간의 평가 기준이 인격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냐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결국 종교는 고리타분한 것이되고 성경 속 이야기들은 신화나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쯤으로 인식되고 하나님의 존재는 멀어져가는 것이다. 인간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데 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부터 격리된 대신 기계와 상품, 권력과 제도 등이 그 중심을 차지한 데서 인간 소외가 비롯되었다. 우리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불러들여야한다.

3)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koinonia)라는 헬라어는 '친교'(κοινωνια) 라고 번역된다. 이 코이노니아는 도시 안에서 교회가 맡은 책임 중 친교의 면을 나타내는 것이며, 케리그마가 말하고 디아코니아가 지향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 그것은 '보이는 소망' 이며 교회가 애써 묘사하려고 하는 참 된 인간도시의 성격과 구성 요소를 생생하게 그린 것이다.[52]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나고 부족한 부분을 깍아내고 채워주며 둥근원을 만들어 갈뿐이다.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 더구나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을 준다는것은 일반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인내와 사랑을 필요로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 외로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재정적 문제, 본인의 의지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돌봄 사역은 감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이성이 합처져서 현실적인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여

---

[52] Cox Harvey, *세속도시*, 구덕관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66.

이루어져야한다.

부버(M.Buber)와 같은 대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나-너'의 대화'에서 찾는다. 인간은 이웃과의 대화에서 '이웃됨'을 이룰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인간은 나 아닌 것과 다른, '나'만으로의 인간이 아니다. 나-너의 만남,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나'는 '너'에게서 탄생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는 말한다(대화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이다. 인간은 말에 의해서 대화에 의해서 실존한다. "인간에 있어서 정신의 병은 인간의 '나'가 '너'를 잃어버린다는 데 있다.[53] 고독한 현대인에게 타인으로 부터의 소외는 인간성 상실로 연결된다. 부버가 말한 '나와 너'의 관계는 상처받은 인간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소외의 극복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는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법과 규정들을 인간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복종 대신에 두려움에서 나오는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청을 이해하고 긍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주어졌기 때문에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요청이 주어지면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교회에는 외적인 합법성보다 내적인 마음이, '옛 전통'보다 '시대의 징표'가, 입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마음의 순결이, '인간의 계명'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잊고, 자기 주권 속에서 자신을 주로 만드는 교회는 자신을 속박하고 노예로 만들게 된다. 그러나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의존하는 교회,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항상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자유를 찾을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를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유, 인간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유, 부활하신 분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과 죄,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유, 세계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포용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 의와 영원한생명, 진정한 자유와 우주적 평화를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인류의 궁극적인 화해, 모든 불의의 지양을 희망할 수 있는 자유를 찾을 것이다. 세계나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교회는 인간을

[53] 송기득, *신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0), 149.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며, 노예로 전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주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통해 부자유한 자를 자유롭게, 애통하는 자를 기쁘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약한 자를 강하게, 사랑없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교회에 주어져 있다.[54]

우리는 삶 속에서 소외되고 외롭다고 느낄때 누군가에게 공감 받는 순간 깊은 위로를 평안을 얻는다. 공감은 많은 위로의 말을 필요로 할때도 있지 때로는 따뜻한 눈빛, 밝은 미소, 작은 몸짓 하나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등 짧은 말 한마디에서도 큰 위로가 된다. 중요한건 내가 상대를 정죄하거나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보살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을 좋아하고, 위로하고, 동정심을 보이고, 과심을 가지는 것 이상이다. 무엇보다 보살핌은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할 때 우리는 그사람의 필요를 알아야한다. 어떤 도움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보살핌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는 일이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히브리적 인간관은 신체와 정신과 영혼이 따로 갈라지지 않고 전체로서의 한 주체인 인간을 강조하는 전인적 인간관이다. 구약성서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그가 영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동시에 상처받는 것임을 말해 준다. 오늘의 상처와 깨어짐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온다. 그러므로 치료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55]
사마리아여인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소외된 여인이 예수님의 공감과 예수님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치유되어 새로운 전도자로 거듭난것 처럼 교회가 소외된 인간성 관계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true)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실재와 정확히 상응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된 진리란 인간 마음 가운데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6]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아픔을 이용하여 타인을 무시하거나

---

[54] Küng, *교회*, 138-139.

[55] 김선배, *이민목회 프로그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206.

[56] Geerhardus vos, *성경 신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392.

소외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우리들은 누구에게도 공감(οικτιρμος)받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을 메시아인 예수님으로 부터 치유되었을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감싸주고 같이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때 이 사회는 양적으로 질절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이다.

3. 노년의 사회적 고독

1) 하류노인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다. 잘 짜여진 인생 속에서도 어느날 문득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걸까? 하며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고독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라는 관점에서, 프롬 라이히만(Fromm Reichmann,1959) 같은 학자들은 고독감이 사회적 고립 상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는 가설을 제기했다. 고독은 인간의 정신적 성숙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고독감과 인간관계의 결핍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된다.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57]

고독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고독을 통해 많은 내면적 성찰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나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있다.

바이스(R. S. Weiss)는 고독에 대한 1973년 연구에서, 사람들이 상호교류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고독((ερημια)을 사회적 관계망에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 갖게 되는 불쾌한 감정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교류의 양)과 정서적 고립(교류의 직)의 결과로서 나타나지만, 고독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바이스는 고독을 감정적 고독과 사회적 고독이라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정서적 고립에서 비롯된 감정적 고독은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버림받았다는 느낌),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시회적 고독은 권태감과 박탈감(주변인이라는 느낌)의 원인이

[57] Gérard Macqueron, *고독의 심리학*, 정기현 역 (서울: 뮤진트리, 2013), 72.

된다.[58]

고독은 어찌 보면 선택일 수도 있다. 고독이 전적으로 나쁜것 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고독을 즐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독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고독을 어떻게 표출하고 승화시킬 지는 개인의 몫인 것이다. 바이스가 분류한 감정적 고독과 사회적 고독의 두 가지 유형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 사회적 고독

사회적 고독을 특징짓는 감정은 권태감이다. 사회적 고독상태에 놓인 사람은 인생의 목표도 없고, 무언가를 실현해 보려는 의지도 없다. 바이스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부족, 타인들과 만나고 사귀고 싶다는 의욕의 결핍, 불만과 좌절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싶어 하는 경향등이라고 보았다. 이 경우,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인 학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곧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할줄 알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갖추면 사회적 고독감을 줄일 수 있다.

B. 감정적 혹은 정서적 고독

감정적 고독은 친밀한 동반자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다. 감정적 고독은 애정 결핍과 타인에 대한 느슨한 애착이 만들어 내는 불안감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동반자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잠시 지나가는 감정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처럼 오랜 시간 경험할 수도 있다.

C.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

감정적 고독자들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또는 관계를 맺은 뒤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바이스의 이론에 덧붙여 감정적 고독을 다시 두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고독이고, 다른 하나는 애정 관계에서 나타나는 고독이다.

첫 번째 경우는 부모와 친밀함이나 공감을 나누지 못하고 거리감을 느낄때 나타난다. 두 번째, 애정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고독은 커플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58] Macqueron, *고독의 심리학*, 73.

장애 요소가 된다.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힘들거나, 새로운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두 유형의 고독은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D. 내면적 고독

내면적 불만과 수치심, 증오, 죄책감 등으로 인한 자기 혐오 또는 자기 경멸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내면적 고독은, 우리 자아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다. 내면적 고독은 우울증 같은 심리적 질환을 동반하기도 한다.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면 자살과 같은 극닥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로 인해 만성적인 내면적 고독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E. 일시적 고독과 만성적 고독

일시적 고독은 주로 삶에 변화가 찾아와서 일시적으로 사회 관계나 애정 관계에 차질이 생길 때 겪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때 주로 나타난다.

만성적인 고독은 개인의 성격과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에 따른 것으로,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남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남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징을 유아기에 경험한 사회적·정서적 관계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59]

어쩌면 삶이란 고독의 연속이며 행복해지기위한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해피엔딩을 꿈꾸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황혼의 고독을 어떻게 의미있는 시간으로 승화시키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21 세기의 세계적 공통과제인 고령화 추세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인구는 점점더 빠르게 노령화되고 노인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있다. 1900 년에 평균수명이 48 세에 불과하였으나, 100 년 만에 75 세(여성 80 세, 남성 73 세)로 늘어났다. 1900 년에는 65 세 이상 노인이 15 명 중 1 명에 불과하였지만, 오늘날에는 8 명 중 1 명 꼴인 셈이다. 2003 년에 65 세 이상 노인인구는 3.600 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 인구의 12%를 차지 한다. 미국의 고령화 속도는 유럽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늦은 편이다. 인구통계(U.S Census of Bureau)에 따르면 2010~2030 년 고령화의 주인공이 될 베이비붐 세대와 85 세 초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59] Ibid, 74-79.

2020 년에는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5,40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인구의 20.2%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30 년에는 7,050 명, 2050 년에는 7,900 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60]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인(αφηλιξ)들은 신체적 기능의 쇠퇴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 들며 수입원이 희박하지만 기본적인 생계비와 신체적 쇠퇴에 따른 병원비도 충당해야하므로 경제적인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다.

빈곤의 정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1959 년도에는 빈곤율에 있어서 생산 인구가 17%인 데 비해 노인이 35%로 두배가 넘는 비율을 보였으나, 2002 년도에는 생산인구와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각각 10%로 차이가 없었다.대부분의 노인은 정규직에서 은퇴하고 난 뒤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소득이고 그 외 다른 연금소득과 재산에서의 소득 혹은 지속적인 급여를 받기도 한다. 2002 년도 65 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은 국민연금 39%, 급여 25%, 기타 연금 19%, 재산소득 14%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61]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하지만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소득 상실로 인한 무력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와의 별거 및 자녀들의 노인 부양 의식의 변화로 고독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많다. 이러한 노인의 소외와 역할 상실은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62]

고령화에 시대에따라 노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일은 매우중요하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심리적, 건강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노후의 생활이 힘들어지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하류 노인으로 전락하게된다.

그렇다면 하류노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하류노인을 "생활보호기준 정도위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고령자"로 저의한다. 국가가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고령자"를 말한다, 하류노인에게 '없는' 3 가지는 수입이 거의 없고, 충분한 저축이 없으며 의지할 사람이 없다 [63]

---

[60] 한정란 외 9 명, *세계의 노인교육* (서울: 학지사, 2006), 74.

[61] Ibid., 80.

[62] 한국노년학회, *노년학의 이해*, 48.

[63] Takanori Fujita, *2020 하류노인이온다*, 홍성민 역 (서울: 청림출판, 2016), 30.

사실, 하류노인 가운데는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할 수 있는 관계를 쌓고 있는 고령자가 거의 없다. 흔히 말하는 '관계성의 빈곤' 상태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은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하며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한다.[64]

고령자로 인해 젊은 세대가 같이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사태에 이르면, 하류노인을 중심으로 '노인은 거추장스럽고 짐이다' 라는 식의 인식이 퍼져 고령자가 존경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될 위험성이 있다.[65]

이러한 현상들은 노인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가 아닌 거추장 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중시해온 가치관 , 그 중에서도 어릴 적부터 배운 '생명의 고귀함' 과 '생명 윤리' 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우생사상(優生思想:유전적으로 열등한 것은 제거하고 좋은 유전형질만을 보존해 자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상)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사고방식을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언어폭력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자신과 다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배척 행동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리고 있다. 노숙자를 습격하는 중고생은 물론, 노숙자를 습격해서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멋진 행동이라고 말하는 소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행동은 개인의 권리와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66]

이제 고령화시대에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준비해야한다. '자립하지 못해서 창피하다' 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떤의미에서는 오만이고, 그런 의식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자립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환경에 의존하여 산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67]

2) 노인의 소외

우리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쓰고 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 역사에 있어서나 이것은 지금 있는 현존이 꼭 있어야 할 실존에서 떨어져 있음을 전제한다.

---

[64] Fujita, *2020 하류노인이온다*, 2016, 38.

[65] Ibid., 46.

[66] Ibid., 47.

[67] Ibid., 224.

현존이 실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소외라는 말로 나타낸다. 현존은 실존을 지향하지만 언제나 실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런 실존에 미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언제나 실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이 소원된 상태가 바로 소외인 것이다. [68]

사회가 점점 발전할 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며, 소외의 원인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만을 들 수는 없다.

하버드와 MIT 의 도시연구공동센터에 있는 밴필드(E. C. Banfield)와 윌슨(J. Q. Wilson)은 그들의 저서 「도시정치」(City Politic)가운데 도시 생활에서 빚어진 몇 가지 균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즉 ①도시 중심 대 교회, ②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③민족과 인종의 갈등, 특히 흑백 문제, ④각 정당간의 경쟁 등이다.이 균열은 현대 도시라면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형태화 강도의 차이가 있으며 또 서로 맞물려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69]

세속화 도시가 될 수록 인간의 공허함과 소외와 정신적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 옛날 대가족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였지만 가족간의 사랑과 사회의 유대관계는 더 친밀했다.

Ferdinand Toennies 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점차적인 분리(separation)로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로부터의 분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본성, 자발성, 참된 인간적인 고통과 기쁨으로 부터의 분리", 즉 소외라고 하였다.

(1) 사회학적 접근

A. 노동으로서의 일

Karl Marx 는 노동이 소외의 근원이라고 보았다.노동에 의하여 생기는 소외는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개인 생활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인류로부터 소외이다. 첫번째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인간의 전인성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노동으로 인한 소외가 심화될 때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서 하나의 상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인격마저도 함께 상실한다. 두 번째 소외는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이다. 노동으로 인한 소외는 경쟁사회의 한 단면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경쟁자가 된다. 경쟁으로 인하여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로 머물거나

---

[68] 송기득, *인간*, 119.

[69] Harvey, *세속도시*, 153-154.

서로가 소외되어, 상호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세 번째는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이다.노동자들은 단순히 즐길 수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성교를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에서만 자유롭기 때문에 창조계로부터 소외된다. 네 번째는 인류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이다. 자신이 하는 작업 외에는 상관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와의 연대와 결속을 상실하게 된다.

B. 현대 사회의 맘몬(Mammon)

우상 숭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나 자본주의 사회의 우상은 맘몬(Mammon)[70]이 대표적이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소외는 전통적 인간성의 실현과 치유 공동체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돈은 단순히 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이웃에게서, 자연에게서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돈이 주는 안전을 더욱 믿게 하고 돈이 주는 거짓 안전과 평화를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C.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사회학자인 Toennies는 사람들이 공동사회[71], 공동체의 결속력에서 벗어나면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가 기술 중심, 이익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경쟁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가치 상실을 체험하고 있다. 이익사회에서는 권력과 명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시기와 투쟁을 야기시킨다. 이익사회의 결속은 궁극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야기시킨다. 이익사회의 결속은 궁극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적인 것일 뿐으로 자신의 이익에 위배될 때 결속은 깨어진다. Toennies는 이익사회에서는 모두가 홀로 있으며 고립되어 있고 자연에 대한 긴장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신뢰와 상호성이 사라지고 돈이 대신하는 것이 하나의 표징이라고 본다.

역사가 변천하면서 죄의 해석도 변하였으나 죄로서 나타나는 소외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된 세계로부터 인간을 단절시키고 소외시킴으로

---

[70] 맘몬은 아람어로 ‘부’나 ‘부유함’을 의미한다.

[71] 사회학자 퇴니스는 옛 질서의 가장 전형적인 것을 공동사회(Gemeinschaft/Community),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가장 전형적인 것을 이익사회(Gesellschaft/Society)라고 불렀다.공동사회는 의도나 선택에 선행하며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나’보다는 ‘우리’에 강조점을 두는 집단이다. 각 개인은 전체 집단의 질서와 깊게 동일화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통전적 인간의 실현을 방해하고 나아가 치유 공동체 형성을 방해하게 한다. 성서 속에서 나타난 죄는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이웃, 환경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현시한다.

(2) 종교적 접근

A. 교회와 소외

Hegel 은 소외와 종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72] 전통적인 종교가 인간의 삼중 소외의 근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삼중 소외란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동료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한다.

기독교의 이데올로기적 종교[73] , 권위주위적 종교[74], 그리고 율법적주의적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한다.

B. 흑백논리의 근거인 이원론적 사고

Platon, Aristoteles 과 Augustine 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원론은 중세 Aquinas 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원론의 기본적 개념의 틀은 특정 상황이나 영역을 두 개의 상반되는 요인이나 원리들로 설명하는 것으로 중간적인 개념이나 매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

[72] 헤겔은 소외를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성을 감소시키는 소외(Entfremdung)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롭게 선택되고 사랑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보다 참된 인간으로 만드는 소외(Entausserung)라고 하였다. Richard Schacht. Alienation(New York:Doubleday, 1971).

[73] 이데올로기적인 종교의 측면은 만하임의 종교분석에서 두 가지 형태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종교는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지배적인 가치들을 변호하며, 지배 계급의 권위를 조장한다. 또 구성원들로하여금 사회는 안정되어 있고 변치 않는다고 보는 상상력을 만들게 한다. 이네 반하여 유토피아적인 종교는 사회 질서의 병폐를 폭로하고 지배 가치들을 전도시키며, 사회 변동을 위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 한다.

[74] 권위주의적 종교는 율법주의적인 종교이기도한데 Erich Fromm 은 권위주의적 종교의 특성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권위주의적 종교는 인간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높은 권력을 인정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에 순종하는 것을 운명으로 믿게 함으로써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배제한다. 둘째, 비윤리적 측면으로 인간들은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권력은 사랑이나 정의 같은 윤리의 정당성 없이 행사될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의 한 속성인 도덕성을 상실하게 한다. 셋째, 비관론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인간을 무의미한 존재로 보며 자신의 가능성과 선택권을 부인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석한다. Erich Fromm. Psychoanalysis and Religion(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1950)

Collines는 이원론이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리(소외)를 가져왔고 한 인간 존재 안에 분리된 자아를 형성하는 악의 근원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75]

세상의 중심인 '인간'이 사회로 부터 소외되고 외면 당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간'을 다시 사회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소외의 현상은 도시화에 따라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도시생활의 문제에 관한 가능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미국의 도시생활 문제에 관한 가능한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현대 도시는 권위의 분산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도시문제를 다루는 정치적 구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도시 문제는 사회적인 기반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는 말하자면 하수구와 비슷한 것이며 이 하수구가 꽉막혀 버린 문제는 하수구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다만 전체 기구를 샅샅이 살펴보아야만 한다. 셋째로는 억압받는 사람들이 무력하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현대 미국 도시의 진정한 병, 특히 그 안에서 사는 무력한 사람들의 병은 저들이 발언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전 기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합법적인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는 노력이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76]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과제라고 할 수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이 부패되고 그 인간의 문화가 또한 왜곡된 것이어서 부패한 본성이 왜곡된 문화를 산출하고, 왜곡된 문화가 다시 인간의 본성을 썩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적, 심리적, 생리적, 그리고 사회적 부패란 것은 그가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그 안에 선(善)이 없는 본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마 자신의 본성까지라도 그것이 본성에 관한 것인 한, 악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전도(顚倒)됨으로써 악하게 됐을 뿐이다." 인간의 도덕적 질병도, 그의 본성 안에 건강의 질서가 다소 있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질병도 그의 본성 만큼 복잡하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그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를 선하게 만든

[75] 구미리암, *치유공동체 신학* (서울: 쿰란 출판사, 2000), 80-92.

[76] Harvey, *세속도시*, 155-156.

절대선(Goodness), 그의 최고의 선인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의지하도록 창조되었다.[77]

인간본연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여 소외계층과 더불어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가족 관계 회복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정신 심리 치료학에서 보는 인간의 이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신 심리 치료학에서 보는 통전적인간 이해

정신 심리 치료학에서 보는 인간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을 본능과 환경에 지배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환경을 극복하면서 자신을 실현해 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 두가지 관점의 공통점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A.본능에 지배되는 존재: 인간을 본능에 지배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본 정신분석학은 인간 이해에서 불안의 개념을 강조한다. 효율적인 수단으로 다룰 수 없는 불안을 '외상적 불안'이라고 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불안에 대처할 수 없을 때 자아는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되며 그것을 자아의 '방어기제'라고 한다.

B.균형과 통합을 추구하는 인간 이해: 통전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Jung의 인간관은 균형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것과 종족의 역사, 그리고 목적, 욕망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석했으며 실재했던 과거와 가능성을 가진 미래가 동시에 인간의 현재 행동을 이끌어 간다고 보았다.

C. 의미를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 Alder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보다 적극적인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의식을 통하여 보통 자기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있으며 자아실현을 하기에 필요한 행동의 의미 파악과 행동 계획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이론의 기본 개념은 우월성의 추구, 열등감과 보상, 생활양식과 아동기의 경험이다.

D.'지금' 그리고 '여기'의 존재:Rollo May에 의하면 인간은 선택에 의하여 작

[77] 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209-210.

인식을 넓힐 수도 있고 제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78]
이렇듯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않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복잡하다.

인간은 특별한 자유와 사랑의 유대에 의해 초월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 정신성, 침범할 수 없는 가치, 타자와의 평등성 등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존재의 기반인 초월자와의 관계를 인식 함으로써 보다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다. 때문에 인격주의적인휴머니즘은 무신주의적 휴머니즘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무신주의가 지닌 결함을 보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인간의 가치느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각 개인의 외적 요인(신체, 경제적, 학력 등)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그가 지닌 초월적 존재와의 정신적인 유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79]
인생의 마무리단계인 황혼을 가장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건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이다. 노년의 생활을 소외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사회활동의 참여가 중요하다. 사회활동의 중요한 참여 중 하나가 자원봉사이다.

자원 봉사의 분야와 그 내용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하다. 실제로 자원봉사자는 장애인, 노인, 환자, 어린이, 소외 계층 등 신체적 및 정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돕는 일에서 출발하여 사회 정의의 실현고 도덕성 회복, 기타 공익을 위한 사회 개혁 운동에 이르기 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둥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 활동을 위해 보수를 지급받지 않으면서 교육, 문화, 예술, 의료, 종교, 사회 복지, 스포츠, 환경, 정치, 공공 행정, 사법, 국제 평화 등 인간 사회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80]
그러나 이러한 자원 봉사는 단순히 순간의 열정이나 의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의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78] 구미리암, *치유공동체 신학*, 100-111.

[79]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편저, *인간학*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7), 214.

[80] 한국노년학회, *노년학의 이해*, 257-258.

이루어져야한다.

노인의 봉사 학습은 공식 학습(formal learning)과 비공식 학습(informal learn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식 학습은 봉사하는 영역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새로이 습득하는 것이고, 비공식 학습은 봉사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학습, 즉 다양한 가치관과 접하면서 도전을 받고, 신념과 용기와 자립심을 배양하고, 나아가 새로울 기술과 통찰력과 헌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식 학습과 비공식 학습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 일어나기도 한다.(Elderhostel,1998).[81] 여러 나라에서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 년대 중반부터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소외와 아동의 가정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미국 은퇴자협회는 '세대공동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세대의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세대공동체 프로그램은 세대 간의 지식과 정보와 문화를 교환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노인을 활용하여 노인과 지역사회와 젊은 세 대의 삼각 구도 안에서 조화로운 상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돌보기 프로그램, 청소년 보호센터, 시니어센터, 양로원, 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되어 왔다.[82]

미국에서 노인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봉사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로 세대함께하기가 있다. 세대함께하기(Generation Together)는 피츠버그대학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과 운영은 학교 승인 얻기, 자원봉사자와 교사 확보, 오리엔테이션, 트레이닝, 배치, 프로그램 관리, 평가 등의 단계를 포함한다.
A. 노인 학교자원봉사 프로그램:55 세 이상의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인종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인 학교봉사 프로그램은 1960 년대부터 학교 안에서 부모들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12 학년 부모세대가 참여하여 세대 간 교류를 위한 기회의 확장과 학생들이 노화를 이해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81] Ibid., 260.

[82] 한정란 외 9 명, *세계의 노인교육*, 107.

B. 세대공동체 예술과 교육 프로그램:노인 예술가를 학교로 초청해서 미술, 문학, 연극, 악기연주 등 예술 분야에 대하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노인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 간 예술축제를 개최하길도 한다.

C. 조부모 지원프로그램: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에게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D. 가족친구:20 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신체나 정신 장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E. 직업능력개발 멘토링 프로그램: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과 노인이 한 조를 이루어 6 개월 이상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 있는 교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F. 세대 공동체 유아 프로그램:노인 봉사자가 5 세 이전의 유아를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케어캐슬(Care Castle)은 1988 년 파익스피크 시니어센터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콜로라도에서 시작된 비영리 세대공동체 보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보육센터 프로그램, 노인자원봉사 훈련과 배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이 전담 교사와 보조교사로 배치되어 어린이의 정서적 , 사회적, 인지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킨다.

비스타(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VISTA)프로그램은 일리노이 주 노화부에서 1996 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해능력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A. 이야기하기 연계 프로그램:노인이 수업시간에 참여하여 수업 내용과 관계 있는 자신들의 인생경험을 실제로 들려줌으로써 학습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B.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 중 아동에게 인기가 있는 책을 노인 자원봉사자가 읽어 주는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혹은 반대로 중고생으 노인에게 책을 읽어 주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배포하기도 한다.[83]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외에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봉사활동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세대공동체 프로그램은 청소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이해, 문화, 인종, 세대 차이의 이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83] Ibid., 108-110.

사회적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년층의 이러한 봉사활동은 교회내에서도 가능하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교회의 역할도 점차 다양하게 변화되어간다. 노년층의 봉사자들은 인생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사역자들이다.

세계 교회는 나름대로 도시의 문제들에 대처하는 또 다른 대리인이었다. 1872 년 뉴욕의 엘마이라에 있는 토마스 비처(Thomas Beecher, 1824-1900)의 파크 교회는 제도 교회의 선구자가 되었다. 제도 교회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했다. 남북 전쟁 이후 여러 교파에서 이러한 유형의 교회들을 조직했다. 체육관, 도서관, 의무실, 강의실, 사교실, 재봉실, 강당, 그밖에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교회에 부속되 있었다.[84]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본인의 의지와 선택과 무관하게 가정이라는 사회집단에 소속된다. 개인의 인격, 성품, 특성, 재능, 대인관계의 기술 등 모든것이 가정 환경 속에서 형성되며 평생 살아가는 기초를 터득하게 된다. 가정은 사회적 삶을 위한 첫 번째이고 기본적인 학교이다.
A. 인간 공동체의 형성: 가정의 첫째 임무는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계속적인 노력을 쏟으며서 일치의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 임무의 내적 원리, 영원한 원동력, 최종적인 목표는 사랑이다.
B. 생명에의 봉사:출산력은 부부애의 결실이고 징표이며, 아울러 부부 상호간의 완전한 자기 봉헌의 산 증거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에 건네주는 도덕적, 영신적, 초자연적 생활의 결실로서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C. 사회 발전에 참여: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며 생명에 봉사하는 역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회를 육성하기 때문에, 사회와는 활력적이며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다. 가정 공동체의 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거저 줌’(free giving)의 법칙이 따른다. 이 거저 줌은 가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가치의 유일한 기반으로서 존중하고 육성할 뿐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임, 만남과 대화, 이해를 따지지 않는 협조 자세, 관대한 봉사, 깊은 유대의 형태로 나타난다.[85]

---

[84] Cairns, *세계교회사 2*, 277.

[85]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편저, *인간학*, 210-213.

건전한 가정에서 생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존감 높다. 그리고 실패를 하거나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긍정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 데이빗 씨맨즈(David Seamands)는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몇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살펴보아라. 둘째, 칭찬을 과감히 받아들여라.칭찬 받는 것을 무조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기 비하를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셋째, "나는…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낮은 자긍심을 극복하는 또 다른방법은 "나는…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으며, 또한 변해야 하는 존재이다. 넷째, 도움을 구하라. 거부당한 경험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아를 멍들게 하는 강한 충격을 겪었다면 그것을 치유해야 한다. 이런 치유는 혼자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86]

사회적 약자는 어떤 사회 집단에도 상당수 있습니다. 유아, 노인, 장애인, 병자, 고아, 난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제도는 설계되어야 합니다. 잊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사회는 약자를 기준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약자가 약자이면서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지되고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는 설계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성원 모두가 강자이고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기능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런 집단은 한 세대도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유아기를 거치고, 또 누구나 누군가의 간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인이 됩니다.[87]

태어나서 부터 노인이 되기 까지 늙어가는 과정은 어느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모두는 예비 노인들이다. 오늘의 발전된 사회는 지금의 노년층들이 젊은시절 열심히 살아온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이 노년층을 공경하고 함께 살아갈때에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

[86] J. I. Packer 외 64 명, *기독교 교양*, 이용복, 전의우 역 (서울: 규장, 2006), 229.

[87] Tatsuru Uchida, *어른 없는 사회*, 김경옥 역 (서울: 민들레, 2016), 132.

될것이다.

4. 노년의 자아실현 교육

1) 노인교육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중 하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욱더 진화되고 발전된 문명을 이루는 것이다. 역사상 교육에 중대한 기여를 한 많은 사건이있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은 교육사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독일의 종교개혁을 유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1514-1517 년에 걸쳐 진행된 면죄부 판매였다. 당시 교황청의 사치는 극에 달하고 있었으며, 베드로 사원을 개축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던 교황 레오 10 세는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인 알버트(Albert)로 하여금 면죄부 판매를 승인하였다.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죄를 사하고, 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옥행을 면할 수 있다는 등의 허무맹항한 교리에 대하여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1517 년 10 월 31 일 비텐베르크(Wittenberg)교회 문에 95 개 조항에 달하는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루터는 성경 로마서 1 장 17 절[88]을 인용하여, 사람의 구원은 면죄부가 아니라 성서와 개개인의 신앙에 의해서만 아루어질 수 있음을 천명하고 사면보다는 신앙에 의한 구제를 기원하라고 하였다.[89]

종교개혁은 직접적으로는 종교적 모순에 대한 개혁이었지만 간접적으로는 사회전반에 걸친 사회운동·문화운동이었으며, 동시에 교육개혁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이 교육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서의 독일어 번역을 통하여 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씌어진 성경은 모든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루터에 의해 성서가 일상독일어로 번역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복음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통교육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었다.[90]

둘째, 실용적인 인간을 길러 내는데 기여하였다. 신교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인간 자체를 중요시한 결과 아동으로 하여금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과학적 진리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교육은 실제 사회에 유용한 인물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

[88]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89] 박의수 외 3 명,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2006), 181-182.

[90] Ibid.

두게 되었다.

셋째,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조화를 도모하여 현실적인 사회발전을 강조하였다.

넷째, 기초교육으로서의 가정교육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모든 국가발전의 기초는 가정교육에 있으며, 자녀교육을 모든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후에 페스탈로치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91]

종교개혁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이 깨우쳐지고, 보통교육이 확산될 수 있었으며 초등의무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이 탐구됨으로써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조화로운 통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결과로 신학에서 과학으로, 초자연에서 자연으로, 교권에서 인간의 자유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 삶에 있어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여전히 언어주위, 기억주의, 서적주의, 형식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다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를 형성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92]

현대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인해 교육에 대한 생각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과거의 정규교육과정과 대학교육만을 교육으로 생각하던 것과 달리 현대 사회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더욱더 강하다. 다양한 미디어나 과학의 발달, 자신의 능력개발 등의 이유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등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교육장소도 과거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기회가 확대되었다.

흔히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교육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노년의 교육 또한 우리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현재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반면, 노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과 문화적 빈곤 속에 노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여가의 개념을 살펴보면, 산업 사회 이전에는 노동과 여가라는 개념에 대한 분리가 명확하지 않았다. 산업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동을 위한 장소가 가정을 떠난 작업장으로 한정됨으로써 직장 내 노동 시간에 대한 제약이 시작되었고,

---

[91] Ibid., 183.

[92] Ibid., 186.

따라서 여가는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휴양과 피로 회복의 시간으로 인식되었다(Dumazedier, 1980).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가란 양질의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휴식, 재충전의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식과 능력의 양성, 창조력의 발휘 등 자기 개발 및 사회적 성취 등의 좀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93] 노년의 여가시간을 그냥 흘러의미없게 지내는 것이아니라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한 또 다른 교육의 기회로 만든다면 노년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기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가활동을 위한 예술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 노년교육의 중요성

최근 들어 고령화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힘입어 다양한 프로그램 실천과 학문적 연구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게 되었다. 이러한 형식적-비형식적, 이론적-실천적 교육과 교육학으로서의 노년교육학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A. 학습사회의 출현: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생학습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의 등장이다. 평생학습사회란 연령층을 불문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식과 기술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Sherron & Lumsden, 1990).

B. 사회변화의 가속화:정보통신 기술을 선두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문화예술 방면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조류와 코드가 유행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담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재 교육이 필요하다.

C. 핵가족화와 세대 간 갈등 증가:한 시대 속에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오랜 기간을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각 세대는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서로 완전히 분리된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늘어난 노년층과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서로교류하고 화합아며, 사회적으로 노인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D. 가치관의 변화:젊은 세대 사이에 노부모 부양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그

[93] Ibid., 218.

결과 지금의 노인은 물론 앚이로도 과거와 같은 자녀의 부양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곧 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자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E. 노인에 대한 시각변화:전생애 발달(life-span development) 관점은 노인을 노화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고 생존해 나가야 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귀중한 자원으로 보게 만들었으며, 노인이 지닌 장애보다는 그들이 계발해야 할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F. 노인의 욕구 변화:새로운 노년층은 건강이나 안전, 안락한 삶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자기를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더 고차원적이고도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될것으로 예측된다.

G. 평균수명의 연장:팔십 평생의 거의 1/4 에 해당하는 시기를 노인으로 지내야 한다. 따라서 늘어난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94]

(2) 노인 교육 현황

노인 학교는 1972 년 종로 태화관의 '서울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노인학교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교육 기관이다. 1970 년대 후반과 1980 년대에 급속히설립되어 1999 년 전국 527 개소에 11 만 여명이 등록된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나(보건 복지부, 2000), 미등록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노인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500 개 정도에 약 15 만 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교육은 1971 년 노인을 위한 백악관회의(Whaite House Conference on Aging)에서 맥클러스키(McClusky)가 교육의 긍정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교육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노인 교육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후 1970 년대에는 노인을 위한 교육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1975 년에 설립된 엘더호스텔(Elderhostel)은 전국의 대학이 중심이 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일주일 단위의 단기 코스에서 강좌, 현장 학습, 오락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노인들의 대대적인 호응하에 엘더호스텔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1999 년에는 전세계 70 개국에서 1 만여개의 프로그램에 27 만 명이 첨여하고있는 전

[94] 한정란 외 9 명, *세계의 노인교육*, 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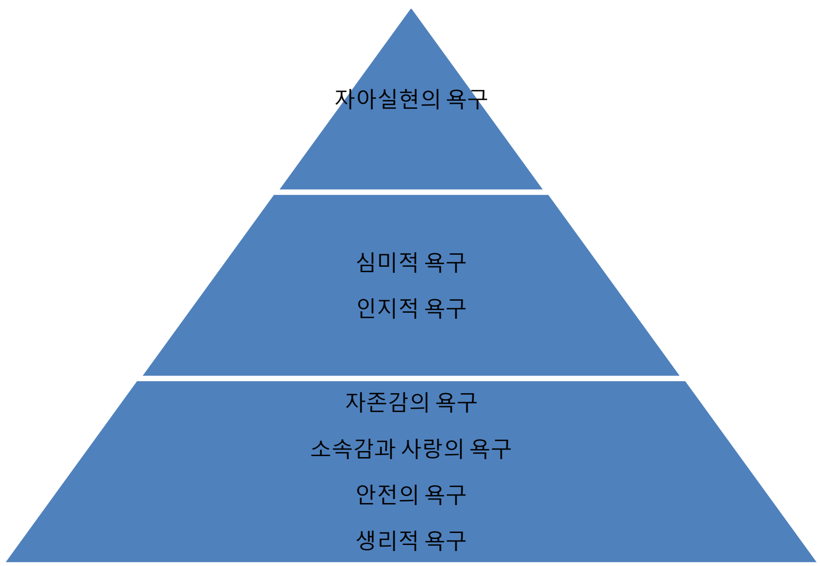
세계적인 노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95]

사회가 점점 복잡해 질 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많다.교육대한 개념도 점차 확대되어 평생학습사회가 되었으며, 새로운 학습새계에 대한 도전은 나 자신을 발절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 노년의 상실감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으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단계로 올라가며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의 단계를 매슬로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위계



•매슬로우는 네 개의 하위 수준의 욕구들, 즉 생존, 안전, 소속과 자존의 욕구를 결핍 욕구(Deficiency Needs)라고 불렀다. 이런 욕구들이 만족될 때, 그것을 달성하려는 동기는 감소한다.

•나머지 세 개의 상위 수준의 욕구들, 즉 지적 성취, 심미적 이해, 자아실현의 욕구를 존재 욕구(Being Needs)라고 불렀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될 때, 개인의 동기는 중단되지 않고 더 높은 성취를 위해 증가된다.

•결핍 욕구와는 달리 존재 욕구는 절대로 완전히 달성될 수 없다. 그것을 성취하려는 동기는 끊임없이 갱신된다.[96]

---

[95] 한국노년학회, *노년학의 이해*, 243.

[96] 구평회, *구평회교육학 하* (서울: 지북스, 2007), 110-111.

위에서 살펴본것 처럼 사람은 동물과 달리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923 년 이전에 프로이트는 ‘자아’라는 개념을 억압된 내용들이 떨어져 나간 의식적인 사고의 집합체라는 의미로 느슨하고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23 년 「자아와 원본능」(Ego and Id)에서 자아를 (원본능과 초자아와 함께)마음의 삼층 구조 중 하나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자아의 주된 기능은 방어를 통해(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요구를 포함한)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다. 자아는 현실을 고려해서 내적 욕동의 압력들을 억압하고 욕동의 방향을 전환시킨다.
자아심리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마음을 욕동과 방어의 구조로 파악한 프로이트의 인간관을 확장시키는 것이었다.[97]

자아실현의 방법으로 우리는 교육을 들 수 있다. 더 향상된 삶을 살기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며 타인과 경쟁 속에 살아간다. 과거의 수동적인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현대의 교육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스마트 폰, 컴퓨터, 최신 가전제품 및 각종 기계들로 인해 세상은 분명히 편리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과학의 발달이 또 다른 소외의 원인으로 다가 온다. 각종 편리한 기계들은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므로 직접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자식이나 가까운 가족들이 제일 좋은 교사이지만 정작 가족들은 이를 귀찮아하고 그에 따른 노인들의 상실감과 소외는 커진다.
과학기술의 생명(life cycle)은 1, 2 년이 안될 정도로 짧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로의 변화는 더 이상 선택적인 과제가 아니라 필연의 과제가 되었다. 즉, 포스트모던 사회 및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98]
교육의 기회 확대와 문명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러나 타인으로 부터의 소외에 따른 감성의 빈곤을 가져 왔다. 사회로 부터 비주류로 한걸음 물러나 있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다.

‘무료하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년층은 물론 청장년층에게도

---

[97] Mitchell Stephen A and Black Margaret J, *프로이트 이후*, 이재훈, 이해리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2), 62.

[98] Ibid., 422.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사회적 은퇴 및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인해 역할 상실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어느 시기보다 많으며, 이는 노인의 고독감 및 고립감 등 심리적 약화를 통해 노년기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99]
노인의 상실된 감성을 회복하여 자존감을 높여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로 우리 사회가 함께 앞장 서야한다.

노인들의 교육 수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들 스스로 학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의 증가로 노인의 사회 활동은 왕성할 것이고, 젊은 세대의 부양 의식 감소로 인해 노인들도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자립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가 활시간을 활용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고, 역할 상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인 교육은 필요하다.[100]

3) 노인교육의 중요성

교육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변화 되었다. 세계에서 탈므드교육으로 잘 알려진 유대인의 교육과 고대 로마의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대인의 교육:유대인 자녀들은 맨처은 자신들의 부모드로부터 히브리 역사와 종교, 실제적인 기술들 그리고 또힌 읽기와 쓰기 등을 배웠다. 유대인 소년들은 여섯 살이 될무렵 지역의 회당 학교에 입학했다. 거기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 읽기와 쓰기기를 배웠다. 또한 과목들 속에는 간단한 산구, 성경 외의 유대 전승, 그리고 복잡한 종교적인 의례들이 포함되 있다. 이처럼 한정된 학문적인 훈련 이외에도 모든 유대인 소년들은 무역을 배웠다.

그리스-로마 교육:그리스-로마의 교육의 그 범위가 자유로웠다. 그리스-로마 소년들은 성대한 의식과 함께 성인이 되기 전까지 유넌 시절에 노예릐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여기저기 있는 사립 학교에서 최초의 교육을 받았다. 청년이 되면, 아테네, 로데스, 타르수스, 알렉산드리아 및 기타 지역들에 소재한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 수사학, 법률, 수학, 천문학, 의학, 지리 및 식물학 등을 공부할 수 있었다.[101]

서양의 역사는 그리스 문명 이래 그들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삼아 삶과 문화를

---

[99] 한국노년학회, *노년학의 이해*, 219.

[100] Ibid., 237.

[101] Robert H. Gundry, *신약개론*, 김일우 역 (서울: 엠마오, 1997), 100.

잇고 또한 극복하고자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르네상스, 종교개혁, 쿠텐베르크에 으한 활자의 발명, 프랑스혁명, 산업혁명 등의 굵직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약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간이 삶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는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과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영역을 통해 잘 알 수 있다.[102]
교육은 시대나 나라에 따라 그 방법이 조금씩 변화 되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비로 진정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교육작용의 본질을 인간형성과 사회개조를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 김정환이 교육을 사회 문화적 기능의 측면에서 '교육의 본질적 4 대 기능'으로 설명한 것은 교육의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질서 체제의 현상적 유지,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인간의 조화적 발전 조장, 사회 혁신의 기반 조성 등으로 보고, 이를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아래서 위로'의 각각 네 방향으로의 기능으로 설명하면서, 결국 교육의 기능은 이 네 방향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보았다. 다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느 한쪽의 기능이 더 강조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교육은 이와 같은 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문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03]
노년교육의 중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사회의 출현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생학습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의 등장이다. 물질적 풍요와 여가의 증대는 모든 연령층이 다양한 교육 장면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평생학습사회란 연령층을 불문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식과 기술을 확장지겨 나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Sherron & Lumsden,1990).
둘째, 사회 변화의 가속화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선두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문화예술 방면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조류와 코드(code)가 유행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당당한

[102] Gombrich Ernst Hans, *서양미술사*, 최민 역 (서울: 열화당, 1998), 4.

[103] 박의수 외 3 명, *교육의 역사와 철학*, 18.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핵가족화와 세대 간 갈등 증가이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조부모 역할 시기는 길어졌지만, 전통적 가족제도 붕괴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세대 간 접촉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그를 통하여 세대 간에 서로 화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년교육, 특히 노인에 관한 교육과 세대 간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네째,가치관의 변화이다. 산업화 및 현대화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경로사상이 무너지고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젊은 세대 사이에 노부모 부양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의 노인은 물론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자녀의 부양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노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와 마찬가지고 사회적·심리적 자립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며, 이는 노년기 역할 재정립과 다양한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노력이 노년교육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노인에 대한 시각 변화이다. 과거에는 노년기를 더 이상 발달을 기대할 수 없는 쇠퇴와 조락의 시기로 노인을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인간이 평생에 걸쳐 발달한다고 하는 전생에 발달(life-span development)관점의 등장 은 노인을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존재이자 여전히 발달 과정 중에 있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을 가능케 하였다. 즉, 노년을 제 2, 제 3 의 인생을 살기 위한 학습과 노력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 노인의 욕구 변화이다.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 향상으로 노인 자신들의 욕구 또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노년층은 건강이나 안전, 안락한 삶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더 고차원적이고도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노년 층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될수록 노년교육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노년층의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노년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곱째,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의료 및 보건 기술발달과 영양 및 위생상태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일생을 팔십으로 볼때 평생의 거의 ¼에 해당하는 시기를 노인으로 살아가야한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104] 노년의 교육중의 하나로 예술을 통한 감성교육은 매우중요하다. 예술교육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과 미적감각을 높여주며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게해 준다.
예술교육의 근본적용원리는 다음과 같다. 미적 교육 또는 예술 교육이 인간 교육의 근본 원리로 적용되는 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A. 조화적 인간상이 구현되며, 이는 확실히 교육의 이상과 일치한다(미적 교육론).
B. 인간 감정이 순화되며, 교육의 근본인 정조 도야의 수단이 된다(정조 교육론).
C. 최고의 창조성이 발휘되고, 이것에 의해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창조 교육론).
D. 인격, 개성이 충분히 표현되며 인간의 참된 지각 형성의 장이 된다(개성 교육론).
E. 생활의 미화, 예술화를 통해 인간 교육이나 문화를 최고 단계로 올려 놓게 된다(생활 예술론).[105] 오늘날 노년기는 보건 및 의료 기술의 꾸준한 향상으로 인간 수명의 연장과 함께 퇴직,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이전의 사회적.가정적 역할 및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영위하는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년기는 시간적 여유가 '무엇인가 하고 남는 시간'이 아닌 '생활의 대부분'이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노년기 여가는 청장년기의 그것과 사뭇 그 의미가 다르다.[106]
일반적으로 노년기 여가 활동은 신체적 건강의 증진, 사회적 접촉 기회의 제공, 삶에 대한 사기 및 만족감의 증진,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유용감과 자기 가티성의 확신,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재미있고 즐거운 삶의 영위 등을 도모할 수 있다(Leitner & Leitner, 1985).
노년기의 여가 활동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 발전시키는 등 개인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친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지지망을 조성케 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노인들을 통합시키는 긍정적 특면을 지니며(Kelly, 1987;1992), 노년기 생활 만족도 및 삶의 행복감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서병숙, 1994; 송정선, 1997; 이선미, 1991; Mancini, 1982; Preston, 1987; Riddick, 1986).
따라서 노년기 여가 활동을 얼마나 보람 있고 유용하게 보내느냐는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남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Lee &

[104] 한정란 외 9명, *세계의 노인교육,* 28-31.

[105] 한태상 외 2명, *미술지도 이렇게 하자* (서울: 미술공론사, 2001), 9.

[106] 한국노년학회, *노년학의 이해*, 218.

Ishij-Kuntz, 1987)[107]

노인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노인들만을 위한(노인들이 원하는)운영 방침, 프로그램, 교육 방법 등이 마련되고 있다. 단과 대학, 공공 학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레크리에이션 부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108]

5. 황혼의 스트레스

1) 스트레스에 노출 된 노인

1978 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사이먼 Herbert Simon 은 선택 앞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행복한 사람을 극대화 maximizer 와 만족자 satisficer 로 구분했다.최고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극대화자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원한다. 자신의 선택이 최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은 모든 대안을 확인해보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극대화자는 다른 선택에 대한 미련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불안감을 느낀다.선택할수록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만족자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다신의 선택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한다.이것이 바로 모든 선택이 자유와 축복, 만족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없는 이유다.[109]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갖는것도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지려는 것도 더 높의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는 것도 결국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얻기위해서 직업, 배우자, 진학, 물건구입 등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한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것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외로운 삶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결국 소외를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Corey, Callanan(1998)은 자살행동 평가를 위하여 주시해야 할 위험신호들을

---

[107] Ibid., 219-220.

[108] Ibid., 244.

[109] 강현식,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것* (서울: 소울 메이트, 2010), 238.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언어적 경고는 가장 중요한 예언신호이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과거의 자살시도에 관심을 가지라. 이 또한 중요한 치명적인 신호이다.

• 내담자가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확인하라. 우울은 모든 자살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불면증은 우울증을 더 심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다. 임상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20 배 정도 자살률이 높다.

•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주시하라. 자살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망적이고, 죄의식을 갖고, 가치 없다고 느낄 수 있다.

• 심각한 불안과 공황상태를 점검하라.

•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라.자살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계획에 대하여 말하도록 하고 자살에 대한 환상을 말하도록 격려하라.

• 심각한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라. 알코올이 자살의 1/4 또는 1/3 정도 관련되는 요인이다.

• 소중한 물건을 나누어 주거나 사업을 정리하거나 유언을 고치는 등의 행동을 주시하라.

• 정신과적 치료나 입원을 한 과거가 있는지 보라. 정서장애로 입원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쉽다.

• 내담자에게 그들이 사용 가능한 자원과 지지망에 대하여 질문하라. 이런 지지와 자원을 사용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대화를 끊는다는, 즉 자살의도가 심각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110]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우리들이 여러가지 환경에 놓여 있고 그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끊임없이 스트레스(δυσανασχετος)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내면이 긍정적 자존감으로 반달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스트레스 정보르 파악하는 8 가지 지침

A.진정시키는 행동이 일어나는 때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몸의 신호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B.개인의 성경에 따라 진정시키는 기준을 설정한다.그러면 진정시키는 행동의 증가나 강도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

---

[110] 최해림 외 4 명, *전문적 상담현장의윤리* (학지사: 2010), 253-254.

C.누군가가 진정시키는 향동을 하면 “저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D.진정시키는 행동은 대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라.
E.진정시키는 행동과 그것을 초래한 스트레스 요인을 연결해 파악할 둘 알게 되면 상대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F.특정한 상황에서 상대의 생각이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라.
G.상대가 몸의 어느 부분을 진정시키는지 주목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클수록 얼굴이나 목을 만지는 정도가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H.스트레스나 불편함이 클수록 진정시키는 행동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진다[111]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좀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스트레스가 생길 것 같은 환경을 바꾸려고 시도해야 한다. 직업을 바꾸거나 이사를 하거나 친척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가 많은 스트레스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둘째, 증상에 따라 행한다. 명상이나 안정제나 약물 치료나 안정법이나 심리요법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이여 심리적인 반응을 바꿀 수도 있다.
셋째,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부정적 사고방식, 추측, 믿음 등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자신의 인식과 세계관이 스트레스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어렵겠지만 이것은 스트레스나 긴장, 염려를 줄이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112]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마법따위는 없다. 직장에서는 업무, 상사와의 갈등, 동료들끼리의 험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고, 가정으로 돌아와도 부모나 자녀와의 사소한 갈등, 쌓여 있는 집안일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애인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별소용이 없다. 스트레스를 풀기는커녕 더 받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113]

[111] Joe Navarro and Marvin Karlins, *행동의 심리학*, 박정길 역 (서울: 리더스북, 2013), 67-68.
[112] Wright H. Norman, *위기 상담학*, 전요섭, 황동현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4), 306-307.
[113] 강현식,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것*, 259.

일상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건들의 스트레스 정도[114]

순위	항목	정도	순위	항목	정도
1 위	배우자의 죽음	100	6 위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	53
2 위	이혼	73	7 위	결혼식	50
3 위	별거	65	8 위	해고	47
4 위	가족의 죽음	63	9 위	별거 후 재결합	45
5 위	교도소 수감	63	10 위	정년퇴직	45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직면하더라도 내면이 잘 형성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연력이 형성된다.

에라히 프롬(Erich Fromm)과 칼 로저스 (Carl Rogers)는 인간의 기본적인 임무란 그의 잠재적인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사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것을 자기의 방식대로 이행할 수 잇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가장 좋은 방법을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은 인간의 개성에 대한 부버적인 권유의 해독스러운 효과를 강조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이 치료받고 성장한다는 소망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인간 관계란 성경적 개념으로는 구속적 관계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구속적 관계란 아가페(agape), 즉 다른 사람을 '주관적 대상'(부버의 '나와 너'의 관계)으로 보고 객관적인 대상(부버의 '나와 그것'의 관계)으로 봄으로써 특징지워진다.[115]

스트레스는 갈등이나 부담스러운 요구가 주어졌을 때 생기는 행동 또는 상황에 대한 반응의 일종이다. 이런 요구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며 사람을 짜증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는 일종의 상황이기도 하다. 어떤 일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걱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항상 그 일과 관련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따라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잘

[114] Ibid., 261.

[115] *Baker's 신학사전*, 신성종 역 (서울: 엠마오, 1989), 488.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야 한다.교인들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될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긍정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도록 돕고,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의 교훈과 지침을 발전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도록 무장시키는 것이 상담자로서의 목회자가 해야할 임무라고 할 수 있다.[116]

2) 가족소외와 정체성 상실

스트레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외과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나타나며, 젊은 엄마가 자녀를 학교에 처음 보내기 위해서 준비할 때도 나타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가고 일을 성취하는 데 자극이 되며 필요한 것이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의 놀라운 업적을 성취할 때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 냈다는 것은 흥미로운일이다. 가타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다루는 사람은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117]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것은 아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며 인생을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 기여하는 점과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불안정한 관계

친구나 애인 또는 배우자가 불행한 일을 당했거나 세상을 떠났다면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위기도 쉽게 초래된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전 영역에 영향을 받는다.

B. 환경

주변의 환경도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조롭고 반복적인 환경은 빠르고 압력이 가득하며 경쟁적인 환경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C. 완벽주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너무 높은 기준 설정이 자기 부정으로 이끈다. 완벽주의 자는 대개 불완전을 의미한다. 안전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한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그것에 따라 살 때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멸시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D. 인내부족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는 계획에 따라 일을 할 수가 없다. 인내는 "참는 것,

---

116 Wright, *위기 상담학*, 301.

117 Ibid., 300.

성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 을 의미한다.

E. 엄격함

융통성 없음은 완벽주의나 인내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하고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F. 편히 쉬지 못함

많은 사람들은 10 분 동안 의자에 앉아 완전히 휴식을 취하기도 힘들어한다. 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일에 가 있고 그런 마음은 다시 살을 일로 내몬다.

G. 분노와 성냄

성경이 폭탄과 같은 사람의 성격이 발동되면 스트레스는 그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까지도 영향을 준다.

H. 유머와 삶에 대한 열정 부족

자만심과 자기 위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I. 과다 경쟁

자신의 행위나 소유물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

J. 자존심 부족

너무 낮은 자기 인식은 삶의 많은 어려움의 기초가 되며,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 있다.[118]

여러가지의 스트레스 원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을 이겨 낼 수 있는 원동력을 형성하는 곳은 가정에서 부터 시작된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속하게 되는 작은 사회이다. 매일 함께 생활하고 누구보다 서로 아껴야할 가족사이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에게 대하는 이 모든 환경들이 유아때부터 노년에 이르기 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50 년대에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rik H.Erikson)이 아이덴티티(Identity)란 개념을 특유한 함축성있는 정신분석학적 자아 심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논리학이나 철학의 영역을 넘어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과 같은 인간에 관한 모든 과학에 있어서 필수용어로

[118] Ibid., 303-304.

등장하게 되었다.[119]

에릭슨의 발달단계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2) 에릭슨에 의한 인성발달 단계[120]

단계	심리성적 발달단계	심리ㆍ사회적위기 성공	심리ㆍ사회적위기 실패	주된관계 대상범위	기본덕목
1.영아기 (출생~1 세)	구강기	신뢰감(Sense of Trust):애정욕구 충족으로형성	불신감:학대, 애정의 박탈, 빠른 이유(離乳)로 형성	어머니	희망
2.유아기 (2~3 세)	항문기	자율성(Autonomy):부모로부터 독립한 자신, 자율적 개체로서의 인식에서 형성	수치감,의심:방해나 제지되는 상태에서 형성	부ㆍ모	의지력
3.유희기 (3~5 세)	남근기	주도성(Initiative):현실도전의 경험,상상,양친 행동의 모방을 통하여 형성	죄악감:너무 엄격한 훈육,윤리적 태도의 강요에서 형성	가족	목적의식
4.학동기 (6~11 세)	잠복기	근면성(Industry):공상과 놀이에서 벗어나 현실적 과업을 수행하고 무엇이든지 해 보려는데서 형성	열등감:지나친 경쟁,개인적 결함,실패의 경험에서 형성	이웃학교	유능감, 능력
5.청년기 (12~18 세)	생식기	정체성(Identity):어른과의 동일시감,자기 가치감,자기 역할의 인식에서 형성	역할의 혼미:자신의 역할,사회적 규준 제시의 불분명에서 형성	교우집단 지도자의 모범	충성심
6.성인 초기		친밀감(Intimacy):동성ㆍ이성간에 인간관계의 친밀감,연대의식,공동의식 등의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형성	심리적고립감:과도한 또는 형식적인 인간관계에서 형성	우정적 동료	사랑
7.성인 중기		생산성(Generativity):부모의 성 역할 인식에서 자기나 자신을 위한 창조성ㆍ생산성 형성	침체성(Stagnation): 방해당하면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형성	직장ㆍ가정	돌봄
8.성인 후기		통합성(Integrity):사회문화의 지배적 이상을 받아들이고 생의 의미에 대한 긍정감을 형성	절망감(Despair):무진통,가치 등의 현상은 성취의 욕을 좌절시키고 인생의 의미를 상실케 함	인류,동포	지혜

어릴때 아이텐티티가 잘 형성된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사람은 결국 인생의 위험 속에서 좌절하고 극단적인 생각에 까지 이르기도 한다.

에릭슨이 구분한 시기들과 위기들은 쉐히(Sheehy)가 삶주기의 예견할 수 있는 위기들이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유익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성숙

---

[119] 구평회, *구평회교육학 하* (서울: 지북스, 2007), 55.

[120] 구평회, *구평회교육학 하*, 55.

및 연령과 적절한 상관관계에 있는 신뢰, 자율성, 주도성의 위기들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삶의 도전들을 나타낸다. 이 도전들에 대한 극복의 일환으로서의 이들의 적응에 서 신앙은 형성되고, 기능을 행하고, 변화된다. 만일 삐아제와 콜버그가 우리에게 신앙의 형성을 가져오는 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자극을 주었다면 에릭슨은 신앙의 기능적 측면, 즉 삶주기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구조족 단계에서도 신앙이 사람들로 하여금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예견되는 실존적인 잇슈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 왔다.[121]

어린시절 부모의 공감의 실패로 결핍된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인 이후에 인간관계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이를 경험한다. 마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과제를 이루려고 하는 듯하다. 코헛은 이처럼 온전한 자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을 자기대상(selfobject)이라고 했다.자기대상은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일 것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연인이나 가족, 혹은 친밀한 관계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122]

프로이트는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상담을 받게 되는 발달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단계가 구강기(oral stage)이다. 구강기에는 사랑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자기 자신이나 남들에 대한 불신에 대해 다룬다. 둘째 단계는 항문기(anal stage)이다. 항문기에는 화를 인지하거나 표현하지 못하여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힘 또는 능력을 부정하고 자율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다룬다. 셋째 단계는 남근기(phallic stage)이다. 남근기에는 자신의 성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자 혹은 여자로서 자신을 수용하지 못한 어려움에 대해 다룬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의하면 인간적, 사회적 발달의 세 영역(사랑과 신뢰, 부정적 감정의 처리, 성에 관한 긍정적 수용의 발달)은 생의 초기 6 년 동안의 생활에 뿌리를 두고, 이기간은 후의 성격발달에 기초가 된다. 이 발달단계에서 아이의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각 단계에 고착될 수 있으며, 후에 심리적으로 미숙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123]

---

[121] James W. Fowler,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83.

[122] 강현식, *꼭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 381-382.

[123] 조현춘 외 4 명,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2012), 69-70.

결국 어린시절 가정환경에서의 경험이 한사람의 인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것이다.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어린 아이들은 책임 있는 나이가 된 후 잃어진 영혼이 되기는 하지만, 어른들처럼 멀리 방황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다. 부모들이 (또는 다른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거침이 되어 구원의 길을 잃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가정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타락하는 부모들이나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심판 때에 많은 것으로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다.[124]

3) 노년의 건강한 방어기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수 많은 상처들로 부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방어기제이다. 방어 기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프로이트의 딸이자 지적 후계자인 안나 프로이트였다. 그녀는 1936년, 『자아와 방어기제 The Ego and the Mechanism of Defense』에서 자아가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열 가지 기제에 대해 기술했다. 안나에게 시작해 이후 많은 정신분석가들은 다양한 방어 기제를 제안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억압 repression: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무의식으로 보내기.예를 들면 자신을 괴롭히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못하거나 어린시절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부정 혹은 부인 denial:위협적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기.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이 망자에게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행동이 그 예이다.

• 전치 displacement 혹은 치환 substitution:문제의 초점을 바꾸거나 대상 바꾸기. 예를 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 직원의 서류나 옷차림에서 단점을 찾아 지적한다.

• 반동 형성 reaction formation:불편한 감정과 생각을 정반대로 표현하기.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더 괴롭히거나 연약한 사람이나 못났다고 느끼는 사람이 힘을 과장하거나 잘난척하는 것이다.

• 합리화 rationalization:그런 듯한 이유를 만들어 결과를 정당화기.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

[124] Warren W. Wiersbe, *핵심 성경 연구 2,* 송용필 역 (서울: 나침반, 2003), 93-94.

부여하거나 현실을 왜곡한다.

• 이지화 intellectualization: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예를 들면 실연으로 실의에 빠진 대학생이 '감정이란 신경전달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태연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 감정 분리 emotional isolation:자신의 경험에서 감정과 생각을 분리시키기.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일을 이야기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말하는 것이다.

• 퇴행 regression:비교적 단순한 초기의 발달 단계로 후퇴하기. 동생을 본 아이들은 이미 뗀 젖을 먹으려고 하거나 응석을 부린다.

• 억제 suppression: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기.예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명확히 지각하는 며느리는 그 감정을 통제하면서 시어머니를 대한다.

• 이타주의 altruism: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타인의 욕구에 관심갖기.불편하고 힘든 감정이나 생각이 자신을 장악하려고 할때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 승화 sublimation: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욕구나 충동 표현하기.누군가 흠씬 패주고 싶은 욕구를 승화시켜 격투기 선수가 되는것, 사람을 향해 총을 쏘고 싶은 욕구를 승화시켜서 군인이 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 유머 humor: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기.유머는 단순한 재미와 즐거움이 목적인 주로 타인이 대상인 농담과 달리 자신의 불편한 감정과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다.[125]

승화와 같은 건강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심리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방어기제 중에서 자신처한 상황을 승화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승화시키는 방법주의 하나로 예술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술은 인간의 심리상태, 정서, 과거와 현재의 살아 온 삶의 표현 등 그 표현 방법과 재료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미술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성경에서 본 노인에 대한 이해

1) 성경에서 본 노년

[125] 강현식, *꼭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 186-190.

노년에 대한 준비는 경제적인것 뿐만아니라 신앙도 중요하다. 올바른 믿음이 함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년을 대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탕으로한 노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실락원 이후 창세기의 족보자료에는 아담이 930 세를 살고 죽었으며, 가장 오래 살았던 므두셀라도 969 세를 살고 죽었으며(창세기 5 장), 홍수 때에 600 세였던 노아도 홍수후 350 년을 더 살고 950 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창 7:6, 9:28-29). 이러한 맥락에서 창세기 본문은 비교적 일찍부터 인간수명의 한계를 일반적으로 120 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창 6:3).[126]

오늘날 인간수명과 비교해 볼때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수명은 상당히 길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줄어 들었다가 다시 현대에 이르러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게 되었다.

구약과 신약시대 인간의 평균수명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우나, 구약의 경우 유다왕들의 연령을 기준으로 44 세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성경은 인생을 연속적인 몇가지 단계들로 구분하며 노년을 그 중에서 마지막단계로 기술하고 있다. 보통 ① 어린이 ② 성인(13 세부터) ③ 노인으로 구분하던지, 네 단계로 ① 유년기 ② 청년기 ③ 장년기(결혼한 남녀) ④ 노년기로 나누며(렘 51 : 22), 노년의 경우 보통 노인과 아주 나이 많은 고령자를 다시 구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렘 6:11). 그럼에도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서약한 몸값, 즉 인생의 단계에 따른 몸 p.47 값 계산 규정은 보다 구제적으로 나이와 인생의 단계와 연결지어 노년에 대한 기준을 가늠해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인생을 네단계로 구분하고 남녀의 서원한 몸값을 각기 규정하고 있다.[127]

2) 노인들의 영적 욕구

인생의 마지막단계인 노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것은 우리모두의 소망이다. 노년의 삶 속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

[12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5.

[127] Ibid., 46-47.

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신앙적 욕구를 갖는다. 이러한 신앙적 욕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려는 욕구와 관련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

(1)하나님이 노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

교회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신다."고 찬송할 때 예수님이 노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전 생애 동안 사랑하시기에 노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에서 소외될 수 없다. 노인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싶어 한다.

(2)교회가 노인들을 돌보고 있음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을 돌보는 데 바쁘고 노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도외시할 수 있다. 노인들은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된다.

(3)교회의 살아 있는 한지체로서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노인들이 여때까지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의 사역들에 참여해 온 것과 같이,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 상황들에 변화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적합한 방식을 통하여 참여를 지속함으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의식을 생생하게 갖기 원한다.

(4)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을 찾으려는 욕구

노인들이 다음 세대들의 멘토와 모델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은 건강과 신체적 힘이 쇠약해질 수 있다 해도, 다양한 새로운 방식들로 다른 세대들을 섬기고 싶어 한다.

(5)변화기에 생활 지지 체계를 갖고자 하는 욕구

노인들은 노년기에 다양한 손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당황하거나 실망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노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 받기를 원한다.[128]

통전적 돌봄(wholistic care)의 의미는 전체적인 보살핌, 총체적인 돌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돌봄의 의미는 두가지로 구분되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돌봄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돌봄이다.

---

[128] 임창복 외 4명, *교회노인교육 프로그램 1*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9), 59-60.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따라서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형성된 존재로서 육과 영을 동시에 공유한 독특한 존재이다. 인간은 영과 육의 욕구가 있으며, 이 영과 육의 욕구가 통전적으로 충족될 때 비로소 참평안, 즉 샬롬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물질적인 돌봄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또한 영적인 돌봄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마 4:2-4)고 말씀하시며,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참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전적 돌봄은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노인이 될수록 이러한 통전적 돌봄은 더욱 필요하다.[129]

3)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은 결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며 소외와 슬픔과 상실의 시기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을 시편 92:14 이하에서 읽을 수 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에 대한 이해는 복음 선교를 위해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해쳐나갔던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 속에서 다시 한 번 그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노년의 인생은 생물학적으로는 노쇠하여 가지만 신학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속사람의 생명이 약동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시기로 파악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의 모습들을 좀더 구처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우리는 앞에서 이미 백발(흰 머리)로 대표되는 성경의 노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데 대한 은총으로 이해된다는

[129] Ibid., 80-81.

점을 살펴보았다(삼상 2:32 참조). 그러므로 노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증언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시기이다.[130]

흰 머리의 노년은 슬퍼하고 기피할 것이 아니다. 오는 백발을 막아보려는 생각도 부질없는 것이며, 백발을 검게 물들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잠 20:29)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백발'을 볼 때까지 오래 살도록 원하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이며, 오래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 분의 은총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시 92: 14-15). 성경의 신앙인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수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욕심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할 좋은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노년의 이해에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성경에서 노인은 조경을 받아야 하며, 노인의 존재는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하여 노인에게는 후생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131]

일반적으로 노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후세대에 알게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으며(시 71:17-18;수 24 : 31과 비교하라), 은퇴 후에도 후배들의 일을 도와 줄 뿐 아니라(민 8:24-26, 눅 1:18-25),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후생들을 앞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인이 자신의 노년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리와 명예를 탐하는 것은 추한면으로서 경계해야 할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왕의 극진한 초청에 대응하는 80세 고령의 신하인 바르실래의 태도는 노년의 또 하나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삼하 19:32-39 ; 왕상 2:7과 비교하라).

셋째로, 노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기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다(출 20:12 ; 신 5:16 ; 엡 6:1-2).[132]

독일학자 베른하르트 랑은 성경세계에서의 양로제도에 관한 그의 글에서 십계명 중 제 5계명의 의미의 재발견과 함께 성경에서 자손들이 노년의 부모를 부양하는

[1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50.

[131] Ibid., 51.

[132] Ibid., 52.

구체적인 본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경에는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데 관해 자녀들의 의무와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본문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으며, 양로제도(또는 노인문제)에 관한 성서학자들의 연구도 그동안 별로 성과가 없었음을 전제하면서, 성경세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맏아들이 부모부양의 책임이 있고 따라서 맏아들은 부모의 유산 중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지적한다(신 21:16-17 ; 창 27장과 비교하라).[133]

결국 베른하르트 랑에 의하면, 성경의 세계에서 양로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십계명 중의 다섯째 계명이라는 것이다. 먼저 그동안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의 주석에서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킵베드'의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거나 추상적인 의미를 비평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것은 노년의 부모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 드린다."(versorgen)는 뜻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노인을 존경하고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인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부모는 자녀의 효도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들이 기쁘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노년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여겨진다.

넷째로, 성경의 노인은 그 임종에 즈음하여 그 후손들에게 노래(신 32장)나 유언(왕상 2:1 이하;창 49:1-28;삼하 23:1-7과 비교하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과거의 역사를 회과면서 감사하고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했으며, 무엇보다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며 주목할 만한 노년의 특징이다.(신 33장, 창 27장 등).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인은 이 땅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노년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 배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며, 특히 임종에 이르러 그 자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된다.[134]

---

[133] Ibid., 53.

[134] Ibid., 54-55.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는 그동안 한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풀고 화해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신과 화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아 통합’이라고 합니다.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서 기독교 신앙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면서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현재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이룬 자아통합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자아통합이므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합니다.[135]

Ⅲ. 미술치료

1. 미술심리치료의 정의와 역사

미술심리치료는 시각예술, 창조 작업, 인간의 발달, 행동, 성격, 정신건강 및 기타 여러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합적인 치료형태로서 기본적으로는 ‘미술과 심리학’ 2가지 분야의 결합을 의미한다.[136]
미술의 치료적 관점에 대한 연구는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동화에 대한 연구가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리치(Ricci)가 이탈리아 아동의 그림에 대한 해석을 출판하였으며, 1983년 바네스(Barnes)는 [아동화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아동화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에서 편집자인 Ulman의 논문에서 표현되었다. Ulman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술회하면서,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던 간에 공통된 의미는 시각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

135 임창복 외 2명, *교회노인교육*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8), 269-270.

136 임세라, 오가영, *미술심리 치료학* (서울: 이담, 2015), 10.

진술했다. [137]

프로이드는 환자들이 자신들의 꿈에 대해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이 많다고 했다. 이러한 보고는 미술표현이 인간 정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확산되었다. 임상에 미적인 개념을 도입했을 뿐 아니라 문학과 미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신의 많은 이론들을 이끌어내었다.

Jung 은 미술이 자기이해와 감정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여 무의식이 변화와 행복의 원천이라고 여겼다. 만약에 이미지가 무의식 속에 남게 되면 인간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실린 이미지를 의식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술심리치료라고 이름을 붙여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미국의 Naumburg(1987)이다.[138]

1) 미술심리치료의 관점

A. 마가렛 마움버그(Margret Naumburg):환자들에게 어떤 주제를 주기보다는 환자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자발적 그림을 중요시했고, 치료에 있어서의 전이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기본적인 가정은 환자의 무의식적 사고와 감정이 그림에 직접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었다. 그림은 환자가 자신의 내적 상태를 표현한 상징적인 말이 된다. 그녀는 자신의 치료적 접근법을 역동적 미술심리치료(Dynamically Oriented Art Therapy)라고 불렀다. 그녀는 내담자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상징적인 대화의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했다. Freud 와 Jung, Sullivan 의 영향을 많이 받아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형성과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자유연상, 자발적 그림표현과 해석, 그림의 상징성 등을 중요시하여 심리치료과정에서 그림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치료에서의 미술(Art In Therapy)을 강조하였다.

B. 이디트 크레이머(Edith Kramer):미술작업을 통하여 환자 자신의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전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자는 미술작업과정에서 자신의 원시적 충동이나 환상에 접근하면서 그

[137] 장미경 외 5 명, *아동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태영, 2007), 163-164.

[138] 임세라, 오가영, *미술심리 치료학*, 11-12.

갈등을 재경험하고 자기훈련과 인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한다는 것이다. 치료자의 역할은 환자가 만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와 통합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크레이머의 견해를 가리켜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치료'라고 보고, 치료로서의 미술'로 표현하였다.

C. 울만(Ulman):미술심리치료를 독립된 분야로 발달시킨 중요한 인물로 그림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환자들의 작업으로부터 무언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얻는다고 보았다. 울만은 나움버그와 크레이머의 정신역동 지향적 미술치료를 통합하면서 쟁점부분에 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술치료는 때로는 예술적 성취감을 중시해야 하며 미술치료는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D. 그 후의 다양한 관점:Janie Ryne은 인간중심적 접근의 강조, Robbins는 대상관계 이론을 미술심리치료에 접목하였고, Wallace는 Jung의 적극적 명상을 도입하였으며, Silver는 언어적 지능과 다른 시각적,공간적 지능을 재는 검사기법을 만들었다.또한 Wadeson은 절충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Kwiatkowska는 가족미술심리치료를 적용하여 보급하였다.[139]

2. 미술심리치료의 장점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미술심리치료에서는 꿈이나 환상, 경험이 순수한 언어적 치료법에서처럼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심상으로 그려진다.

둘째,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아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상치 않았던 작품이 그림이나 조소에서 제작될 수 있는데, 가끔 창작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작품이 제작될 수도 있다.

셋째, 미술은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즉시 얻을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자료가 내담자로부터 생산된는 등 많은 의미를 갖는다.

넷째,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 회상할 수 있다. 미술작품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만든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여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 미술표현은 문법, 통사론, 논법 등의 언어규칙을

[139] Ibid., 13-15.

따를 필요가 없다.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것이며, 시간적인 요소도 없다. 미술은 공간 속에서 연관성들이 발생한다.
여섯째,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시킨다. 미술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개인의 신체적 에너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작업을 진행하고 토론하며 감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에는 대체로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140]

3. 미술심리치료의 상담이론적 접근

1)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미술심리치료

정신분석가들은 미술을 무의식의 표현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미술을 하나의 심리치료기법으로 확립한 사람은 Naumburg 이다. 정신분석적 미술치료에서 치료자는 질문, 명료화, 직면, 특히 해석 및 기타의 중재기법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부적응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통제하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갈등이 부적응적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연결을 뚜렷하게 깨닫도록해 준다. (Hammer, 1968) Naumburg 는 치료에 미술을 적용할 때 주로 정신분석가들이 행한 방법을 모델로하여 자유연상을 치료기법으로 활용하였다. 내담자가 표출한 원인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그 소재를 중심으로 분석 작업을 한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미술'을 '상징적 언어'의 형태로 보는 것이다.

2) Jung 학자의 분석적 미술치료

Jung 은 자신의 무의식으로부터 나온 심상을 탐색하면서 발견했던 심리학적 가치를 깨달은 후에 내담자에게 꿈이나 환상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상하도록 하였다. Jung 은 Freud 가 이야기한 정화(Catharsis)나 승화(sublimation)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담자가 무의식적 심상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보았다. 치료자, 내담자, 미술작업의 삼각관계에서 미술작업은 내담자와 치료자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 저항이 높거나 내담자가 전혀 작품을 만들지 않을 때에도 치료자는 미술을 통하여 상징적 의사소통을 표현하고자 한다. 미술치료에서 내담자와 함께 하는 모든 치료관계는 간접적인 관계이다. 또한 미술치료 상황에서의 역동성은 내담자와 떠오르는 심상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내담자와 매개체와의 상호작용이다.

---

[140] Ibid., 16.

3) 인간중심 미술치료

인간중심 미술치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 가정을 지니고 있다.(Buhler, 1971)

첫째, 치료자는 내담자를 정신적, 환경적 원인으로 인한 갈등의 결과로서, 삶에 적응하는데 있어 특정한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본다. 치료는 삶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가능한 삶의 형태를 창출하는 가운데서 주체성과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변화가 많은 삶 속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정체성(identity), 의미(meaning),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일생 중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예방적 치료적 정신건강 관리는 후에 흥분, 자기표현, 친밀감 등을 강화하는 생활양식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초가 된다.

셋째, Fankle(1971)이 제시한 것과 같이, 영적 차원의 추가로 삶을 보다 의미있게 만드는 자기 초월적(self-transcendent)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의 인간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정직하고 솔직한 자기노출의 생활양식을 이용함으로써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중심 미술치료의 목표는 두려움, 불행,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현의 성취로부터 오는 기쁨, 흥분을 얻기 위하여 느낌들을 어떤 창조적 양상으로서의 정직한 표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고통을 회피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표현을 통하여 특별히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행복을 찾는 것으로 본다.[141]

4) 인지행동적 미술심리치료

인지적 접근에서는 이상행동에 대한 인지적 입장은 다음의 몇 가지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

첫째, 인지(사고)가 정서 및 행동에 여향을 준다. 둘째, 인지는 검색되고 변화 될 수 있다. 셋째, 인지변화는 행동변화를 가져온다. 넷째,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는 비적응적 사고과정의 결과이다.

Ellis 의 합리적-정서행동치료(Rational-Emotive Behavior Therapy): Ellis 는 인본주의적, 철학적, 행동적 심리상담 및 치료를 결합하여 합리적 정서치료를 만들어냈다. (Rational-Emotive Behavior Therapy; REBT). 비합리적인 신념은 평소

---

[141] 장미경 외 5 명, *아동상담의 이론과 실제*, 165-168.

반복되고 과도하게 학습된 것이기에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Ellis 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는 ABCDE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ntecedents Event):선행사건으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말한다.
B(Beliefs):신념 또는 믿음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C(Consequence):결과단계에서는 선행사건이 내담자의 생각을 통해 어떤 결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및 행동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D(Debate or Dispute):논박단계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해 배운 적응적 사고와 합리적인 이론들을 통해 논박을 하여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바로 인지적 재구성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E(Effect):효과단계에서는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논박단계 이전에서 경험했던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에 변화가 나타나다.

Beck 의 인지치료:인지치료는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각능력과 의식기능을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자동적사고(Automatic Thoughts): 의식적인 노력이나 선택없이도 반사적으로 일어나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신념이나 가정들을 반영한다.

인지왜곡(Cognitive Distortions): 정보처리가 부정확하거나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릇된 가정과 생각으로 이끈다. 왜곡되고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이고 과대한 감정들을 발생시킨다. 무언가로 울적해지거나 기분이 나쁘다면 방금 전에 떠올랐던 부정적인 사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142]

4. 미술심리치료의 환경과 기법

1) 미술심리치료의 환경

심리적 환경:내담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돈되고 안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의식적 활동을 자극받고 창의성이 촉발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한다. 이러한 환경적 제공과 유지 자체가 치료적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료자가 주는 신뢰감, 비밀보장의 확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첫째,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미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셋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내담자 스스로

[142] 임세라, 오가영, *미술심리 치료학*, 31-34.

자신의 작업을 통찰하고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 넷째,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143]

2) 미술심리치료의 시기에 따른 기법

(1)초기과정

• 별칭표현:자신이 갖고 싶은 이름이나 듣고 싶은 별칭을 정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 별칭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 테두리법:내담자에게 도화지를 제시하면서 용지에 테두리를 그어서 건네주는 방법이다. 조형 활동을 자극하고, 공포를 줄 수 있어 자아가 허약한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도화지에 원을 그려 주고 원안에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하게 하여 과잉행동, 주의산만 등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심리적 지지도 해 줄 수 있다.

• 출발그림:그림 그리는데 저항이 있거나 공포, 수줍음 등을 줄여서 그림 그리기를 자극하고, 촉진하는데 사용한다. 종이에 치료사가 직접 잡지레서 얼굴사진을 오려 붙여 주거나 그려주거나, 눈을 오려 붙여 주어 그림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 난화상호 이야기 만들기 기법:난화법과 이야기법을 종합하여 응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표현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난화와 꼴라주를 합친 기법도 사용되고 있으며 경증장애에게 좋다.

• 점토활동:긴장 이완에 도움이 되고, 음악을 들으며 점토를 자유롭게 뭉치고 두드리며 만들기, 눈감고 촉감의 느낌을 살려 만들기, 릴레이식으로 점토 돌려 가며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된다.

• 그림완성법:소정의 용지에 기호가 그려져 있는 8개으이 정방형을 제시하고 그 기호를 사용해서 완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린 순서를 적고, 무엇을 그렸는가를 해석하게 한다.

• 콜라주기법: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술치료 기법이다. 표현이 쉽고, 그리기보다 정확한 감정 전달이 우수하나 선택할 수 있는 사진 매체가 많아야 한다.

• 핑거페인팅:그림치료의 초기나 말기에 사용한다. 정서의 안정과 거부, 저항의 감소, 이완 등의 효과를 가진다.

(2)중기과정

• 자화상: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릴 수도 있고, 자신의 특정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143] Ibid., 43-44.

재빨리 그릴 수도 있다.

• 거울:자신의 얼글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다양한 표정을 지어 보고 그것을 그려보는 것이다.

• 상징: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그려보거나 만들고 그것에 대해 대화해 보는 방법이다.

• 은유화법:자신을 나무, 동물, 냄새, 꽃 등 다른 것으로 표현해 보고, 의인화시켜 이야기해 보는 방법이다. '내가 만일 변신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변해 있을까?'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나: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통찰하여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인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과거여행: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와 슬펐던 때를 회상하고 그 감정이나 기억을 그려보는 프로그램이다.

• 나의 과거, 현재, 미래: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자기 인식 및 개념을 형성한다. 꼴라쥬로 표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광고:나 자신을 광고하는 광고지를 만드는 것이다.

• 인물 콜라주: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인물사진을 붙여 놓고 그 인물이 하는 말을 상상하여 이야기해 보는 방법이다.

• 내가 되고 싶은 얼굴과 버리고 싶은 얼굴:가면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가능한 방법인데, 자기욕구를 인식하고 내면 안에 수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통합하는 기회로 도와줄 수 있다.

• 신체 본뜨기:큰 도화지에 몸의 외관선을 따라 그리고 그 몸을 꾸며 보는 것인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덧붙인다거나 필요한 것을 덧붙이는 식으로 응용될 수 있다.

(3)말기과정

•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 남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현실상세서의 나를 인식하고 외부세계와의 연결점을 찾아준다.

• 나의 미래표현하기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 색물총 놀이는 색의 혼합을 통해 참여자의 응집력과 상호작용을 자극시키고 발산에도 도움이 된다. 초기나 중기에 사용하여도 좋다.

• 돌려 그리기는 내가 그린 그림 위에 다른 사람의 그림이 덧붙여 그려지게 하는 게임이다. 초기에도 효과적이며 상호 이해와 사회성에 좋다.

• 말과 그림은 각자 한 장의 그림을 그린 후, 차례대로 한 사람씩 자기의 그림을 보지 않고 언어만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다른 집단원이 그 설명을 듣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다 그린 후 얼마나 비슷하게 그렸는지 알아본다.

• 선물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려 주거나 잡지에서 오려 붙여 주는 것인데, 집단 안에서의 나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도 좋다. 종결기에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 전지그림은 참여자들이 다 한꺼번에 전지에 그리는 것인데, 집단의 역동성을 알아보는 데 좋고 사회성에도 도움을 준다.

• 나에게 상장주기는 프로그램을 종결하면서 자신에게 좋았던 점이나 잘해 준 것에 대해 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성취감이나 자아존중감, 자기 정리에 도움이 된다.

5. 미술심리치료자의 역할과 진행

1) 미술심리치료자의 역할

치료자의 역할은 지도자, 보조자, 집단성원 등 다양하고 그 역할의 성격은 내담아동의 성향, 치료목표, 치료기간 등에 의해 결정된다. 허용적인 태도로 작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음미하고 그 내용을 수용하면서 내담아동의 마음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미술치료에서 치료자는 내담아동이 미술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할때 기술적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아동이 치료자와 친밀한 관계가형성되지 않아서 기술적 도움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는 끝까지 지신의힘으로 해보고 싶은 의지가 강해 치료자의 도움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치료자는 내담아동이 거부할때 기다려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내담아동이 어린 경우에는 치료자늬 강화가 필요하다. 이 때 치료자는 작품결과에 비중을 두는 칭찬의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잘 만들었구나”, “제일 잘 만들었다”하는 칭찬은 내담아동으로 하여금 작품결과에 관심을 두게 하여 다음에 새로운 표현방법을 시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심리치료는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불안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표현시도를 하려면 미술활동의 과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과정에 대한 강화는 대개 내담자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치료자가 언어적으로 반영해 주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나무에 잎사귀를 노란색으로 칠하면 "나무 잎사귀가 노란색이구나", 나무를 크게 그리면 "나누가 아주 크구나"' 하는 반영이면 내담아동은 자신이 어떤 표현을 해도 치료자가 관심을 가지고 받아 주리라는 확신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표현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치료자의 미술활동 참여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내담아동을 계속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미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료자가 미술활동에 참여할 경우 내담자가 아동일 때에는 치료자의 우수한 제작기술이 아동의 사기를 꺾고 모방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의 표현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144]

2) 미술심리치료의 진행

(1)초기단계

초기단계에 들어가기 전 미술심리치료사는 먼저 내담자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초기 면접, 심리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내담자의 목표가 세워지고, 내담자의 목표가 세워지고,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 치료에 대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술심리치료사와 내담자 간의 라포(rapport) 형성으로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며, 내담자에 따라 기간도 달라진다. 이 기간의 주요 과업은 내담자에 대한 관찰평가와 함께 내담자가 그 시간과 미술을 편안하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치료에 대한 일관성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미술심리치료 초기단계의 주요 과업과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으로 미술심리치료 시간과 치료자에 대한 안내, 내담자간의 소개 프로그램(예:애칭표현, 이름 그림, 첫인상 그리기, 손 본뜨기, 소지품 소개하기 등)등이 해당된다. 주제와 재료를 제시하는 구조적인 방법의 대표적 예는 집, 나무, 사람검사와 같은 투사검사이고 비구조적 방법은 비지적인 재료선택과 방법에 따른 내담자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여러 가지 투사검사 이외에도 자유화법을 통해 내담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고, 미술재료에 대한 반응이나 기술수준, 자기욕구와 감정 표현능을 살펴봄으로써 내담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예:인물화검사, 집, 나무, 사람검사, 동적 가족화, 풍경구성법, 빗속의 인물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사람, 난화기법, 동굴화, 창문화, 계란화, 문그림,

---

[144] 장미경 외 5명, *아동상담의 이론과 실제*, 73-78.

어항그림 등). 내담자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흥미로운 미술심리치료 게임들도 도움이 된다.(예:난화게임, 대화그림, 돌려 그리기, 이어 그리기 등). 미술심리치료를 시작하면서 내담자들은 긴장과 불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발용지기법, 테두리기법, 호흡 그림, 점토기법, 핑거페인팅, 음악듣고 그리기, 여러 가지 미술게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미술재료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경우는 미술재료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즐거움과 흥미를 일깨워 내담자들이 치료에 더욱 집중하고 지속해갈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예:낙서하기, 재료 경험하기(물감, 점토, 등, 동그라미 그리기, 비밀그림, 음식만들기, 생일 케이크, 과자구성, 데칼코마니 등)]

(2)중기단계

중기단계에서 내담자는 구체적인 미술활동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 앞에 펼쳐진 것에 몰입하게 된다. 이시기의 미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 스스로의 역동에 의해 과정이 흘러가도록 도와야 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기단계의 주요 과업과 해단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감정표현과 몰입니다. 발산 및 카타르시스 기법으로도 연결되어 감정표출이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미술재료와 기법이 점차 확장되면서 기존의 시각과 관점을 점차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예: 감정그림, 감정 색이나 선 표현, 점토활동, 반응하는 재료를 통한 감정 경험, 신문지활동, 펀치나 스탬프, 분문기나 총, 못생긴 사람표현, 없애고 싶은 것, 낙서하기 등)둘째, 갈등표출과 재경험이다. 초기단계에서 신뢰감이 바탕이 된 다음 중기단계에서는 내담자가 갈등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게 되며, 때로는 이 단계에서 퇴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술심리치료사를 향하여 갈등을 투사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치료적 개입이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내담자는 미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갈등을 표출하며 안전하고 신뢰로운 관계에서 갈등을 재경험, 재구성하게 된다.(예: 과거여행, 도망가고 싶은 곳, 연상작업;형태와 색을 통한 자유연상 외에도 화산이나 폭풍 등의 주제제시까지, 내가 싫어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버리고 싶은 내모습 등).

(3)후기 단계

중기단계에서 자아의 힘을 느끼고 경험했던 내담자는 점차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된다. 이때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많이 등장한다.(정여주 2003). 내담자는 이전보다 주변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발달하며,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게 된다. 이때 미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가 자신과 직면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현실세계에 적응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미술심리치료 후기단계의 주요 과업과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인식 프로그램이다. 자신에 대한 막연함이 미술을 통해 시각화된 형상으로 구체화되면서 자신에 대한 통찰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예:신체 본뜨기, 나의 상자, 가면작업, 나의 상징, 동굴그림, 내 안에 자라는 힘, 나의 책 만들기, 나를 나타내는 신문, 광고하기, 나에게 필요한 선물 등). 둘째, 수정프로그램이다. 처음의 주요 호소 및 내담자의 문제들에 대해 내담자의 통찰 및 해결과정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수정이 진행된다. (예:문그림, 절벽그림, 씨앗그림, 만화 이어 그리기 등) 셋째, 관계 속의 나이다. 세상 속의 나의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는 이전보다 주변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발달하며,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게 된다. (예:짝지어 그리기, 전지그림, 끝말잇기그림, 집단 스퀴글, 색 물총 놀이, 집단 스토리텔링, 상자 쌓기, 교환게임, 셀로판 구성, 만화 이어 그리기, 책 만들기, 롤러그림 등). 넷째, 현실과 연결하기이다. 내담자가 미술심리치료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현실세계에 반영하고 일반화되도록 돕는다.(예: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 남이 나에게 바라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실제 사진 콜라주, 내가 할 수 있는 일 등).[145]
미술치료에서는 그림 진단을 위해서 형식적인 그림 분석을 위한 구조적 요소가 있다.
그림 진단을 위한 형식적 그림 분석 구조적 요소

-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갔는가?
- 그림의 크기가 적절한가?
- 그림을 종이의 어느 위치에 그렸는가?
- 연필을 얼마나 힘주어 눌러 그렸는가, 즉 필압이 얼마나 강한가?
- 선의 질이 어떠한가?
- 그림의 세부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 그림을 그리다가 지운 적이 있는가, 무엇을 지웠는가?
- 그림의 대칭적인 측면을 강조했는가?

---

[145] 임세라, 오가영, *미술심리 치료학*, 49-53.

• 눈이나 코 혹은 창문과 같은 그림의 일부분을 왜곡하거나 빠뜨린 것이 있는가?
• 척추뼈가 보이게 사람을 그리는 등 투명성이 나타났는가?
• 그림의 대상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는가?
• 종이의 방향을 돌려가며 그렸는가?
• 그리라고 지시한 것 이외의 것을 더 부가해서 그렸는가, 무엇을 더 그렸는가?
등이다.[146]

미술심리치료는 언어보다 그림이나 매체를 통하여 내담자가 심리적 표현을 하기에 용이하며, 치료 외에 사람들의 여가활동이나 자기표현으로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미술은 심리치료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센터나 교회에서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도 몇조금이나마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상대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상담현장에서의 윤리들을 잘 지킨다면 더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A. 상담심리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B.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상담심리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C.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147]

Ⅳ. 노인 미술치료

1. 노년의 이해

노년의 삶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의미 있는

[146] Ibid., 86.

[147] 최해림 외 4 명, *전문적 상담현장의 윤리* (서울: 학지사, 2010), 73.

노년생활을 위해서는 노년기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와 준비가 중요하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국제모년학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 하였다.

-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결손이 있는 사람
-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신체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생활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 신체조직 및 기능의 소모로 적응감되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148]

현대 사회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노년층의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노인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Newgarten(1974)은 사회적 건강을 기준으로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노인을 구분하였다.

(표 2-3) Newgarten 의 연령별 노인의 구분[149]

Newgarten 의 연령별 노인의 구분 -생물학적 연령과 사회적 건강에 기초하여-		
①초령노인(the young-old)	55~64 세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능력도 절정에 달한 사람들.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정치, 사회, 경제적 요구가 활발하다.
②중고령노인(the old-old)	65~74 세	퇴직자들이 대부분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사회적 지지와 건강에 대한 서비스가 절실하다.
③고령노인(the oldest-old)	75 세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정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1) 노인미술치료의 사회적요구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많이 높아졌으며, 각 나라별로 평균수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2010 년 까지의 통계이므로 현재 2018 년 까지

[148] 정현희, 이은지, *노인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2007), 24.

[149] Ibid., 25.

평균 수명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표 2-4) 국가별 평균수명[150]

국가별 평균수명(단위: 세)			
순위	**나라**	**1985 ~ 1990 년**	**2005 ~ 2010 년**
1	일본	78.3	82.8(4.5)
2	홍콩	76.2	82.2(6)
3	아이슬란드	77.8	81.4(3.6)
27	한국	69.8	78.2(8.4)
28	포르투갈	73.8	77.9(4.1)
79	북한	66.2	64.5(-1.7)
100	헤소토	56.4	34.3(-22.1)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어떤 사람은 노년의 생활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반면, 누군가는 노년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저항을 하게 된다. 개인에 따른 노녀기의 적응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노년기 적응 유형

Reichard, Livson, Peterson(1962)은 55~84 세 사이의 은퇴한 성인을 대상으로 성격과 적응 유형을 성숙형, 은둔형(흔들의자형), 무장방어형, 분노형, 자학형(자아증오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섯 가지 유형 중 무장방어형, 성숙형, 은둔형은 비교적 잘 적응한 경우이고, 분노, 자학형은 부적응 유형에 해당된다.[151]

(표 2-5) 노년기 성격유형: 55~84 세 대상[152]

노년기 성격유형: 55~84 세 대상 Reichard, Livson, Peterson(1962)	
유형	**특성**
성숙형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인정한다. 자신의 노화와 현실,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매우 활동적이다.
은둔형 (흔들의자형)	평생 지녔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복잡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해방된다. 조용히 지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매우 수동적, 의존적이며 직업만족도가 낫다. 야망이 없다.

[150] Ibid., 52.

[151] Ibid., 113.

[152] Ibid.

무장방어형	노화의 불안을 막아 보기 위해 사회적 활동 및 기능을 계속하여 유지 하고자 한다. 노년기의 수동성과 무기력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활동하며, 신체적 능력의 저하를 막으려고 애쓴다.
분노형	젊은 시절의 인생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늙어 버린 것에 대해 비통해한다. 자신의 좌절과 실패를 불행한 시대, 경제 사정, 부모, 형제의 탓으로 돌리고 노화되는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를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을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자학형 (자아증오형)	열등감이 많고 인생의 실패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자신을 꾸짖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라 비관 하며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미술치료에서의 미술활동은 노인의 느낌이나 사고, 문제점을 전달해 줄 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를 이겨내고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또한 노년기의 고립과 소외감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접근도 필요하다.[153]

노인미술치료의 목표와 상담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노인미술치료의 목표[154]

노인미술치료의 목표	
내면의 느낌, 욕구, 사고의 탐색 촉진 정신적 문제 인식과 정서 확인 자신감, 성취감, 자아통제 부여 대처기술터득	부적응행동의 이해 긴장완화, 정서이해, 갈등해결 자기수용, 자아 성숙 생활의 의미

3) 노년의 미술치료 접근

(표 2-7) 노인이 상담을 받는 이유[155]

노인이 상담을 받는 이유
·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 행복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 위기를 겪는 동안에 도움, 위로, 지지를 받기 위해서 ·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153 Ibid., 69.

154 Ibid.

155 Ibid., 131.

(표 2-8) 노인미술치료의 고려점[156]

노인미술치료의 고려점
•노인의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한다.
•현재의 적응에 중점을 둔다.
•노인은 변화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약하다.
•자아존중감 향상을 유도한다.
•문제정의와 목표설정을 노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집중을 요하는 미술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노인미술표현 실습

1) 미술활동에 의한 심리적 적응과정

A. 자아개방

자기개방이란 자기자신에 관한 사실, 느낌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나 행동에 대한 자기자신의 반응과 느낌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과정이다. (Jourard, 1971)[157]

자기자신을 진솔하게 개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때 회피하기 보다는 자신을 개방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복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자기개방의 중요성

• Halverson 과 Shore(1969):꾸밈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털어놓으면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 Gelman 과 McGinley(1978):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Hood 와 Back(1971):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털어놓음으로써 심리적 정화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정신건강의 유지 및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

• Jourard(1971):건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성격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 Cozby(1973):자기개방을 하지 않게 되면 참다운 자신을 실감하지 못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이해받을 수 없다. 상대방도 나에게 자기개방을 하지 않게

[156] Ibid., 132.

[157] Ibid., 168.

되므로 진정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158]

(표 2-9) 자기개방의 기능[159]

자기개방의 기능	
자기자신을 바르게 이해	심리적 정화작용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르게 이해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증진의 요인
정신건강	자아성장

B. 자아탐색

자아탐색에서는 노인의 집착적인 감정 및 사고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되돌아 보고 평가해 보는 기회는 인생이라는 큰맥락에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는제 도움이 될 수 있다.[160]

미술활동은 자아를 탐색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심리상태,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리고 표현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미술활동을 통한 노인의 내면 갈등에서 탐색하여야할 것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느끼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 구체적인 원인들을 탐색한다.
- 가족관계, 대인관계, 현재의 상황에 갈등이 있는지 탐색하여야 한다.
- 갈등상황에서 노인의 해결 능력을 탐색하여야 한다.
- 환경의 압력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양식을 탐색하여야 한다.
- 현재 상황,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탐색하여야 한다.[161]

자아탐색에 관련된 요소로 정서의 표현이 있다. 정서에서 중요한 것은 지니고 있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다루는가다.[162]

감정억제와 표현 효과

- 현재의 감정을 다루기 어려운 이유

감정표현이 상대방에게 배척당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느끼기 때문이다.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자신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기

[158] Ibid., 171.

[159] Ibid.

[160] Ibid., 172.

[161] Ibid., 174.

[162] Ibid., 178.

때문이다.

• 감정 억제의 결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편협한 판단과 행동을 초래한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지각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감정을 억제하면 벽이 생기고, 관계를 회피하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 감정 표현의 효과

자신의 느낌을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대화로 이끌어 준다.

부정적 정서 다루기의 과정

• 노인의 부정적 정서가 타당성이 있다.

• 부정적 정서에 공감한다.

•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

• 긍정적 감정을 일깨운다.[163]

검토해야 할 사항

• 노인이 정서를 표현할 때 어느 부분에서 저항을 하였는가?

• 노인이 정서를 표현하면서 부적절성과 혼란을 느꼈는가?

• 노인의 정서에서 치료사가 부정하고 있는 정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164]

공감적 이해의 유의점(Alterhoff, 1994)

• 노인의 감정에 집중한다.

• 공감적 이해를 전달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시각적이며, 간단하고, 정확해야 한다.

• 공감적 이해를 전달할 때 그것은 단지 가정 혹은 노인의 감정에 가까운 것을 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치료사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감정을 전달하여야 한다.[165]

우리는 그림을 그릴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즐겨그리는 대상들이 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의식수준과 연결된 각 수준의 상징해석을 다음과 같이

---

[163] Ibid., 178-179.

[164] Ibid., 181.

[165] Ibid.

정의하였다.

(표 2-10)매슬로우의 욕구의 혹은 의식수준과 연결된 각 수준에 따른 상징의 해석[166]

상징	**욕구혹은 의식 수준**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5
공기	생존 호흡	에어로빅 조깅 숨쉬기 운동 신체의 건강	비행기의 힘 "정복해야 할 영토"	보살핌 헌신	빛 열림(개방성) 외적, 상향적인 영적 탐구
새	생존 탈출 안전	음식 특식	독수리의 힘 "맹조류"	평화의 비둘기 부드러움	위로 날아오름 자유로움 빛
고양이	생존 "구사일생"	감각적 모피 근육의 물결 껴안고 싶음	강력한 사냥꾼 이빨 발톱	조용함 평안함	신비 자기 절제형
색 (빨강)	생존 "생의 피"	흥분 "산타클로스" "투우 경기에 쓰이는 붉은 깃발"	화력 파괴적이며 창조적	따뜻한 색 보살핌 치유 회복	무지개의 일부 치유에너지의 통합된 상징
대지	생존 자리잡음	"세속적" 예)물질적 쾌락적	힘 "나의 영토, 나의 땅"	모친 대지 보살펴 주는 사람	에너지를 생성하는 양극의 일부 "하늘-땅"
불	추위에서의 생존	감각적 온기	파괴와 창조를 위한 강력함	보살핌 온기	창조적 사용 증기 증류 에너지 회복
꽃	생존 씨앗	감각적 여성 성적 상징	여성적 원리 수동성・포용성을 통한 극복	미 사랑	미와 경외의 자연적 창조의 과정
집	안전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	"우리가 사는 집" 즉) 신체	성공과 힘의 상징	돌봄, 보살핌 가족, 가정을 위한 장소	모든 것과 연합된 미와 보살핌을 반영하는 창조적 노력
남근	종족의 생존	감각적-쾌락주의	우위, "남성권력의 상징"	창조족 과정의 활동적 부분	역적 에너지와 활동적으로 연합된 창조족에너지 하늘과 땅의 양극성의 일부
나무	생존 뿌리	신체 생명력	권력, 크기 "강력한 통나무"	보살핌 품어 줌 "만짐"	새 꽃과 열매를 창조 아름다움과 조화를 가꿈

166 Robert C. Burns, *동적 집-나무-사람그림검사*, 김상식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1), 160-161.

물	생존 태아 단계	"넘치는 수액" 쾌락주의적	"바다의 힘" 물이 바다를 친다.	보살핌 새롭게 함 유용함	유연함 겸손함 평안함 조용함

C. 문제해결

노인의 자신의 상황, 감정, 사고, 행동, 공상과 사실, 주관과 객관, 환상과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되며, 그 알게 된 행동을 실행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치료사는 노인에게 자신의 기대와 현실적인 상황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한다.[167]

노인이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부담감을 줄여 주고, 흥미를 유발시키며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매체를 선책하는 일은 치료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정서 자극, 인지적 자극, 소근육과 감각의 발달,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와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의 활용이 요구된다.[168]

2) 미술치료 개입영역과 방법

(표 2-11) 미술치료 개입[169]

미술치료 개입		
노인행동의 특성		미술치료의 특성
심리적 특성	우울	에너지 부여, 채미있고 친숙한 활동, 기분전환
	무력감	미술매체와 활동 선택, 작품완성을 통한 자아존중감, 성취감, 새로운 경험
	상실감	구체적 작품에 의한 획득감, 현실과 소망 구별
	고독,소외감	협동향상, 협동작품을 통한 의사소통, 대인관계기술향상
	분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아표현, 치환, 승화
	죽음불안	미술의 시・공간제약 배제, 자아수용, 미래 희망
	무의미	창의적표현, 잠재능력 개발
기능적 특성	손근육기능 감퇴	미술치료를 통한 유지 및 재활
	시지각 기능 감퇴	미술활동의 통합성, 모방가능, 형태, 색채 관찰
	언어결핍	심상표현, 비언어적 의사소통
임상적 특성	뇌졸증	활동 자극, 성취감, 자아존중감
	치매	인지 개념, 기억, 회상, 작품구성

[167] Ibid., 182-183.

[168] Ibid., 185.

[169] Ibid., 189.

똑같은 재료와 주제를 그리더라도 사람마다 즐겨쓰는 색은 제 각기 다르다. 어떤사람은 같은 색을 즐겨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하과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색에대한 연상과 상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2) 색의 연상과 상징[170]

	색명	색의 연상		색의 상징
		긍정적	부정적	
색체	빨간색	행복, 강인함, 역동성, 낙관주의, 생동력	폭발성, 죽음, 전쟁, 악마, 피, 고통, 공격성	사랑, 정열, 불, 헌신, 피, 범죄, 분노, 용기, 정지신호
	파란색	고요함, 안정성, 평안, 온건, 신뢰감	놀라움, 우울, 차가움, 침체, 황폐화	하느님, 영원성, 진실성, 용기, 영광, 공평, 평온, 내향성, 믿음, 잔혹, 차가움, 달, 절망, 수동성, 깊은 지혜
	노란색	희망, 기대, 기쁨, 행복, 맑음, 개나리, 병아리, 밝음, 봄, 귀여움, 활발	질투, 외로움, 연약함	태양, 영웅, 지성, 사랑, 관대, 불변, 부와 권력, 풍요, 위엄, 가을, 우울, 적의, 변덕, 무기력, 소망, 혁신, 배신
	녹색	위로, 치료, 평화, 시원함, 청순, 안전, 희망	이기심, 질투심, 게으름, 우울, 공포	새로운 생명, 즐거움, 신세대, 봄, 기쁨, 희망, 불멸성, 평화, 자유정신, 행운
	주황색	원기, 활력, 희열, 유쾌, 명랑, 가을, 태양, 오렌지, 노을, 사랑	천박, 사치, 경박함, 화려함, 요란함	힘, 인내, 따뜻함, 환기, 생명력, 약진, 거부당함, 버림받음, 혼돈
	분홍색	우아한, 기품, 사랑스런, 부드러운, 청춘, 소녀, 귀여운, 달콤한 맛, 벚꽃	나약한, 유아적인, 유치한	열반의 꽃, 성스러움의 꽃, 천상의 색, 여성, 부활, 사랑, 행복, 달콤한
	보라색	포도, 제비꽃, 고귀, 신비, 부드러움, 신성함	불만, 질투, 광기, 공포	고귀함, 신성함, 신비, 균형에 대한 욕구, 치유력, 분노
	갈색	풍요로운 들판, 대지, 가을, 대변, 흙, 안정감	건조함, 쇠퇴, 외로움, 쓸쓸함, 불경기	항문기, 불굴의 정신, 안정감, 풍요로움
	흰색	구름, 토끼, 흰옷, 간호원, 눈, 국화, 신부, 웨딩드레스, 의사, 병원, 간호사	뼈, 항복, 실패, 재, 냉기, 차가움, 단순함, 허무함	빛, 성스러움, 순수, 청결, 평화, 허무, 정숙, 결백, 공간, 치유, 신선함, 소박함, 숭고함, 희망
	검은색	밤, 눈동자, 석탄, 피아노, 석유,	탄 것, 죽음, 그림자,	절망, 두려움, 고통, 슬픔, 불안, 우울, 공포, 악, 범죄, 부정, 죄, 침묵, 중압감, 후회,

[170] 정현희, *실제 적용 중심의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2008), 208-209.

		흑장미, 머리카락	비구름, 연기, 상복	의지, 냉담, 허무, 정숙, 고생, 강건

노인은 집단미술활동을 통하여 노년기의 고독과 소외 등에 대한 심리적 위안처를 찾을 수 있다.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 문제를 찾을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함께 작업하면서 나의 의견 조절, 타인의 의견 수용을 배울 수 있다. 노인은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구체적 유형물을 통해 가까운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전 생애를 되돌아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자신의 숨은 욕구, 깨닫지 못한 욕구, 이루지 못한 욕구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욕구와 가능성에 대한 실제적.구체적 탐색은 노인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술작품은 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관찰할 기회가 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고,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기회도 갖게 해 준다. 그리하여 자신을 통찰하도록 해 준다.[171]

Ⅴ. 과제실천

인간중심의 치료를 주장한 로저스(Rogers)의 이론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실현을 향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임상경험을 통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성장을 해나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Rogers, 1983). 이러한 관점에서 로저스는 상담에서 비지시적 혹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론을 개발하였다. 로저스는 능동적, 자기 성장적 인간관을 토대로 상담의 기술보다도 상담자 및 치료자의 인간관과 인간에 대한 토대를 더 중시하였다. 그는 상담자 및 치료자에게 특별한 이론과 기법보다는 진솔성 혹은 일치성, 공감 혹은 이해 및 비소유적 배려 혹은 확인을 요구한다.(Corsini, 1998).[172]

1. 협동의식과 공동체의식 실천과정

---

[171] 정현희, 이은지, *노인미술치료*, 17.
[172]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7), 42-43.

첫째, 예술교육을 통하여 정서적 치유와 함께 자존감을 회복한다.
둘째, 예술교육과 SNS, 온라인 겔러리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킨다.
셋째,작품전시회를 통하여 협동의식을 함양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다.
이러한 의식변화를 위하여 10 개월이상 매주 1 회 예술교육과 함께 이루어졌다.

1) 심리학적 접근(1 월-2 월)

A. 도서:고독의 심리학, 감정의 치유, 기쁨의 영성.

B. 동영상 강의 :김창옥교수 세바시

C. 동영상 강의:손안젤라 교수 쾌락일까? 기쁨일까? 나침반.

2) 시청각 자료를 통한 체험(3 월-4 월)

A. 구족화가: 빛을 잃은 화가 "붓 대신 마음으로 그렸죠"
구필화가 김영수 입으로 극복한 희망.

B. 족필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가락, 족필화가 이윤정.

C. 그림:착시그림, 사마리아 여인, 돌아온 탕자, 램브란트.

3)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한 작품전시(5 월-10 월)

A. 사이버갤러리를 통한 작품전시와 소통

B.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

C. 전시회를 통하여 협동의식, 공동체의식 함양.

2. 고독극복을 위한 실천과정

1)목적

예술 교육을 통해서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노년의 삶의 외로움이나 고독에서 벗어나 삶의 긍정적 의식변화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여 자신의 성장기회로 삼는다. 인간중심의 치료를 주장한 로저스(Rogers)의 이론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실현을 향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접근을 시도한다.

2) 대상 그룹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분들 중에서 50 대 후반을 대상으로 고독 극복을 위한 예술 교육을 실시한다.

3) 계획

수업방법은 미술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한다. 예술활동을 통하여 타인과 소통하며, 고독극복, 자존감 회복,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는다. 프로젝트 실행기간은 10 개월 이상으로 하며, 매주 1 회, 1 시간 40 분 수업을 진행한다.

미술수업 재료는 수채물감과 그리기 재료를 사용한다. 수채 물감은 물의 번짐과함께 다양한 기법과 맑은 색의 혼합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 및 심리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채물감은 재료구입이 용이하며 건조가 빠르고 재료비 또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1 월: 심리학적 접근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 시-11 시 40 분.

A. 고독의 심리학: 고독의 진정한 의미와 심리학적 접근.

B. 감정의 치유: 상처입은 감정의 치유와 심리학적 접근.

C. 기쁨의 영성:삶에서 진정한 기쁨에 대한 접근.

D. 수채화 재료의 종류와 특징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2 월: 영상자료 및 실습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 시-11 시 40 분.

A. 김창옥교수 세바시.

B. 손안젤라 교수 쾌락일까? 기쁨일까? 나침반.

C. 수채화의 기초적 이론에 대하여 배운다.

3 월: 동영상 자료 및 실습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 시-11 시 40 분.

A. 빛을 잃은 화가 "붓 대신 마음으로 그렸죠" 구필화가 김영수.

B.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가락, 족필화가 이윤정.

C. 풍경수채화의 기초에 대해서 배운다.

4 월: 시청각 자료 및 실습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 시-11 시 40 분.

A. 착시그림을 통한 새로운 의식의 변화.

B.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통하여 고정관념의 변화.

C. 고독을 극복한 예술가 램브란트.

D. 풍경수채화의 기초 실습.

5월: 온라인 갤러리 전시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1시 40분.

A.자신의 작품을 온라인 갤러리에 전시한다.

B.전시한 작품에 대해서 서로 감상하며 소통한다.

C.중급수채화의 기초 실습.

6월: 온라인 갤러리 작품전시와 타인과의 소통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1시 40분.

A. 온라인 갤러리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한다.

B. 제한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온라인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C. 중급수채화의 기초 실습.

7월: 온라인 갤러리 작품전시와 타인과의 소통 및 의식변화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1시 40분.

A. 중급 수채화의 표현.

B. 자시만의 작품세계를 표현해 본다.

C. 온라인 갤러리에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8월:오프라인 갤러리 작품전시회 준비 및 실습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1시 40분.

A. 오픈라인 갤러리 작품전시회 준비.

B. 고급수채화의 기초 표현.

9월: 오프라인 갤러리 작품전시회 준비 및 실습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1시 40분.

A. 고급수채화의 기초 표현.

B. 작품전시회 준비.

10월: 작품전시회를 통하여 자존감회복과 협동의식, 공동체의식 함양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1시 40분.

A. 작품 갤러리전시.

B. 전시회를 통하여 자신감과 타인의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긍정적 소통.

3. 협동의식과 공동체의식 고독극복의 결과

첫째, 예술교육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변화는 주변의 사물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무심히 지나쳤던 나무, 꽃, 거리풍경 등 미술수업 이후 주위 풍경에 대해 더 많이 관찰하고 아름다움을 느꼈다.

둘째, 자신이 그린 작품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며 본인의 능력개발과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가족들과 주변 친구나 지인들로 부터 작품에 대한 칭찬을 들으며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삶의 태로 변화되었다.

셋째, 전시회를 통해서 공동체의식, 협동의식이 향상되었으며 타인을 돌아보며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Ⅵ. 교회시스템 변화

노년의 고독 극복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예술활동을 통하여 자존감 회복 등 삶의 긍정적태도를 위한 구조적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 의식변화와 실천계획을 실행한 후에 영적재생산, 예배, 교육, 돌봄, 나눔 등의 실천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간다. 현대의 교회는 단순히 예배의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태도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에따라 노인들을 위한 상담, 교육, 복지, 봉사, 취미활동을 위한 교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1. 상담

노년의 삶은 신체적인 변화 뿐만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가족과의 갈등, 질병, 심리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노인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할 수 있을것 이다.

상담	상담 종류
일반상담	노인과 관련된 노인학대, 자살, 건강, 경제적인것 및 정서적 문제

전문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 세무상담 등
연계상담	우울증, 가족 상담, 집단 상담 등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른 상담기관이나 병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2. 교육

노년의 생활을 보다 활기차고 의미있게 보내기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평생교육을 실천한다.

프로그램	내용
컴퓨터	컴퓨터기초반(윈도우즈, 인터넷, 워드), 중급(멀티미디어, 엑셀, 파워포인트), 고급반(포토샵, 사진활용 편집)
어학 및 문예	외국어(영어, 중국어, 스패니쉬 등) 문예 창작
음악	악기(기타, 하모니카, 등) 노래
미술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사군자, 서예, 사진교실
스포츠	에어로빅, 요가

3. 노인복지

• 독거노인 및 홈리스 노인 도우미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홈리스 노인들을 위한 돌봄 사역을 실시한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도거노인분들을 위해 생필품 구입해주기, 청소, 간단한 음식 제공, 병원 및 의료기관 등을 연결해 준다.

4. 취미활동 및 봉사활동 활성화

• 취미 활동

노래 동아리, 미술 동아리, 사진동아리, 문예창작 동아리, 연극 동아리, 영어회화 동아리, 중국어회화 동아리, 댄스 동아리, 컴퓨터 동아리, 등산 동아리, 여행 동아리, 수공예 동아리 등을 형성하여 자기개발과 더불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 봉사 활동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 돌봄 사역, 양로원 위문 공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분들의 돌봄 사역 등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며 자존감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5. 교회시스템 변화의 결과

1) 상담

노년의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상담이란 전문가에 의해 장기간 오랜 시간을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앞으로도 일반상담, 전문상담, 연계상담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2) 교육

현대의 교육의 개념은 유아에서 부터 청소년까지 의무교육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변화 되었다. 센터에서 실시된 컴퓨터 교육과 미술교육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앞으로도 미술교육 외에 음악, 스포츠, 어학 등 노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개설 하여야겠다.

3) 노인복지

누군가를 돕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돌봄사역은 더 많은 인내와 사랑을 필요로한다. 노후에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과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노년층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히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4) 취미활동 및 봉사활동 활성화

취미활동을 기반으로한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 자기개발과 더불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년층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겠다.

Ⅶ. 설문조사 연구분석

1. 설문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설문조사는 고독극복을 위한 참고 자료로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뉴욕에 거주하는 59명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질문 14문항과, 여가활동에 관련된 질문 8문항, 고독에 관련된 질문 26문항, 그리고 자존감에 관한 질문 16문항을 분석해 보기위해 실시되었다. 여가활동, 고독 그리고 자존감에 관련된 질문은 제라크 마크롱의 저서 『고독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질문과

설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50대이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되었으며, 59명 중에 48세의 성인 2명이 포함되었다.

자료분석은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설문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빈도표(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막대 도표로 나타내었다.

2. 설문조사 연구도구

1) 고독과 자존감의 측정도구

여가활동, 고독, 자존감의 측정은 제라크 마크롱의 저서 『고독의 심리학』p.111, 173, 294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의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고독이 크며, 자존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3. 설문조사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2.03세, 성별은 남자가 31명(52.5%), 여자가 28명(47.5%), 건강상태는 보통에서 부터 매우 건강함 까지 모두 47명(79.7%)로 건강한 편이였다.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상이 30명(50.8%), 이민 온 년도는 30년 이상이 27명(45.8%)로 가장 높았다.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이민온 경우가 19명(32.2%), 혼자 이민온 경우도 17명(28.8%), 이민을와서 처음 갖게된 직업은 서비스업종이 17명(28.8%), 전문직도 12명(20.3%)이 였다. 현재 함께 살고있는 가족관계는 부부만 23명(39.0%), 그리고 혼자 살고있는 사람도 18명(30.5%)으로 높았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과의 만나는 횟수는 한달에 1번이상이 20명(33.9%), 기타를 답한 사람도 20명(33.9%)였으며 기타를 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과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생활비 마련형태는 일해서 번다가 32명(54.2%), 월평균 소득은 21명(35.6%)로 가장 많았다. 현재 이민생활의 만족 정도는 보통이 27명(45.8%), 만족이 18명(30.5%), 매우만족이 4명(6.8%)로 설문지에 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은 예술활동이 주 1 회 이상이 20 명(33.9%), 수작업이 주 1 회 이상이 12 명(20.3%), 지적활동이 주 1회이상이 23 명(39.0%), 스포츠활동이 주 1회이상이 18 명(30.5%), 여행은 몇년에 1 번이 32 명(25.4%), 자원봉사활동이 주 1 회 이상이 16 명(27.1%), 사회활동이 주 1 회 이상이 15 명(25.4%) 그리고 소일활동이 주 1 회 이상 42 명(71.2%)로 가장 높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고독에 관련된 질문은 26 문항이며, 고독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별로 그렇지 않다' 2 점, '대체로 그렇다' 3 점, '자주 그렇다' 4 점 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고독이 큼을 의미한다.

기술통계량을 분석해 보면 26 문항 중에 7 번 질문: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 에서 평균이 1.42 로 제일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반면 질문: 14 '사람마다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만의 문제가 있는 법이다' 에서 평균이 2.75 로 제일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문항의 답변을 전제전으로 분석해보면 평균이 2.00 이하로 대답한 질문은 19 문항 이였으며, 2.00 이상 4.00 이하는 7 문항이 였다. 전체적인 답변을 볼때 긍정적인 답변이 19 문항으로 고독에 관해 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2) 자존감 측정도구

자존감의 측정은 제라크 마크롱의 저서 『고독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설문문항은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앎으로 나누었으며, 전체 16 문항으로 되어있다. 자존감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별로 그렇지 않다' 2 점, '대체로 그렇다' 3 점, '자주 그렇다' 4 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존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자존감에 관련된 질문의 기술통계를 16 문항을 분석해 보면 질문: 6 '나는 결국 해내지 못할 것이다' 에서 평균 1.59 로 제일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반면 질문:4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에서 평균 1.97 로 제일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1.59 이상 1.97 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며, 고독과 비교해 볼때 고독은 2.00 이상 4.00 이하의 답변인 문항이 7 문항 인것과 비교하면 자존감이 고독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인 질문의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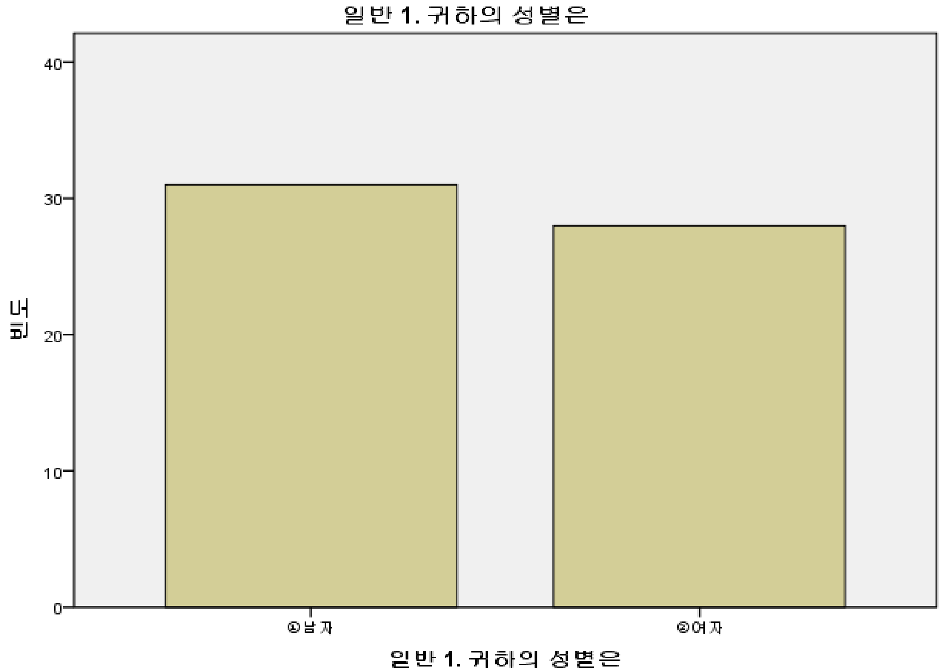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 1. 귀하의 성별은	59	1	2	1.47	.504
일반 2. 귀하의 연세는	59	48	80	62.03	7.981
일반 3.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59	1	5	3.24	1.023
일반 4. 귀하께서는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십니까	59	1	7	4.14	1.332
일반 5.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습니까	59	1	5	3.53	.751
일반 6. 귀하께서 이민 온 년도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59	2	7	5.27	.944
일반 7. 귀하는 누구와 함께 이민을 오셨습니까	59	1	5	2.58	1.303
일반 8. 귀하께서 이민와서 갖게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59	1	7	4.02	2.232
일반 9.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59	1	7	2.36	1.573
일반10.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과 만나는 횟수는	59	1	5	2.95	1.746
일반11. 귀하의 주거 형태는	59	1	3	1.92	.677
일반12. 귀하의 생활비 마련 형태는	59	1	6	2.22	1.630
일반13. 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59	1	6	4.05	1.407
일반14. 현재 이민생활의 만족 정도는 어떻습니까	59	1	6	2.85	1.096
유효수 (목록별)	59				

4) 일반적질문의 빈도표 및 막대그래프

일반 1. 귀하의 성별은

일반 1.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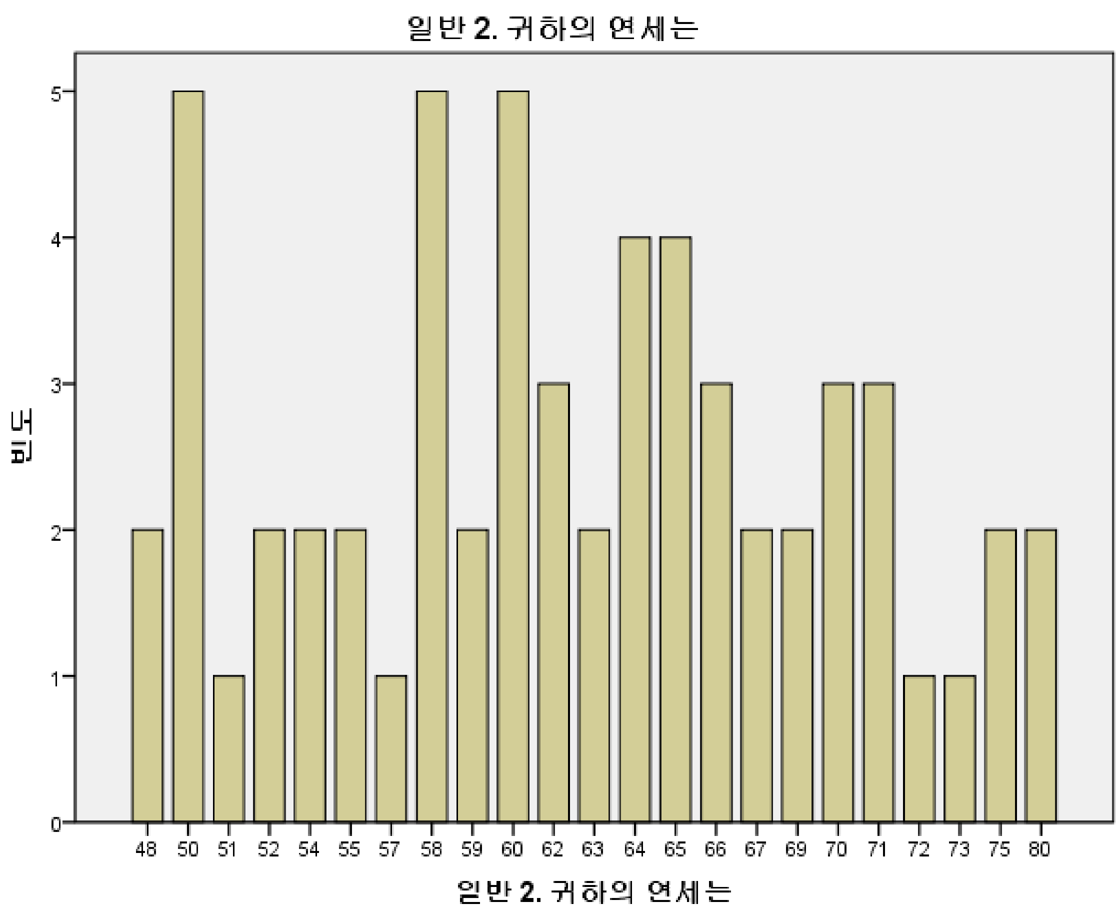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남자	31	52.5	52.5	52.5
	②여자	28	47.5	47.5	100.0
	합계	59	100.0	100.0	



일반 2. 귀하의 연세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48	2	3.4	3.4	3.4
	50	5	8.5	8.5	11.9
	51	1	1.7	1.7	13.6
	52	2	3.4	3.4	16.9
	54	2	3.4	3.4	20.3
	55	2	3.4	3.4	23.7
	57	1	1.7	1.7	25.4
	58	5	8.5	8.5	33.9
	59	2	3.4	3.4	37.3
	60	5	8.5	8.5	45.8
	62	3	5.1	5.1	50.8
	63	2	3.4	3.4	54.2
	64	4	6.8	6.8	61.0
	65	4	6.8	6.8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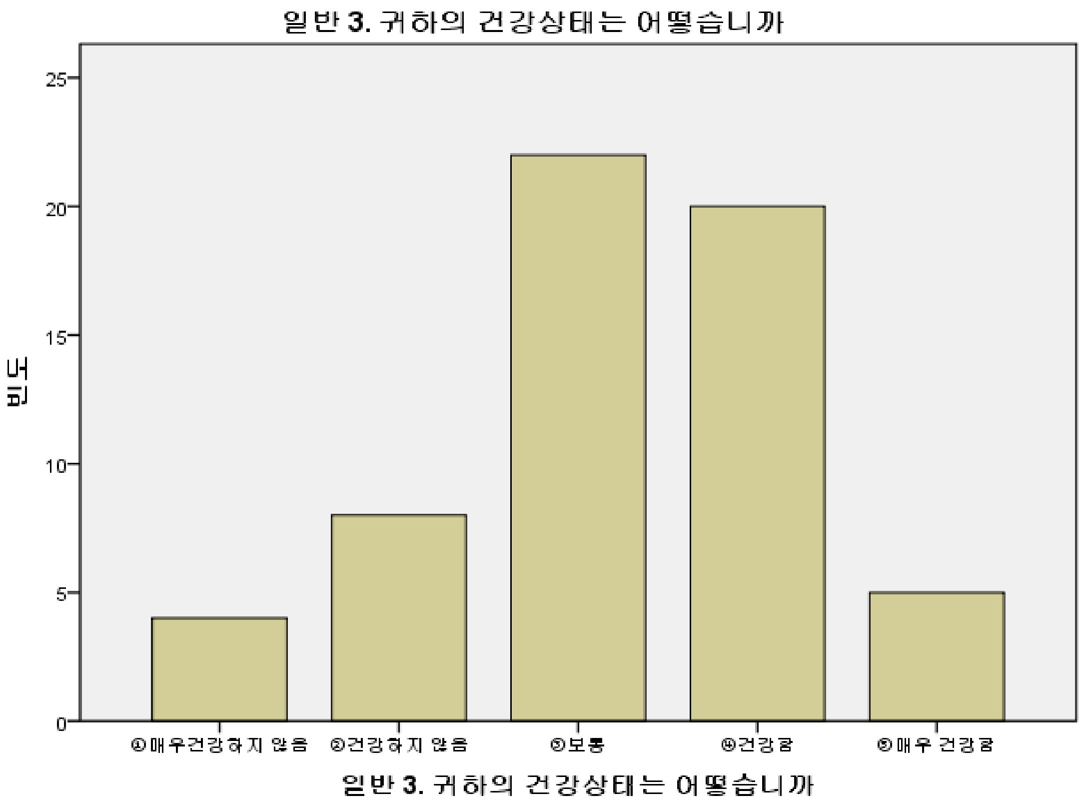
	66	3	5.1	5.1	72.9
	67	2	3.4	3.4	76.3
	69	2	3.4	3.4	79.7
	70	3	5.1	5.1	84.7
	71	3	5.1	5.1	89.8
	72	1	1.7	1.7	91.5
	73	1	1.7	1.7	93.2
	75	2	3.4	3.4	96.6
	80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일반 3.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매우건강하지 않음	4	6.8	6.8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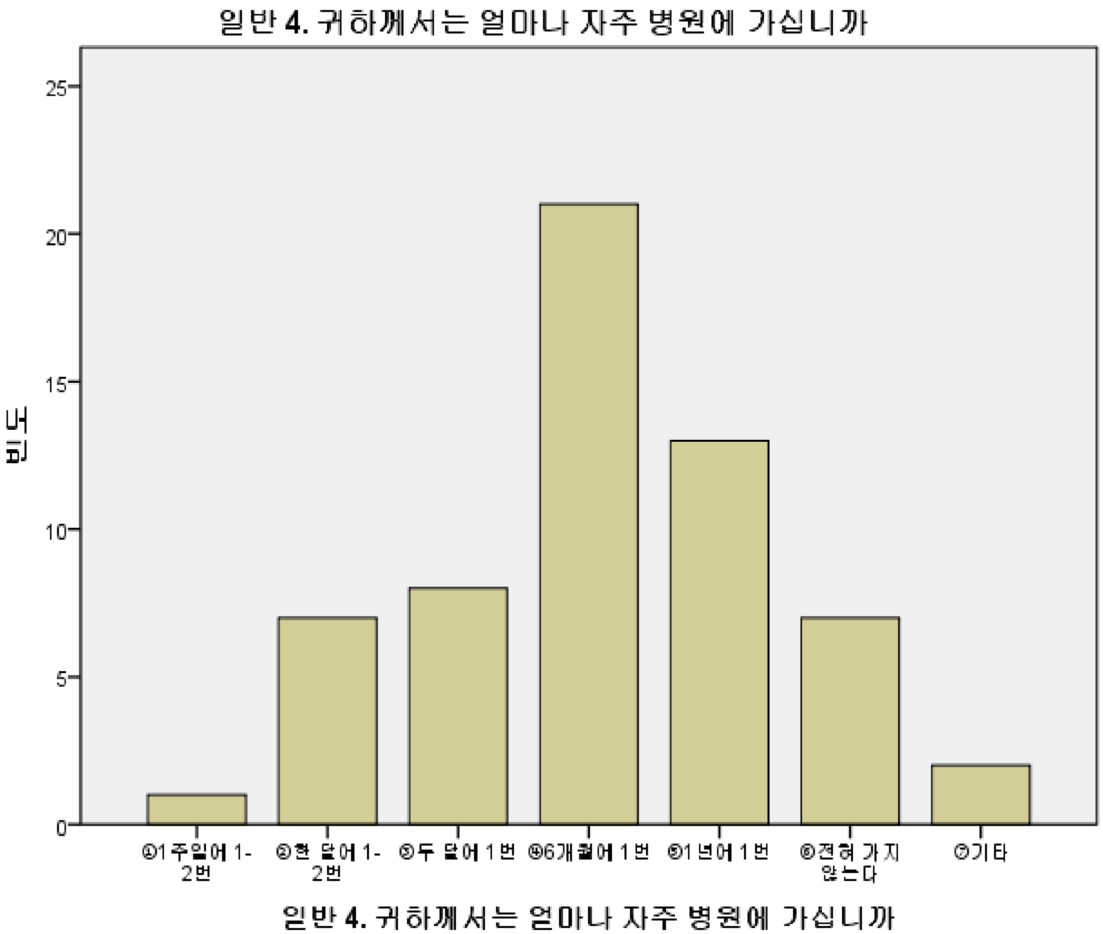
	②건강하지 않음	8	13.6	13.6	20.3
	③보통	22	37.3	37.3	57.6
	④건강함	20	33.9	33.9	91.5
	⑤매우 건강함	5	8.5	8.5	100.0
	합계	59	100.0	100.0	



일반 4. 귀하께서는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1주일에 1-2번	1	1.7	1.7	1.7
	②한 달에 1-2번	7	11.9	11.9	13.6
	③두 달에 1번	8	13.6	13.6	27.1
	④6개월에 1번	21	35.6	35.6	62.7
	⑤1년에 1번	13	22.0	22.0	84.7
	⑥전혀 가지 않는다	7	11.9	11.9	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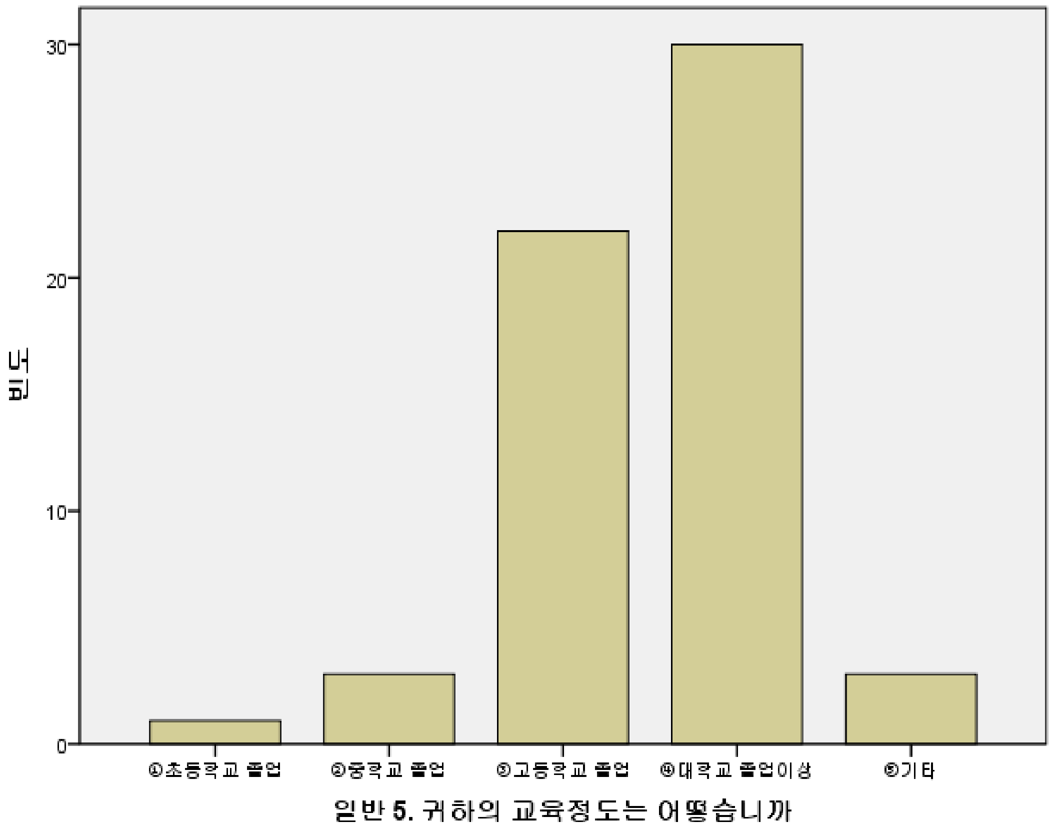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⑦기타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일반 5.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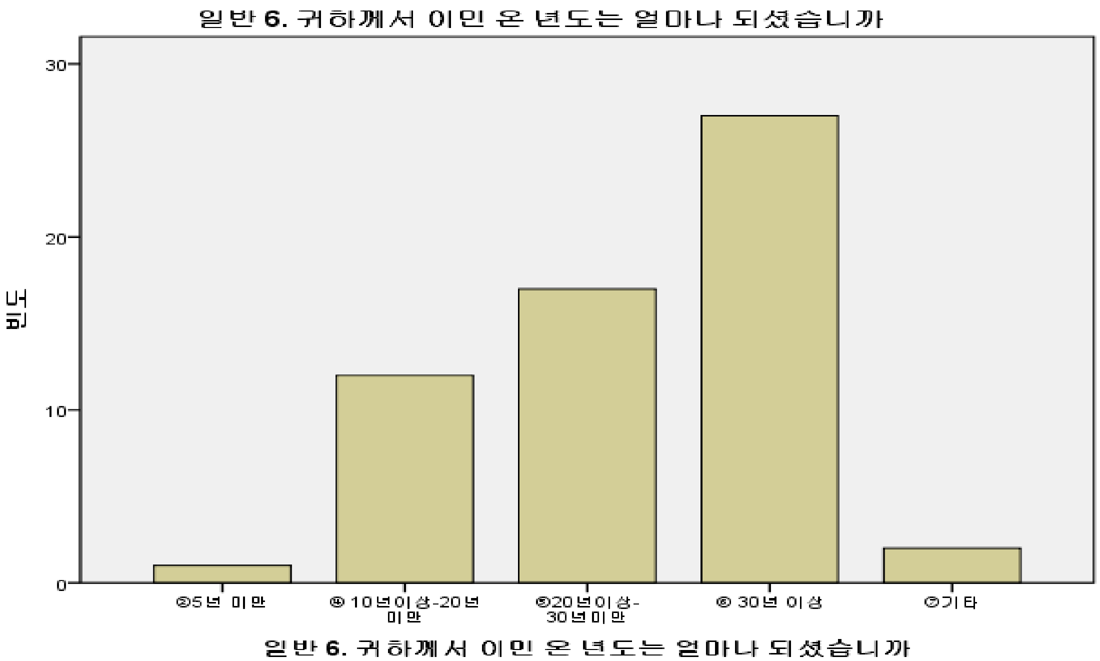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초등학교 졸업	1	1.7	1.7	1.7
	②중학교 졸업	3	5.1	5.1	6.8
	③고등학교 졸업	22	37.3	37.3	44.1
	④대학교 졸업이상	30	50.8	50.8	94.9
	⑤기타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일반 5.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습니까



일반 6. 귀하께서 이민 온 년도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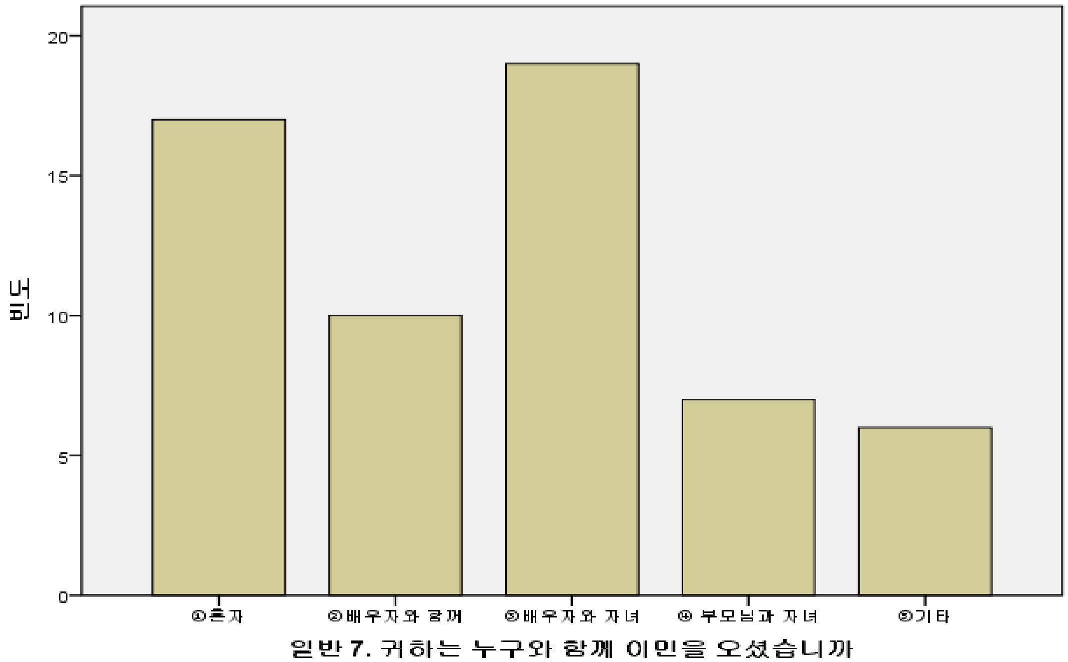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②5년 미만	1	1.7	1.7	1.7
	④ 10년이상-20년 미만	12	20.3	20.3	22.0
	⑤20년이상-30년미만	17	28.8	28.8	50.8
	⑥ 30년 이상	27	45.8	45.8	96.6
	⑦기타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일반 7. 귀하는 누구와 함께 이민을 오셨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혼자	17	28.8	28.8	28.8
	②배우자와 함께	10	16.9	16.9	45.8
	③배우자와 자녀	19	32.2	32.2	78.0
	④ 부모님과 자녀	7	11.9	11.9	89.8
	⑤기타	6	10.2	10.2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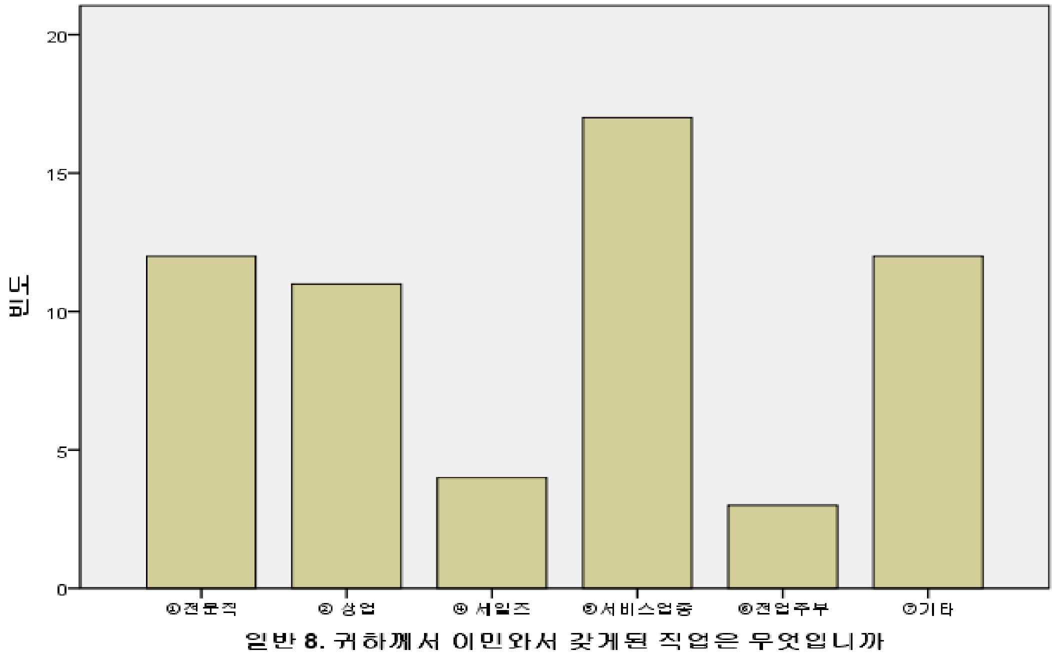
일반 7. 귀하는 누구와 함께 이민을 오셨습니까



일반 8. 귀하께서 이민와서 갖게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전문직	12	20.3	20.3	20.3
	② 상업	11	18.6	18.6	39.0
	④ 세일즈	4	6.8	6.8	45.8
	⑤서비스업종	17	28.8	28.8	74.6
	⑥전업주부	3	5.1	5.1	79.7
	⑦기타	12	20.3	20.3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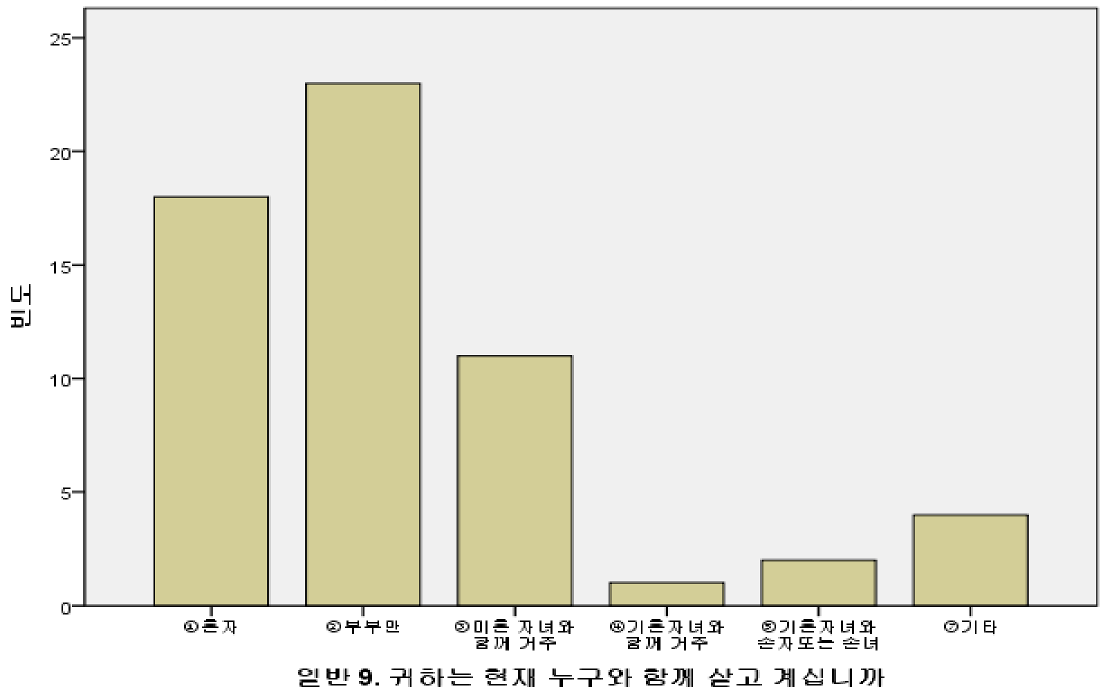
일반 8. 귀하께서 이민와서 갖게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일반 9.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혼자	18	30.5	30.5	30.5
	②부부만	23	39.0	39.0	69.5
	③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	11	18.6	18.6	88.1
	④기혼자녀와 함께 거주	1	1.7	1.7	89.8
	⑤기혼자녀와 손자또는 손녀	2	3.4	3.4	93.2
	⑦기타	4	6.8	6.8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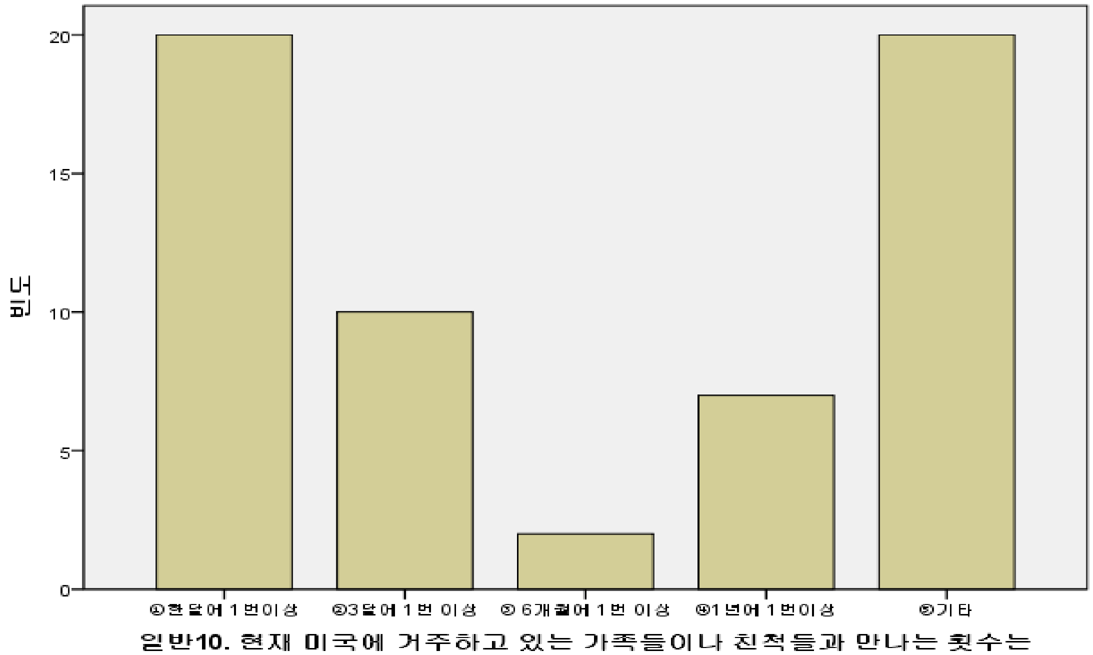
일반 9.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일반10.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과 만나는 횟수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한달에 1번이상	20	33.9	33.9	33.9
	②3달에 1번 이상	10	16.9	16.9	50.8
	③ 6개월에 1번 이상	2	3.4	3.4	54.2
	④1년에 1번이상	7	11.9	11.9	66.1
	⑤기타	20	33.9	33.9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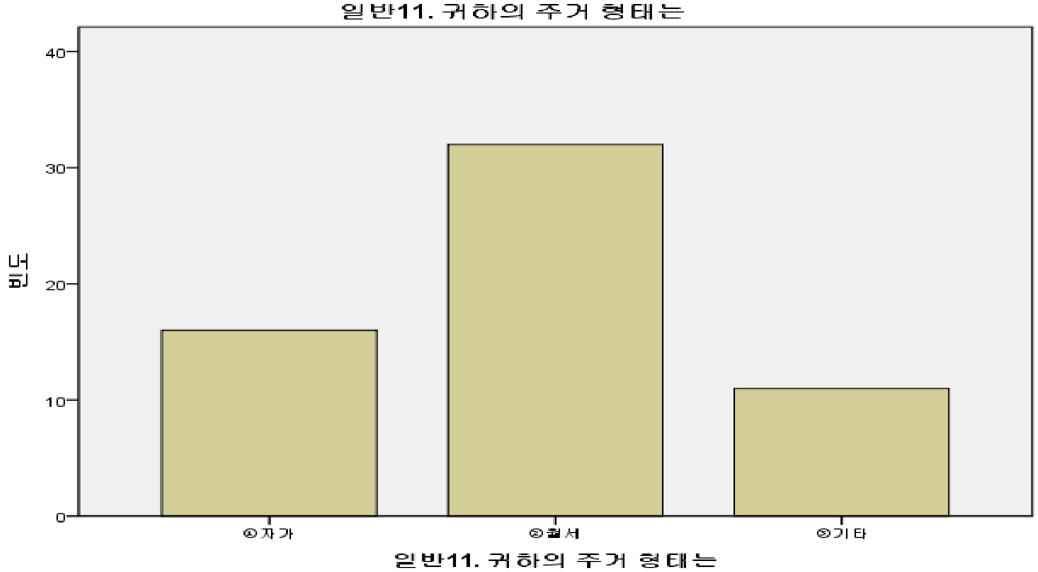
일반10.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과 만나는 횟수는



일반11. 귀하의 주거 형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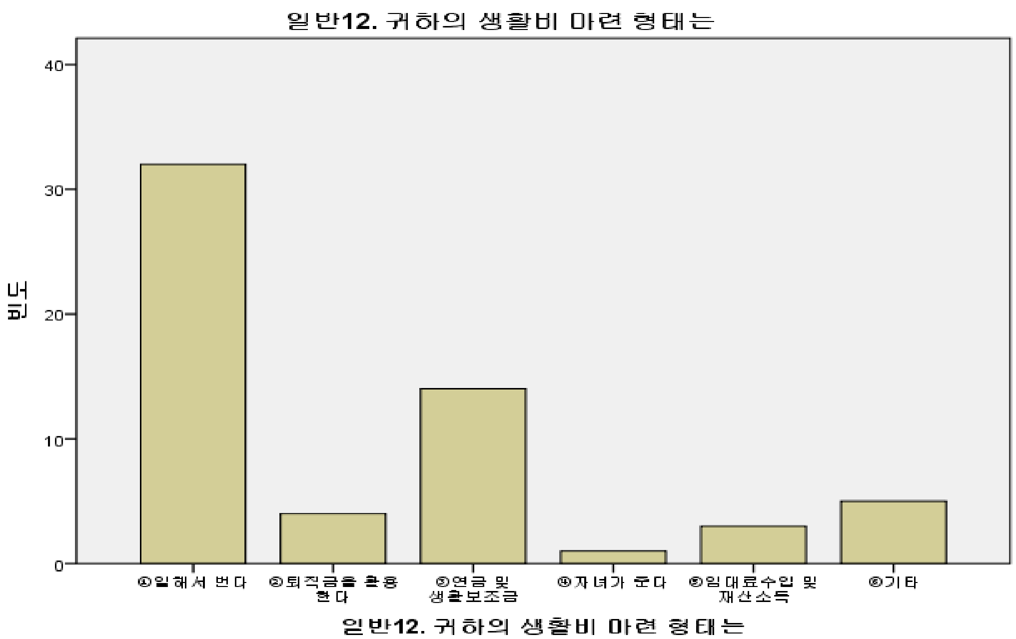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자가	16	27.1	27.1	27.1
	②월세	32	54.2	54.2	81.4
	③기타	11	18.6	18.6	100.0
	합계	59	100.0	100.0	

일반11. 귀하의 주거 형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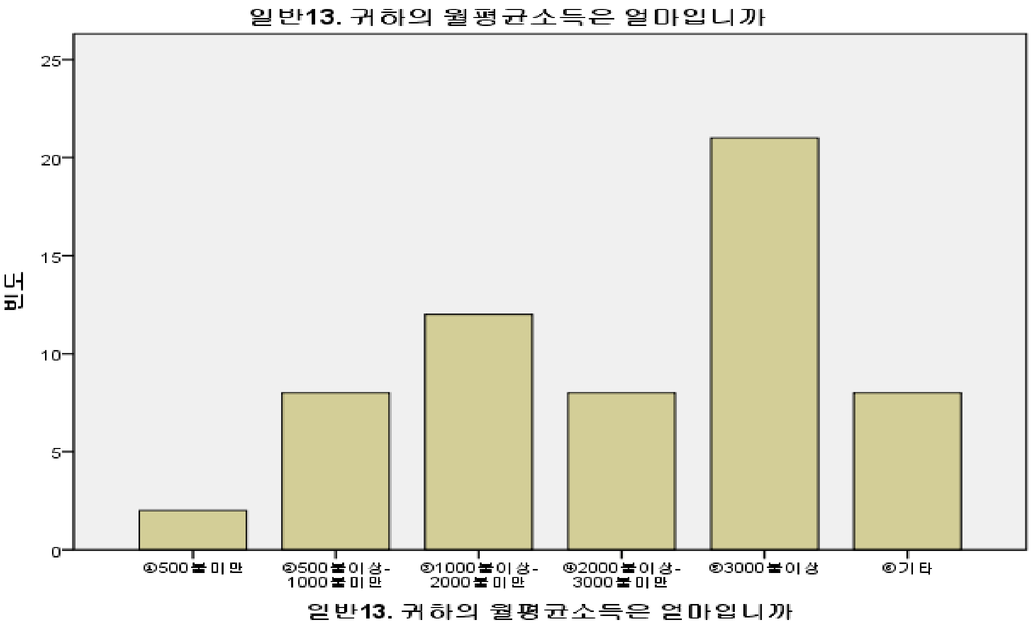
일반12. 귀하의 생활비 마련 형태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일해서 번다	32	54.2	54.2	54.2
	②퇴직금을 활용 한다	4	6.8	6.8	61.0
	③연금 및 생활보조금	14	23.7	23.7	84.7
	④자녀가 준다	1	1.7	1.7	86.4
	⑤임대료수입 및 재산소득	3	5.1	5.1	91.5
	⑥기타	5	8.5	8.5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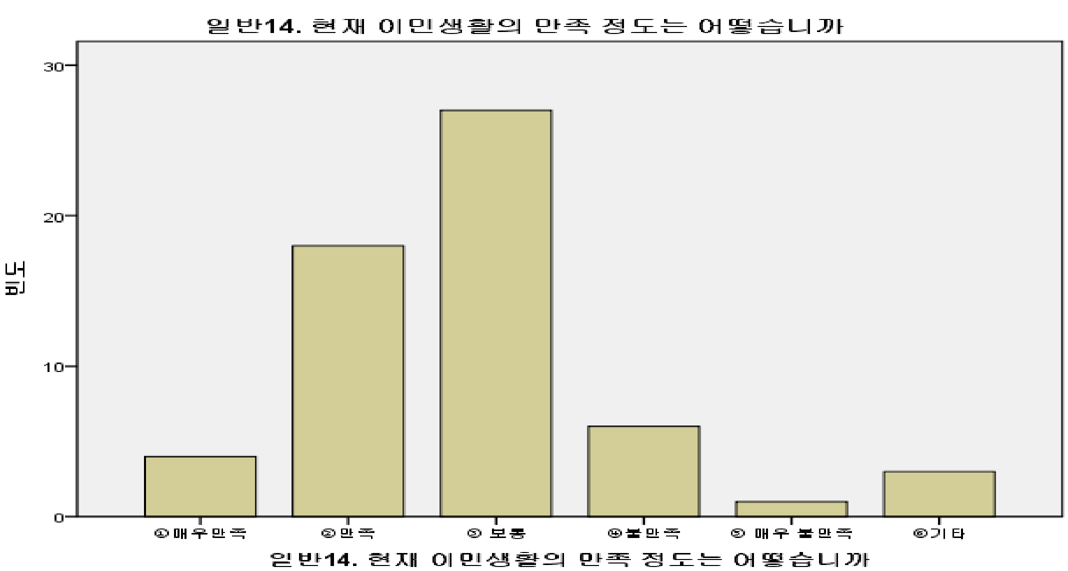
일반13. 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500불미만	2	3.4	3.4	3.4
	②500불이상-1000불미만	8	13.6	13.6	16.9
	③1000불이상-2000불미만	12	20.3	20.3	37.3
	④2000불이상-3000불미만	8	13.6	13.6	50.8
	⑤3000불이상	21	35.6	35.6	86.4
	⑥기타	8	13.6	13.6	100.0
	합계	59	100.0	100.0	



일반14. 현재 이민생활의 만족 정도는 어떻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매우만족	4	6.8	6.8	6.8
	②만족	18	30.5	30.5	37.3
	③ 보통	27	45.8	45.8	83.1
	④불만족	6	10.2	10.2	93.2
	⑤ 매우 불만족	1	1.7	1.7	94.9
	⑥기타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5) 여가활동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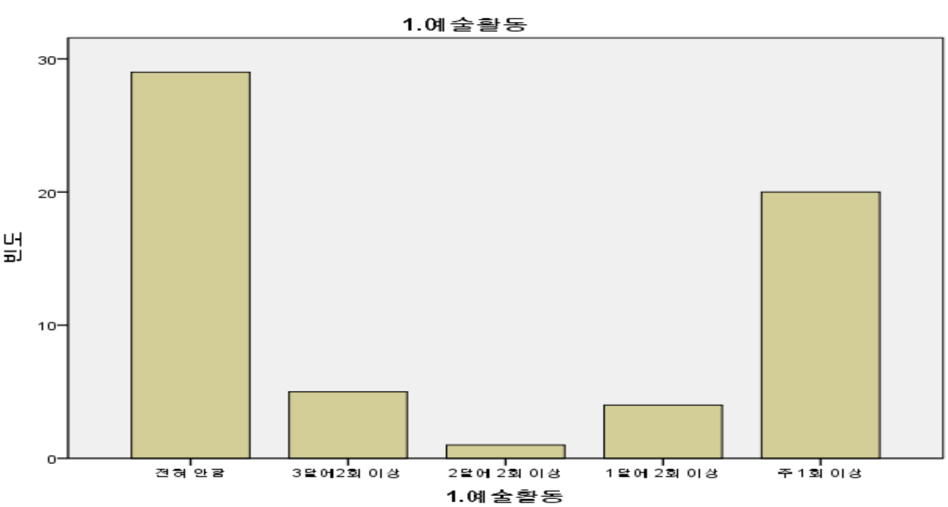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예술활동	59	1	5	2.68	1.852
2.수작업	59	1	5	2.42	1.734
3.지적활동	59	1	5	3.00	1.848
4.스포츠활동	59	1	5	2.75	1.777
5.여행	59	1	5	1.90	1.282
6.자원봉사활동	59	1	5	2.63	1.761
7.사회활동	59	1	5	2.68	1.686
8.소일활동	59	1	5	4.12	1.521
유효수 (목록별)	59				

6) 여가활동의 빈도표 및 막대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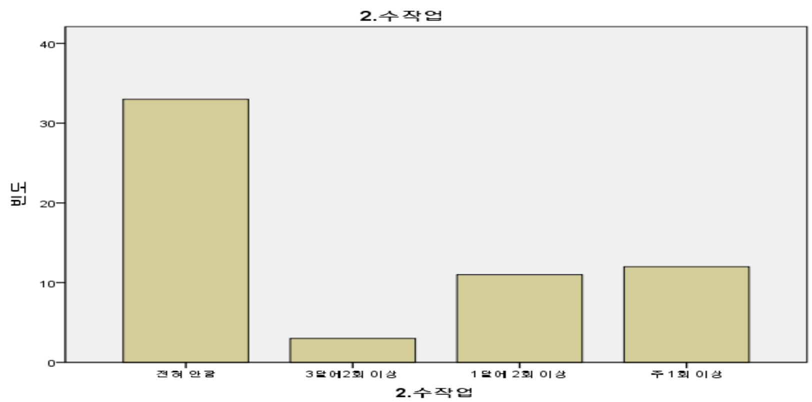
1.예술활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안함	29	49.2	49.2	49.2
	3달에2회 이상	5	8.5	8.5	57.6
	2달에 2회 이상	1	1.7	1.7	59.3
	1달에 2회 이상	4	6.8	6.8	66.1
	주 1회 이상	20	33.9	33.9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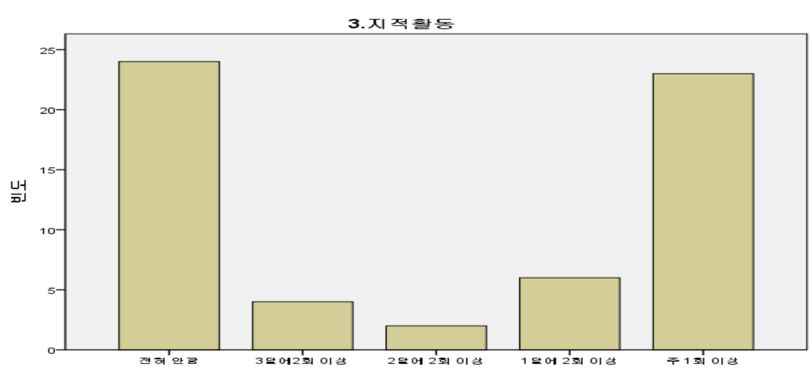
2.수작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안함	33	55.9	55.9	55.9
	3달에2회 이상	3	5.1	5.1	61.0
	1달에 2회 이상	11	18.6	18.6	79.7
	주 1회 이상	12	20.3	20.3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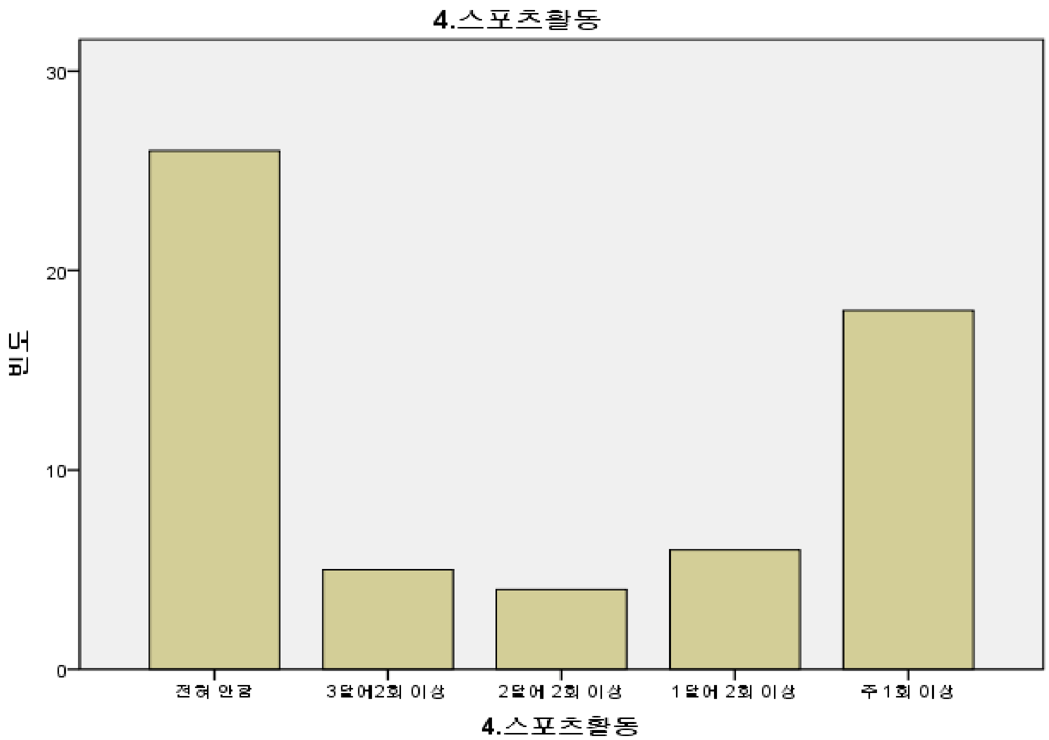
3.지적활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안함	24	40.7	40.7	40.7
	3달에2회 이상	4	6.8	6.8	47.5
	2달에 2회 이상	2	3.4	3.4	50.8
	1달에 2회 이상	6	10.2	10.2	61.0
	주 1회 이상	23	39.0	39.0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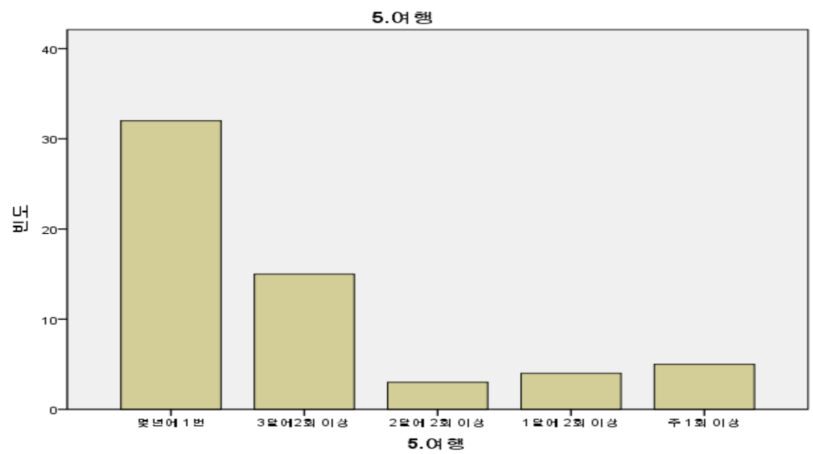
4.스포츠활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안함	26	44.1	44.1	44.1
	3달에2회 이상	5	8.5	8.5	52.5
	2달에 2회 이상	4	6.8	6.8	59.3
	1달에 2회 이상	6	10.2	10.2	69.5
	주 1회 이상	18	30.5	30.5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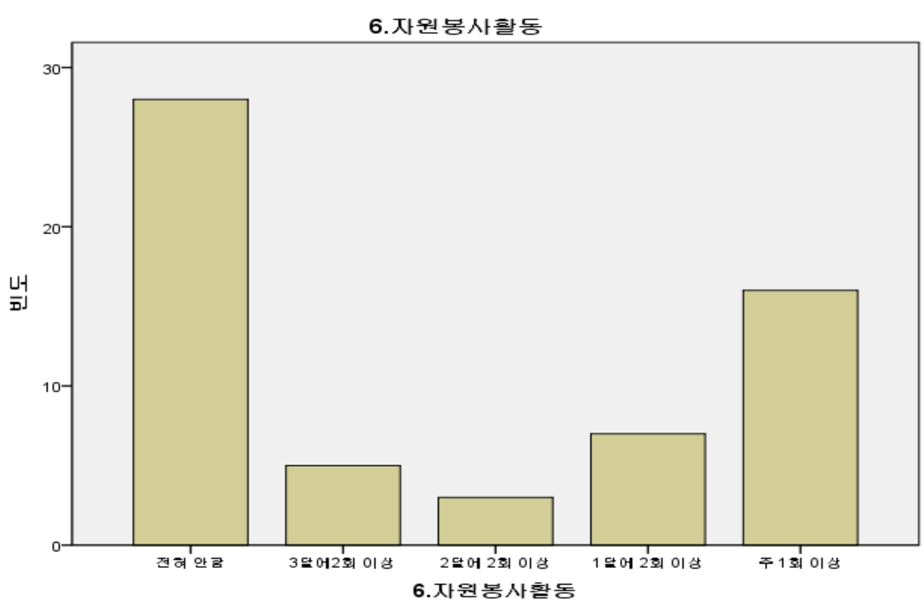
5.여행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몇년에 1번	32	54.2	54.2	54.2
	3달에2회 이상	15	25.4	25.4	79.7
	2달에 2회 이상	3	5.1	5.1	84.7
	1달에 2회 이상	4	6.8	6.8	91.5
	주 1회 이상	5	8.5	8.5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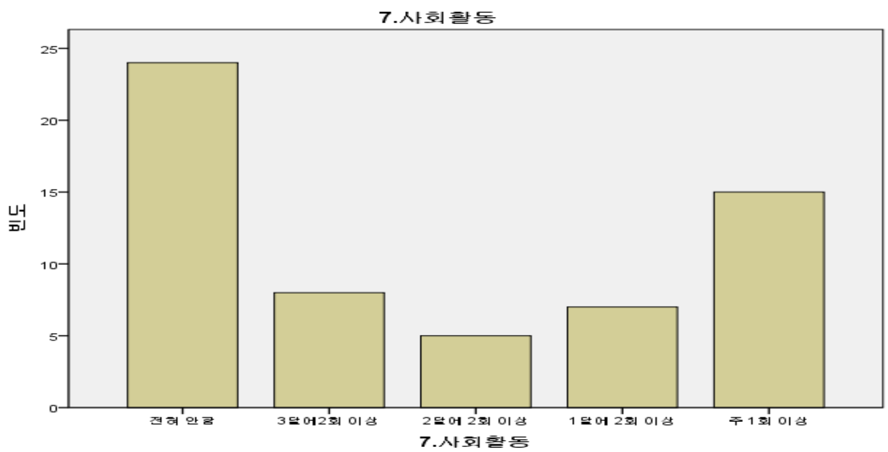
6.자원봉사활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안함	28	47.5	47.5	47.5
	3달에2회 이상	5	8.5	8.5	55.9
	2달에 2회 이상	3	5.1	5.1	61.0
	1달에 2회 이상	7	11.9	11.9	72.9
	주 1회 이상	16	27.1	27.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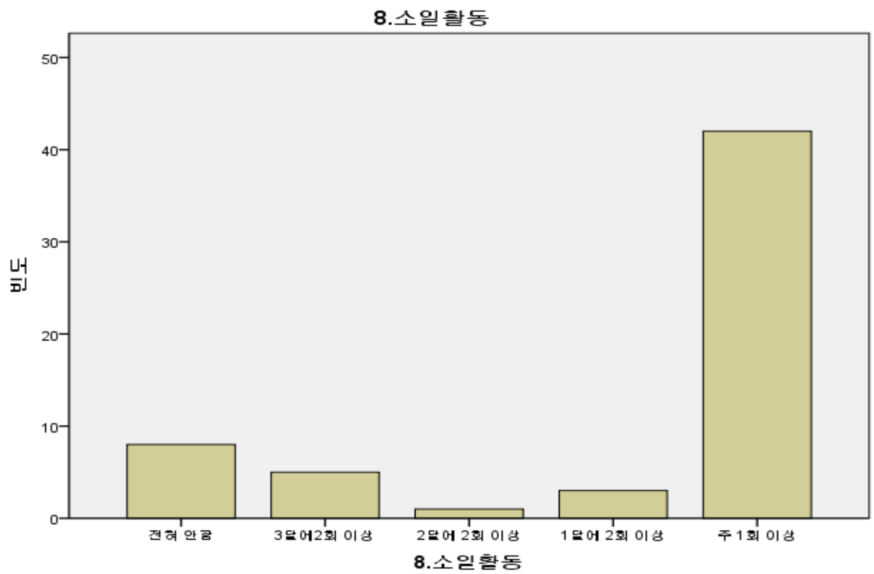
7.사회활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안함	24	40.7	40.7	40.7
	3달에2회 이상	8	13.6	13.6	54.2
	2달에 2회 이상	5	8.5	8.5	62.7
	1달에 2회 이상	7	11.9	11.9	74.6
	주 1회 이상	15	25.4	25.4	100.0
	합계	59	100.0	100.0	



8.소일활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안함	8	13.6	13.6	13.6
	3달에2회 이상	5	8.5	8.5	22.0
	2달에 2회 이상	1	1.7	1.7	23.7
	1달에 2회 이상	3	5.1	5.1	28.8
	주 1회 이상	42	71.2	71.2	100.0
	합계	59	100.0	100.0	



7) 고독의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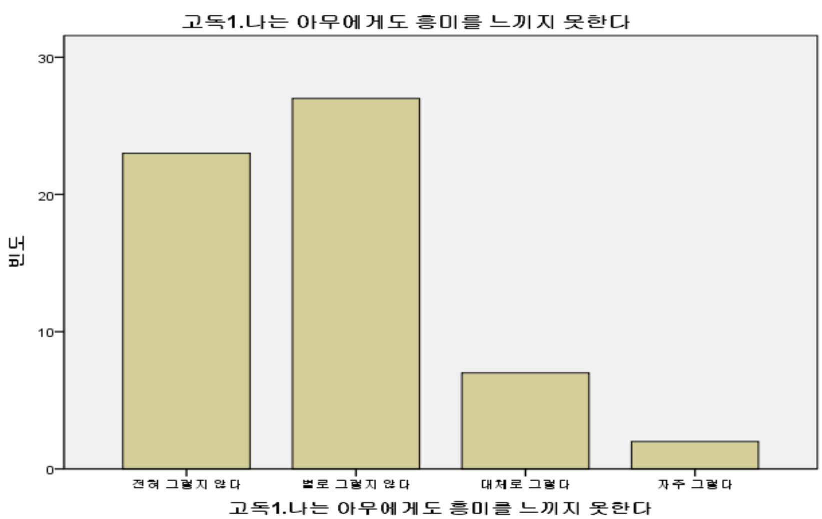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고독1.나는 아무에게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59	1	4	1.80	.783
고독 2. 나는 누구에게도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59	1	4	1.75	.843
고독 3. 나는 결국 혼잘 남을 것이다	59	1	4	2.08	.952
고독 4.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나는 상황 속에 갇혀있다	59	1	4	1.81	.919
고독 5.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59	1	4	1.59	.853
고독 6. 나는 거절당할 것이다	59	1	4	1.61	.720
고독 7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	59	1	4	1.42	.649
고독 8. 내겐 스스로 상황을 헤쳐 나갈 능력이 없다	59	1	4	1.58	.835
고독 9. 나는 매력이 없다	59	1	4	1.80	.924
고독 10. 나는 사회 부적응자이다	59	1	4	1.56	.676

고독 11. 내가 남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59	1	4	1.76	.795
고독 12. 남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59	1	4	1.85	.867
고독 13.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봐 두렵다	59	1	4	1.95	.899
고독 14. 사람마다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만의 문제가 있는 법이다	59	1	4	2.75	.801
고독 15.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59	1	4	2.71	.789
고독 16.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59	1	4	2.63	.849
고독 17. 사람들은 고독한 사람을 무서워한다	59	1	4	2.10	.923
고독 18.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59	1	4	1.64	.783
고독 19.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거리감 있게 느껴진다	59	1	4	2.00	.830
고독 20. 이 세상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59	1	4	1.51	.796
고독 21. 뭘 하든지 간에 결국 사람은 혼자이다	59	1	4	2.34	1.044
고독 22.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	59	1	4	1.76	.795
고독 23. 고독을 견딜 수가 없다	59	1	4	1.78	.789
고독 24. 고독이 무섭다	59	1	4	1.88	.930
고독 25. 인생이 무의미하다	59	1	4	1.76	.858
고독 26. 인생은 헛수고의 연속이다	59	1	4	1.80	.943
유효수 (목록별)	59				

8) 고독의 빈도표 및 막대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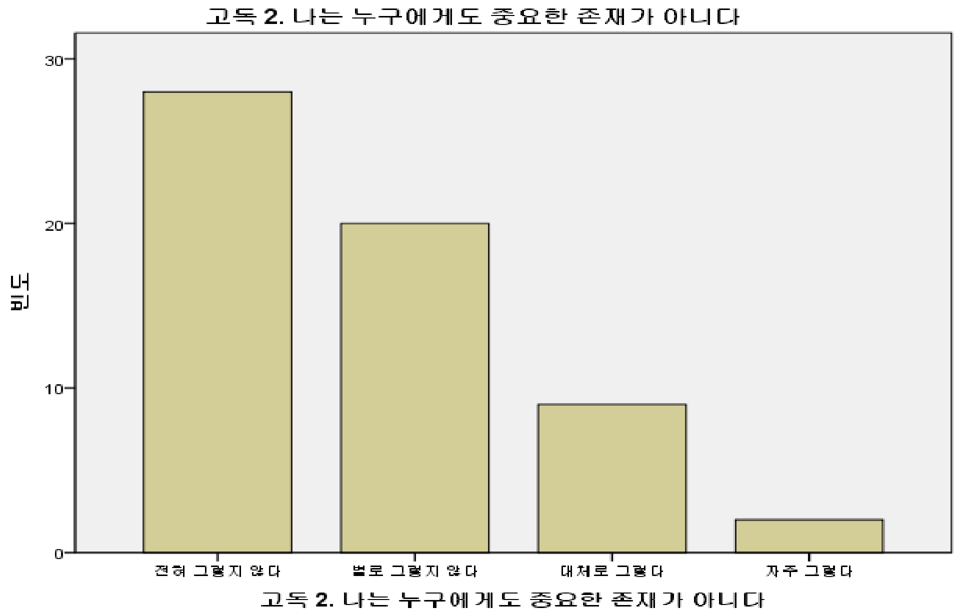
고독1.나는 아무에게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3	39.0	39.0	39.0
	별로 그렇지 않다	27	45.8	45.8	84.7
	대체로 그렇다	7	11.9	11.9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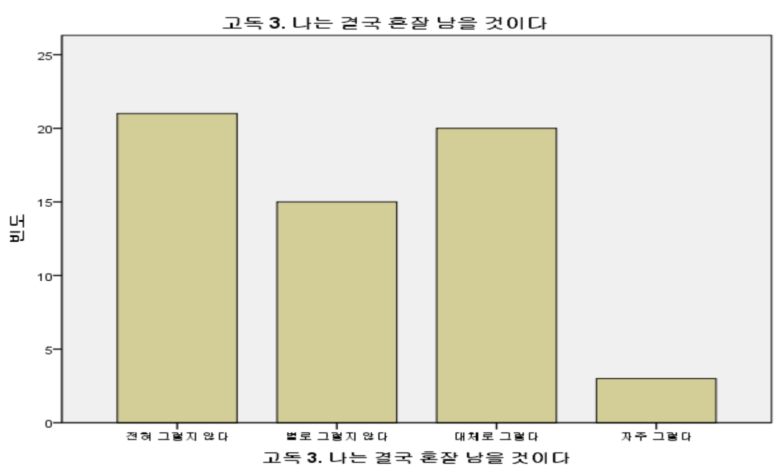
고독 2. 나는 누구에게도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8	47.5	47.5	47.5
	별로 그렇지 않다	20	33.9	33.9	81.4
	대체로 그렇다	9	15.3	15.3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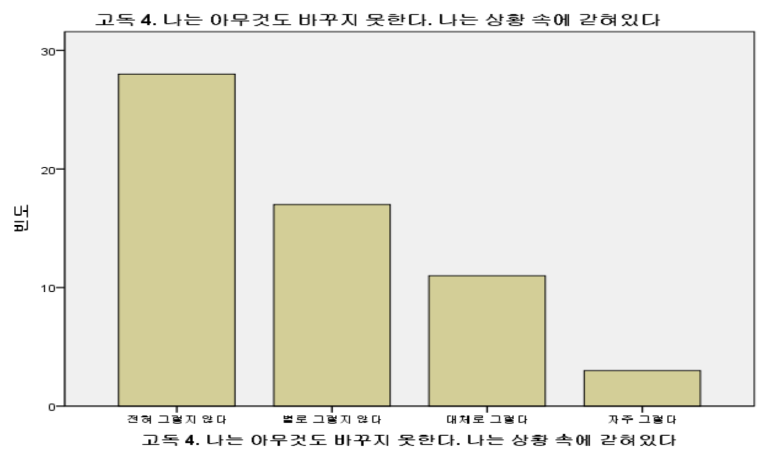
고독 3. 나는 결국 혼잘 남을 것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1	35.6	35.6	35.6
	별로 그렇지 않다	15	25.4	25.4	61.0
	대체로 그렇다	20	33.9	33.9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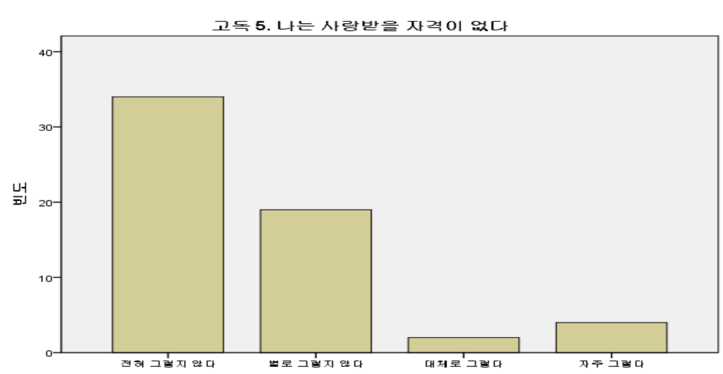
고독 4.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나는 상황 속에 갇혀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8	47.5	47.5	47.5
	별로 그렇지 않다	17	28.8	28.8	76.3
	대체로 그렇다	11	18.6	18.6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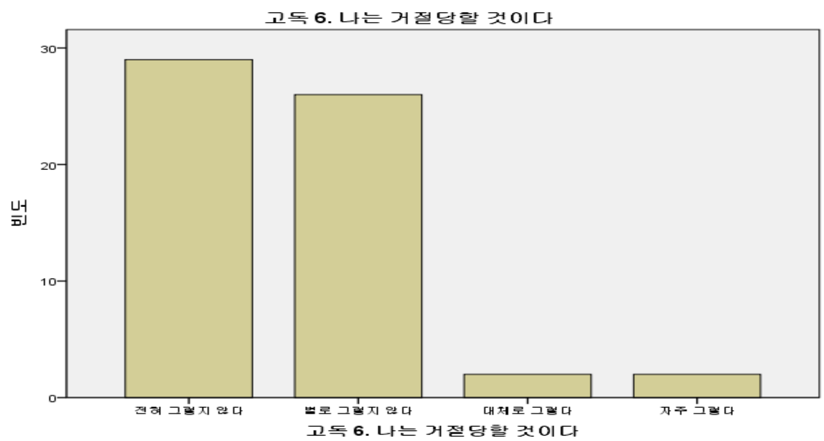
고독 5.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4	57.6	57.6	57.6
	별로 그렇지 않다	19	32.2	32.2	89.8
	대체로 그렇다	2	3.4	3.4	93.2
	자주 그렇다	4	6.8	6.8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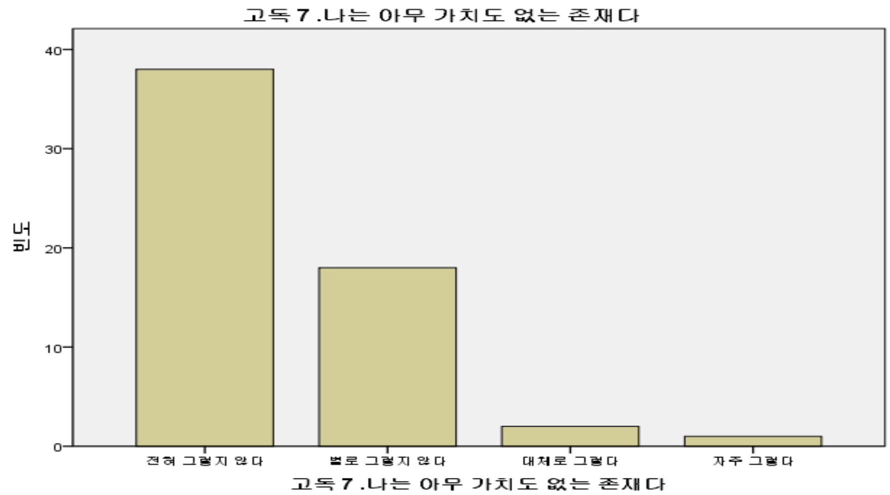
고독 6. 나는 거절당할 것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9	49.2	49.2	49.2
	별로 그렇지 않다	26	44.1	44.1	93.2
	대체로 그렇다	2	3.4	3.4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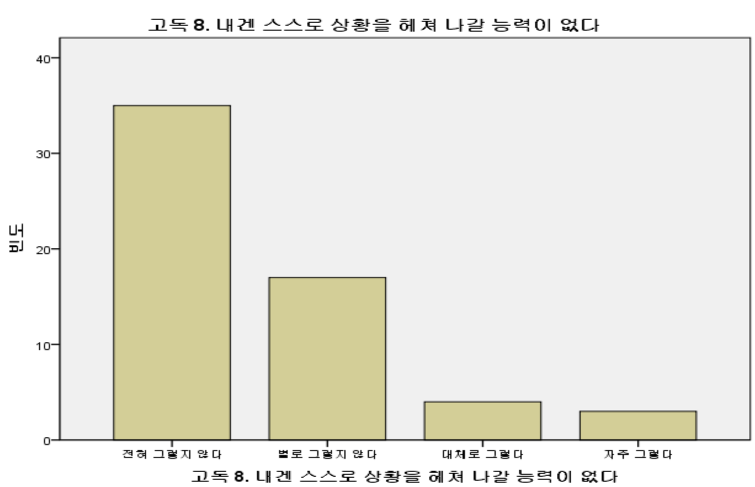
고독 7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8	64.4	64.4	64.4
	별로 그렇지 않다	18	30.5	30.5	94.9
	대체로 그렇다	2	3.4	3.4	98.3
	자주 그렇다	1	1.7	1.7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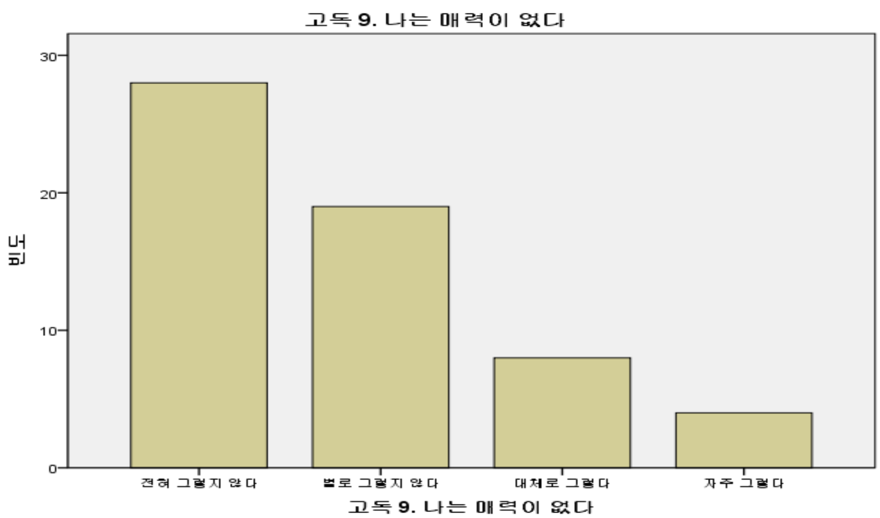
고독 8. 내겐 스스로 상황을 헤쳐 나갈 능력이 없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5	59.3	59.3	59.3
	별로 그렇지 않다	17	28.8	28.8	88.1
	대체로 그렇다	4	6.8	6.8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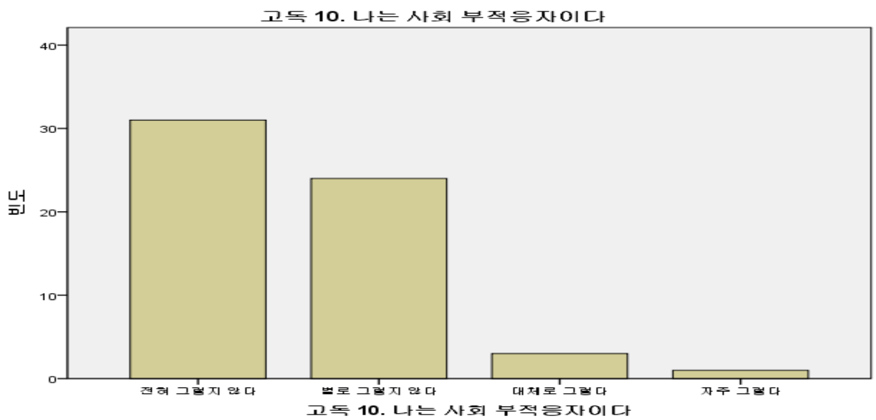
고독 9. 나는 매력이 없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8	47.5	47.5	47.5
	별로 그렇지 않다	19	32.2	32.2	79.7
	대체로 그렇다	8	13.6	13.6	93.2
	자주 그렇다	4	6.8	6.8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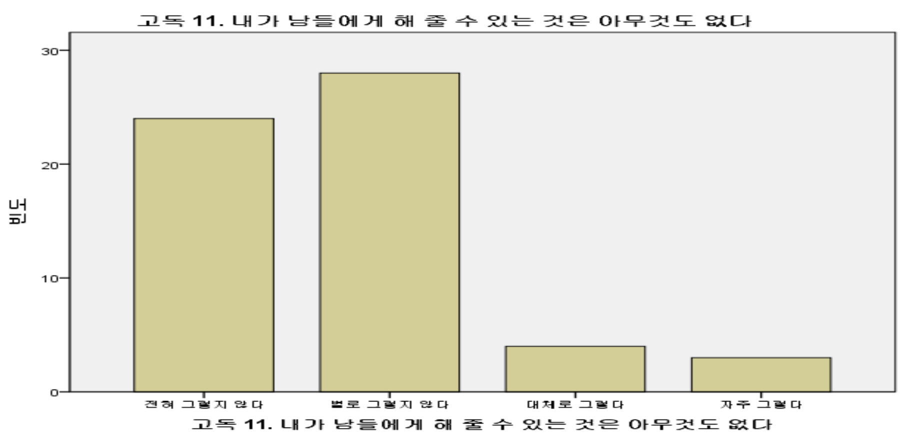
고독 10. 나는 사회 부적응자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1	52.5	52.5	52.5
	별로 그렇지 않다	24	40.7	40.7	93.2
	대체로 그렇다	3	5.1	5.1	98.3
	자주 그렇다	1	1.7	1.7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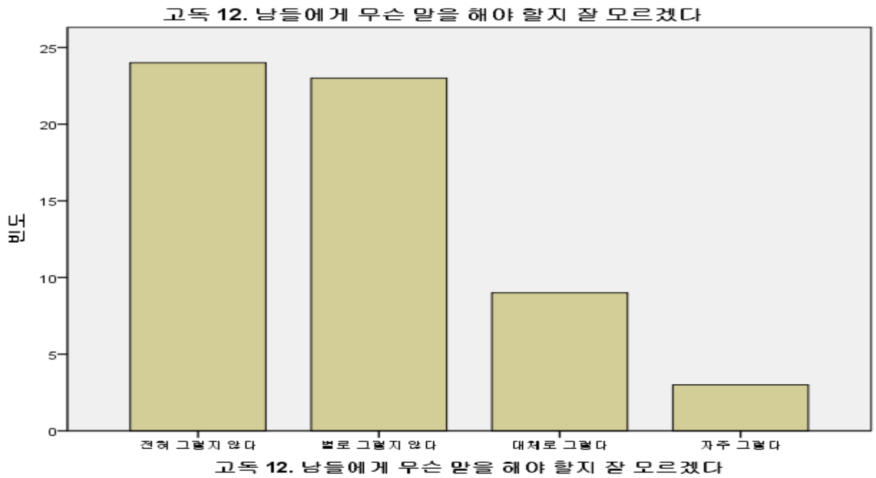
고독 11. 내가 남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4	40.7	40.7	40.7
	별로 그렇지 않다	28	47.5	47.5	88.1
	대체로 그렇다	4	6.8	6.8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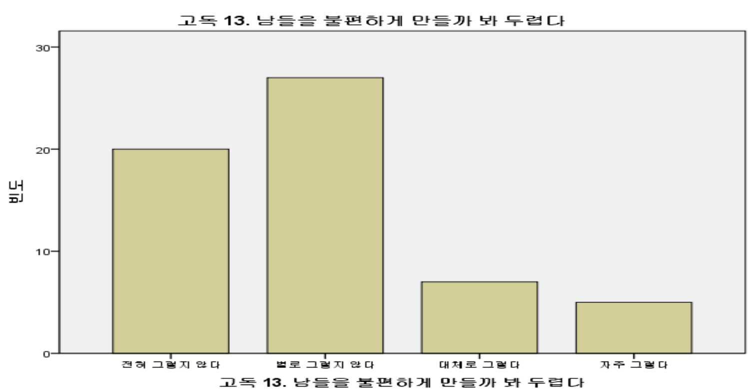
고독 12. 남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4	40.7	40.7	40.7
	별로 그렇지 않다	23	39.0	39.0	79.7
	대체로 그렇다	9	15.3	15.3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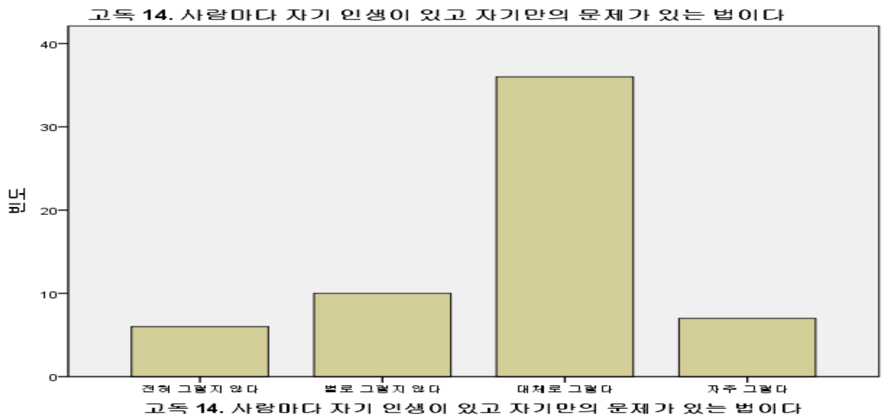
고독 13.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봐 두렵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0	33.9	33.9	33.9
	별로 그렇지 않다	27	45.8	45.8	79.7
	대체로 그렇다	7	11.9	11.9	91.5
	자주 그렇다	5	8.5	8.5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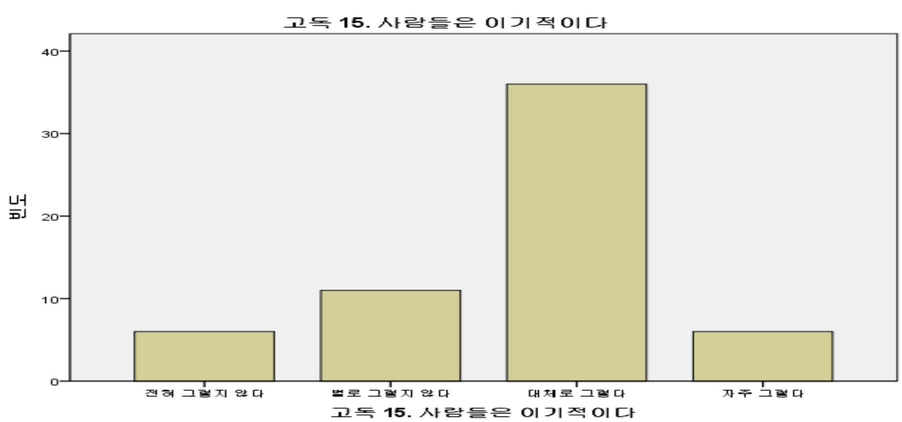
고독 14. 사람마다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만의 문제가 있는 법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6	10.2	10.2	10.2
	별로 그렇지 않다	10	16.9	16.9	27.1
	대체로 그렇다	36	61.0	61.0	88.1
	자주 그렇다	7	11.9	11.9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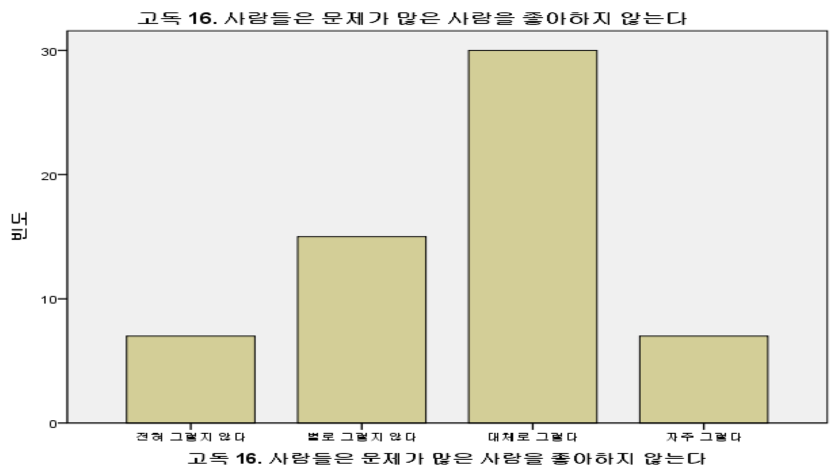
고독 15.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6	10.2	10.2	10.2
	별로 그렇지 않다	11	18.6	18.6	28.8
	대체로 그렇다	36	61.0	61.0	89.8
	자주 그렇다	6	10.2	10.2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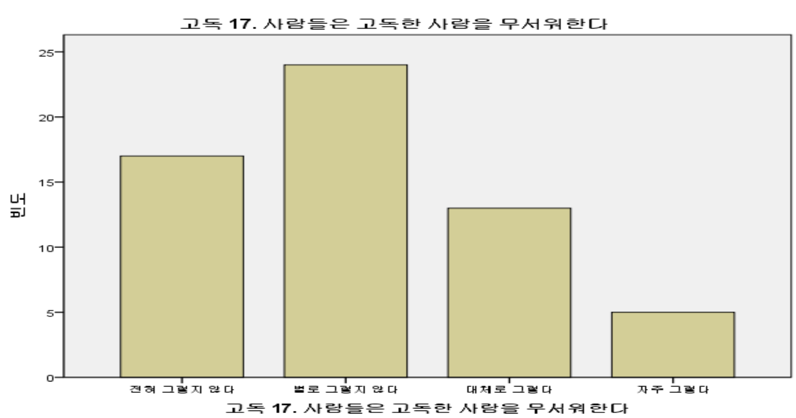
고독 16.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7	11.9	11.9	11.9
	별로 그렇지 않다	15	25.4	25.4	37.3
	대체로 그렇다	30	50.8	50.8	88.1
	자주 그렇다	7	11.9	11.9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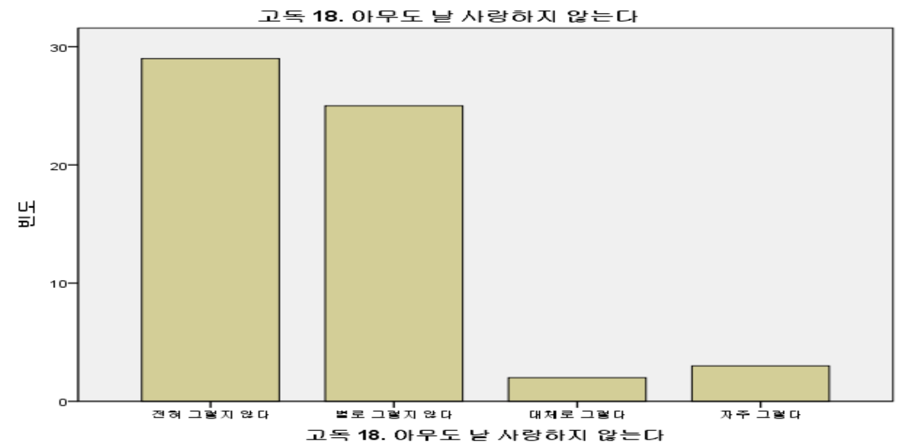
고독 17. 사람들은 고독한 사람을 무서워한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17	28.8	28.8	28.8
	별로 그렇지 않다	24	40.7	40.7	69.5
	대체로 그렇다	13	22.0	22.0	91.5
	자주 그렇다	5	8.5	8.5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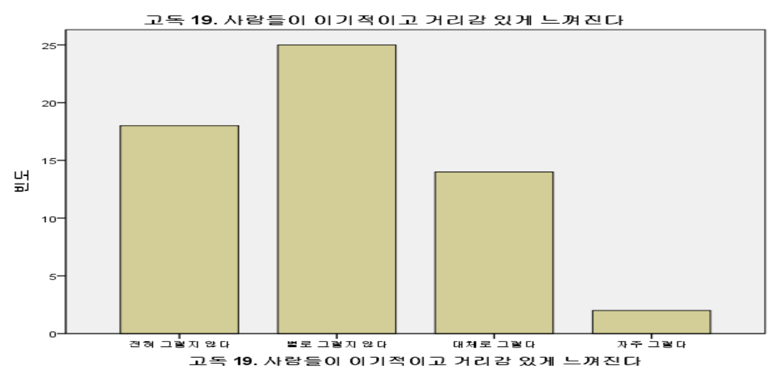
고독 18.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9	49.2	49.2	49.2
	별로 그렇지 않다	25	42.4	42.4	91.5
	대체로 그렇다	2	3.4	3.4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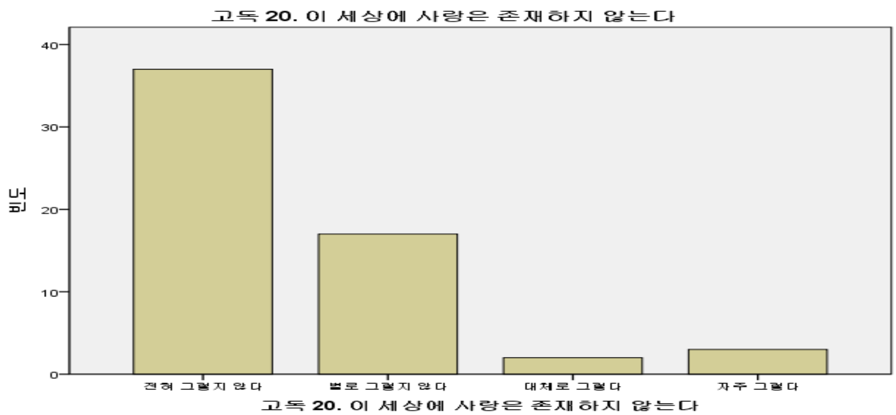
고독 19.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거리감 있게 느껴진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18	30.5	30.5	30.5
	별로 그렇지 않다	25	42.4	42.4	72.9
	대체로 그렇다	14	23.7	23.7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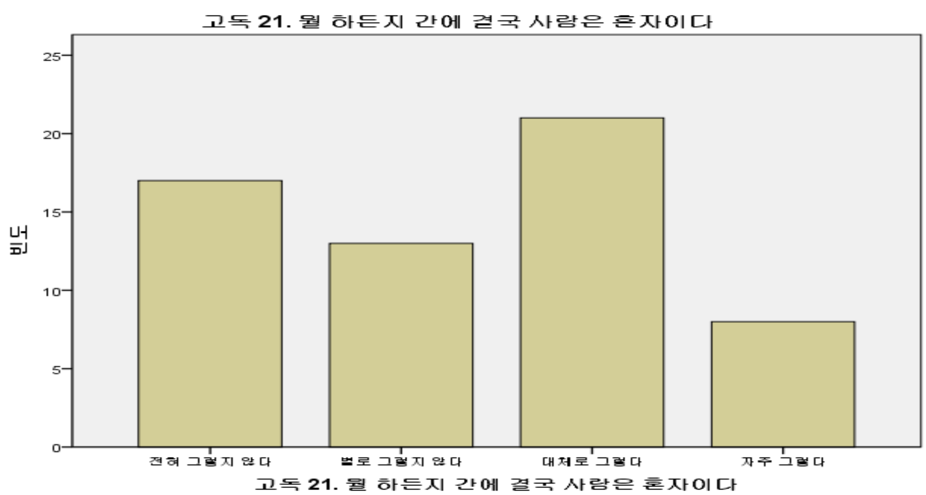
고독 20. 이 세상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7	62.7	62.7	62.7
	별로 그렇지 않다	17	28.8	28.8	91.5
	대체로 그렇다	2	3.4	3.4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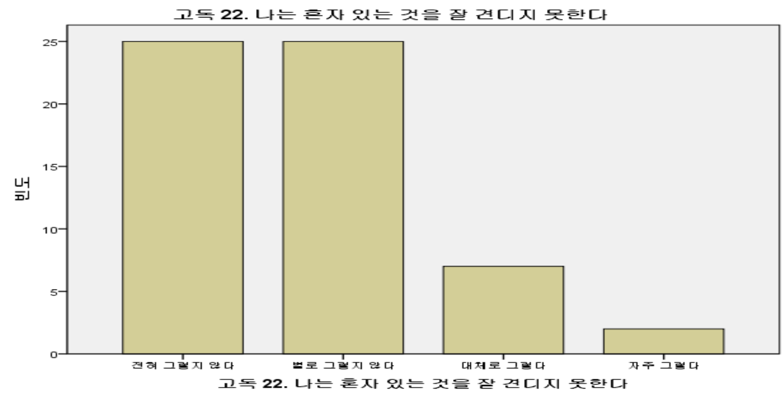
고독 21. 뭘 하든지 간에 결국 사람은 혼자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17	28.8	28.8	28.8
	별로 그렇지 않다	13	22.0	22.0	50.8
	대체로 그렇다	21	35.6	35.6	86.4
	자주 그렇다	8	13.6	13.6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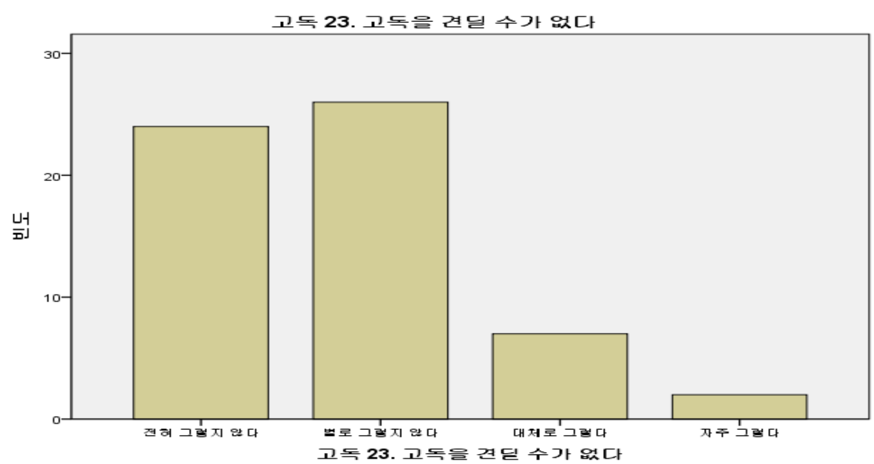
고독 22.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5	42.4	42.4	42.4
	별로 그렇지 않다	25	42.4	42.4	84.7
	대체로 그렇다	7	11.9	11.9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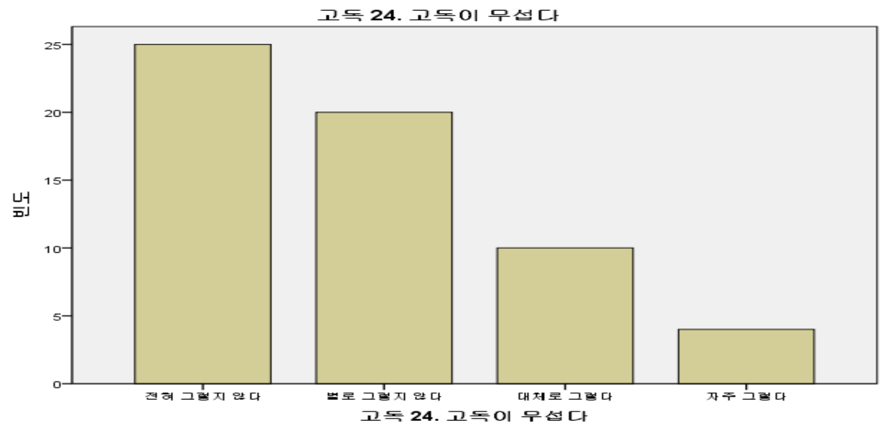
고독 23. 고독을 견딜 수가 없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4	40.7	40.7	40.7
	별로 그렇지 않다	26	44.1	44.1	84.7
	대체로 그렇다	7	11.9	11.9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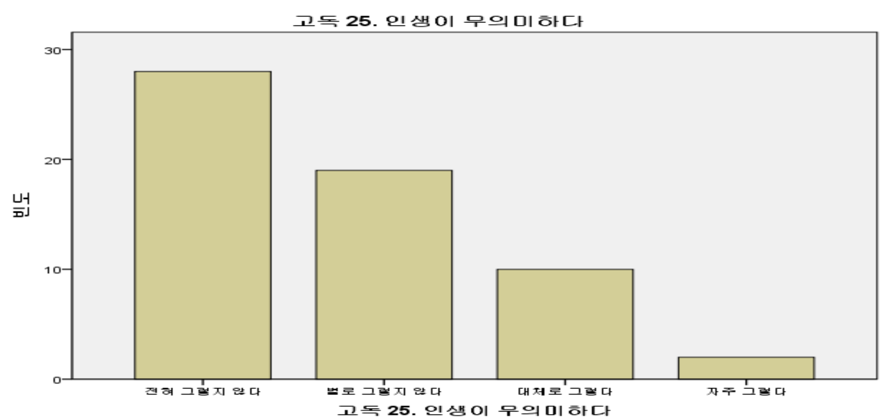
고독 24. 고독이 무섭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5	42.4	42.4	42.4
	별로 그렇지 않다	20	33.9	33.9	76.3
	대체로 그렇다	10	16.9	16.9	93.2
	자주 그렇다	4	6.8	6.8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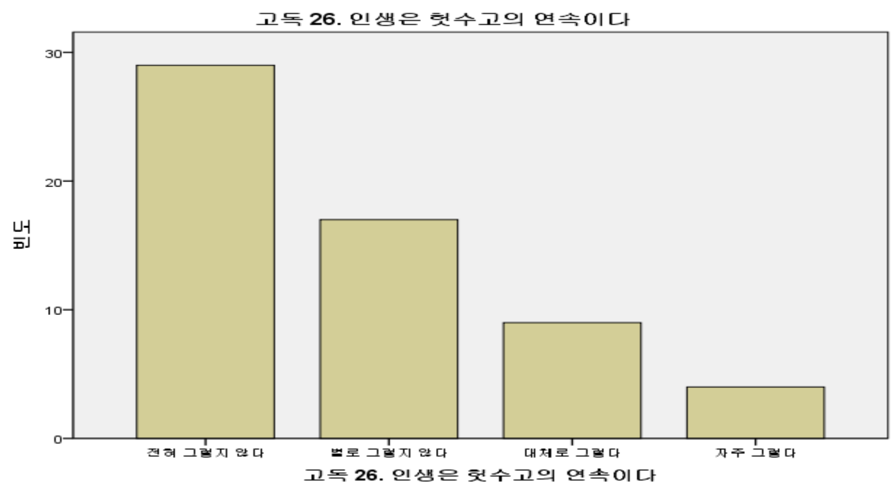
고독 25. 인생이 무의미하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8	47.5	47.5	47.5
	별로 그렇지 않다	19	32.2	32.2	79.7
	대체로 그렇다	10	16.9	16.9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고독 26. 인생은 헛수고의 연속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9	49.2	49.2	49.2
	별로 그렇지 않다	17	28.8	28.8	78.0
	대체로 그렇다	9	15.3	15.3	93.2
	자주 그렇다	4	6.8	6.8	100.0
	합계	59	100.0	100.0	



9) 자존감 기술통계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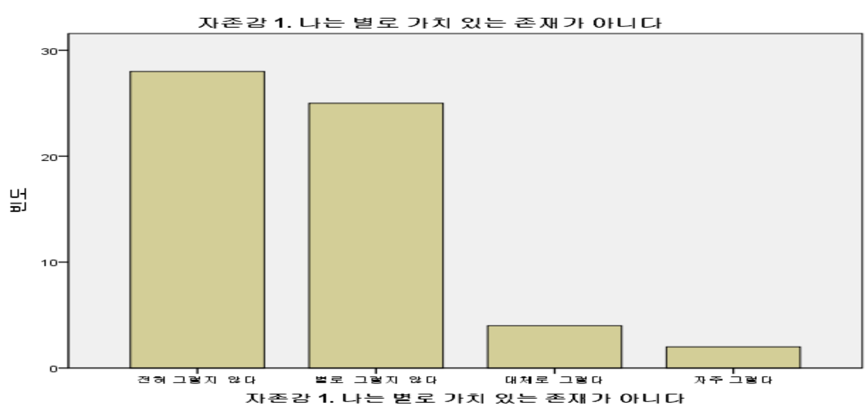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존감 1. 나는 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59	1	4	1.66	.757
자존감 2.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59	1	4	1.61	.788
자존감 3.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59	1	4	1.73	.906
자존감 4.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59	1	4	1.97	.946
자존감 5.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59	1	4	1.68	.819
자존감 6. 나는 결국 해내지 못할 것이다	59	1	4	1.59	.812
자존감 7. 시도하기가 너무 겁이 난다	59	1	4	1.73	.784
자존감 8. 나는 남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	59	1	4	1.76	.773
자존감 9. 나는 충분히 역량이 없다	59	1	4	1.73	.827
자존감 10. 내겐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없다	59	1	4	1.83	.854
자존감11.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59	1	4	1.66	.822

자존감 12. 나는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잘모르겠다	59	1	4	1.76	.795
자존감 13.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59	1	4	1.71	.832
자존감 14.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59	1	4	1.63	.849
자존감 15. 나는 내인생을 살지 못한다	59	1	4	1.75	.958
자존감 16.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59	1	4	1.76	.916
유효수 (목록별)	59				

10) 자존감 빈도표 및 막대그래프

자존감 1. 나는 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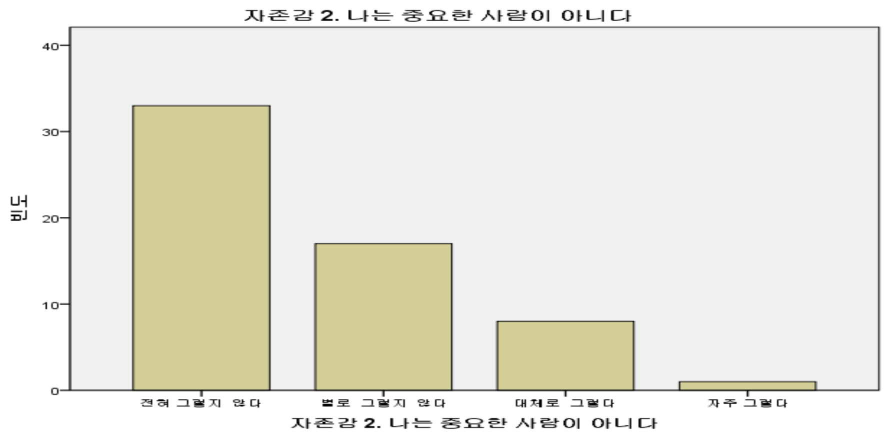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8	47.5	47.5	47.5
	별로 그렇지 않다	25	42.4	42.4	89.8
	대체로 그렇다	4	6.8	6.8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자존감 2.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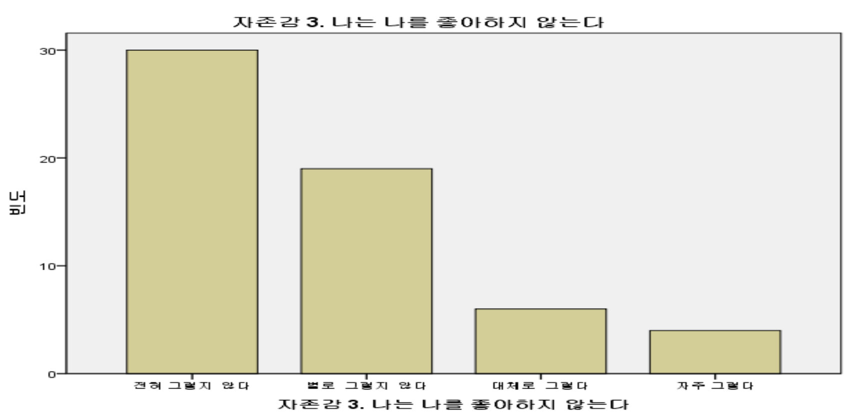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3	55.9	55.9	55.9
	별로 그렇지 않다	17	28.8	28.8	84.7
	대체로 그렇다	8	13.6	13.6	98.3

	자주 그렇다	1	1.7	1.7	100.0
	합계	59	100.0	100.0	



자존감 3.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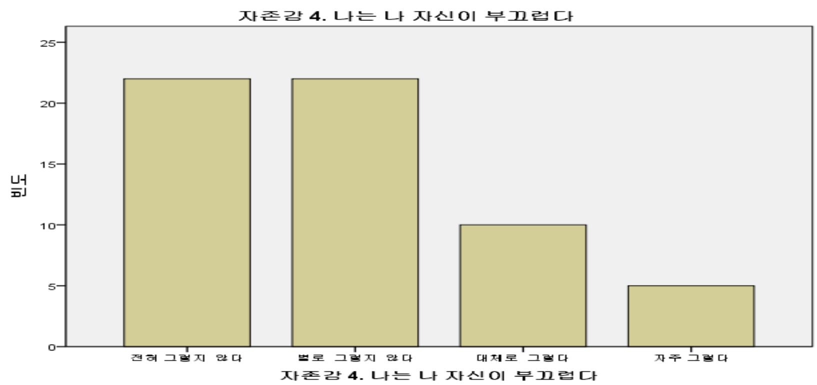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0	50.8	50.8	50.8
	별로 그렇지 않다	19	32.2	32.2	83.1
	대체로 그렇다	6	10.2	10.2	93.2
	자주 그렇다	4	6.8	6.8	100.0
	합계	59	100.0	100.0	



자존감 4.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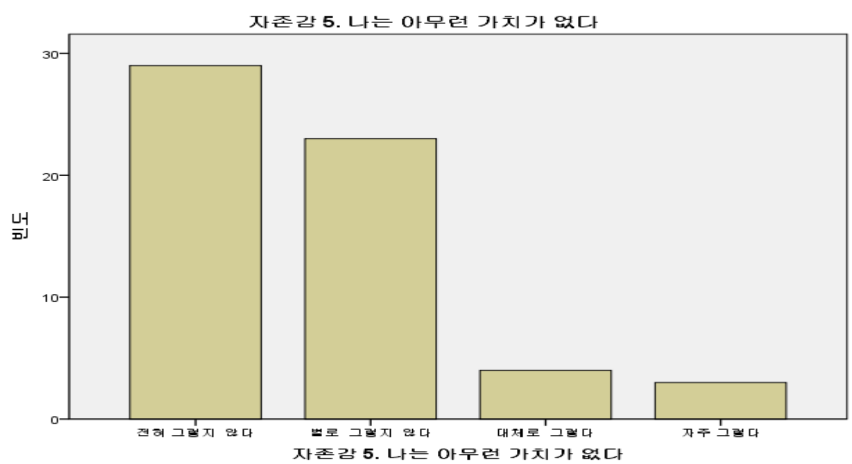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2	37.3	37.3	37.3
	별로 그렇지 않다	22	37.3	37.3	74.6
	대체로 그렇다	10	16.9	16.9	91.5

	자주 그렇다	5	8.5	8.5	100.0
	합계	59	100.0	100.0	



자존감 5.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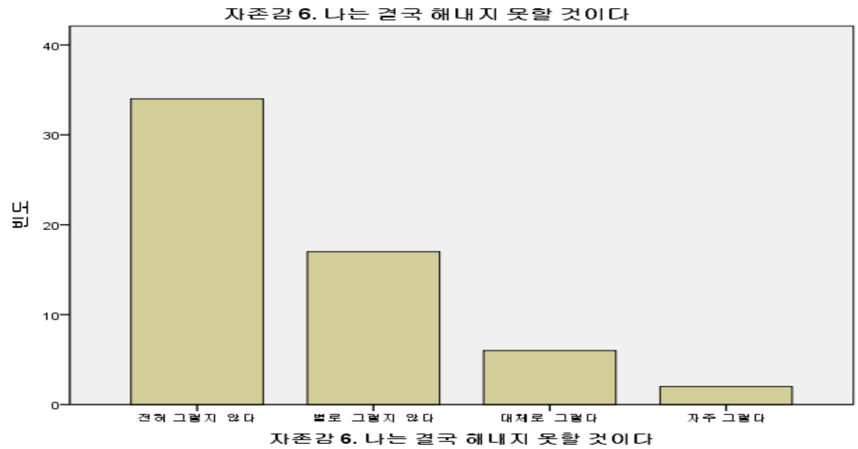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9	49.2	49.2	49.2
	별로 그렇지 않다	23	39.0	39.0	88.1
	대체로 그렇다	4	6.8	6.8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자존감 6. 나는 결국 해내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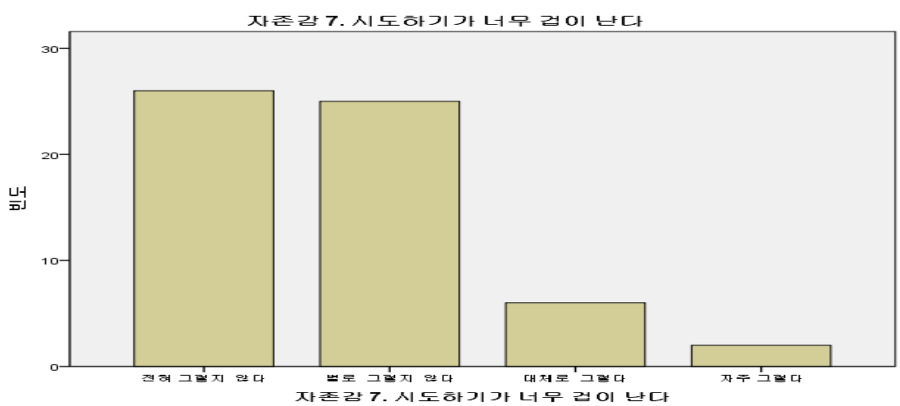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4	57.6	57.6	57.6
	별로 그렇지 않다	17	28.8	28.8	86.4
	대체로 그렇다	6	10.2	10.2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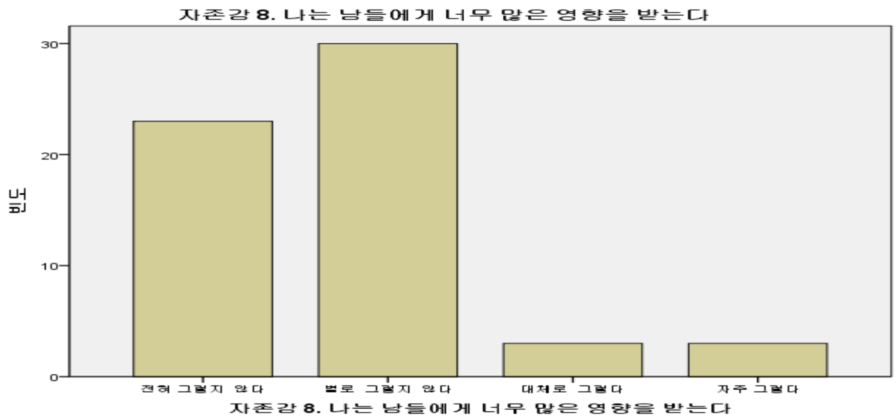
자존감 7. 시도하기가 너무 겁이 난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6	44.1	44.1	44.1
	별로 그렇지 않다	25	42.4	42.4	86.4
	대체로 그렇다	6	10.2	10.2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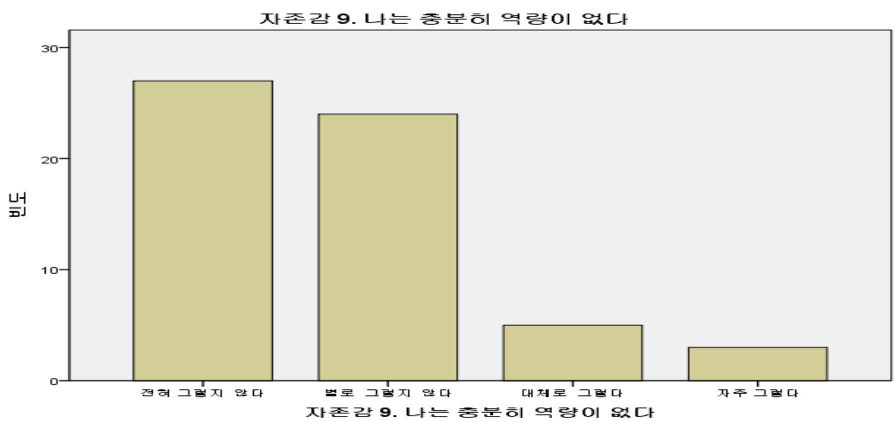
자존감 8. 나는 남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3	39.0	39.0	39.0
	별로 그렇지 않다	30	50.8	50.8	89.8
	대체로 그렇다	3	5.1	5.1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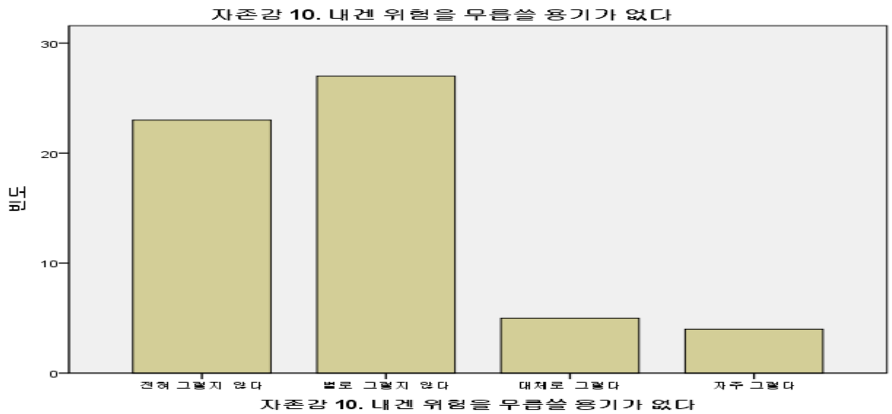
자존감 9. 나는 충분히 역량이 없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7	45.8	45.8	45.8
	별로 그렇지 않다	24	40.7	40.7	86.4
	대체로 그렇다	5	8.5	8.5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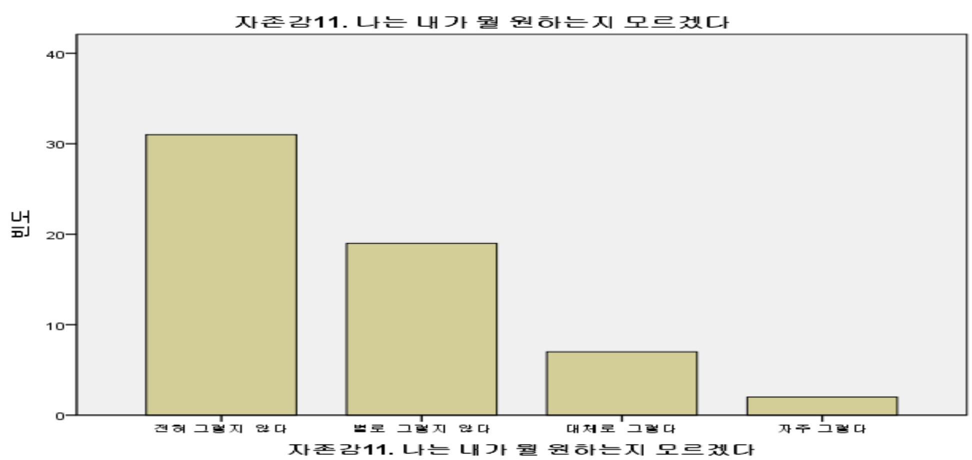
자존감 10. 내겐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없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3	39.0	39.0	39.0
	별로 그렇지 않다	27	45.8	45.8	84.7
	대체로 그렇다	5	8.5	8.5	93.2
	자주 그렇다	4	6.8	6.8	100.0
	합계	59	100.0	100.0	



자존감11.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1	52.5	52.5	52.5
	별로 그렇지 않다	19	32.2	32.2	84.7
	대체로 그렇다	7	11.9	11.9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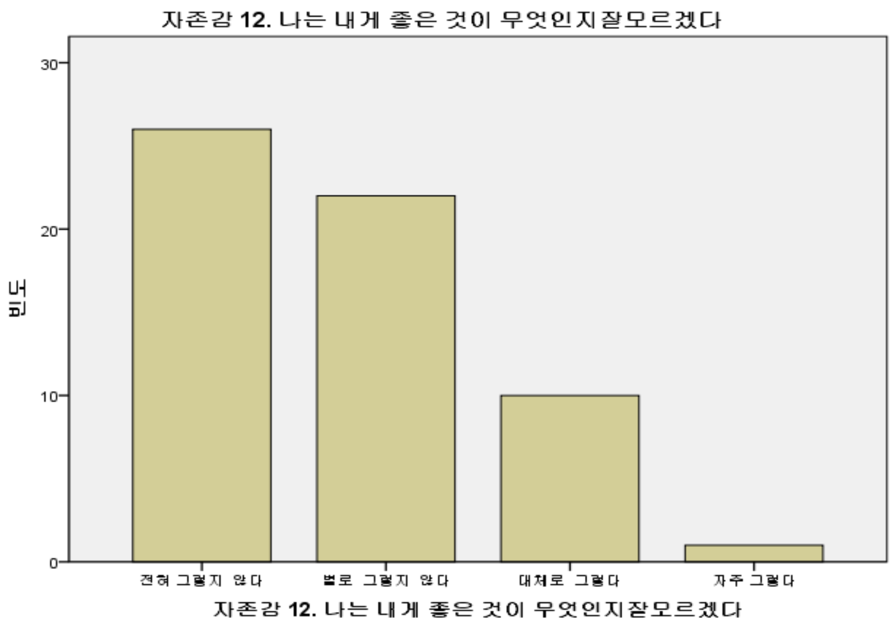


자존감 12. 나는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잘모르겠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6	44.1	44.1	44.1
	별로 그렇지 않다	22	37.3	37.3	81.4
	대체로 그렇다	10	16.9	16.9	98.3
	자주 그렇다	1	1.7	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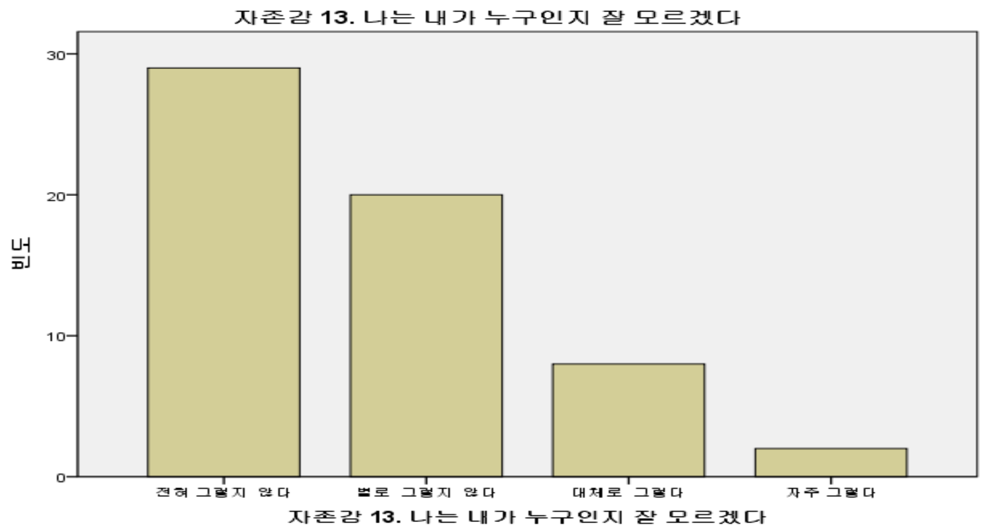
자존감 12. 나는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잘모르겠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6	44.1	44.1	44.1
	별로 그렇지 않다	22	37.3	37.3	81.4
	대체로 그렇다	10	16.9	16.9	98.3
	자주 그렇다	1	1.7	1.7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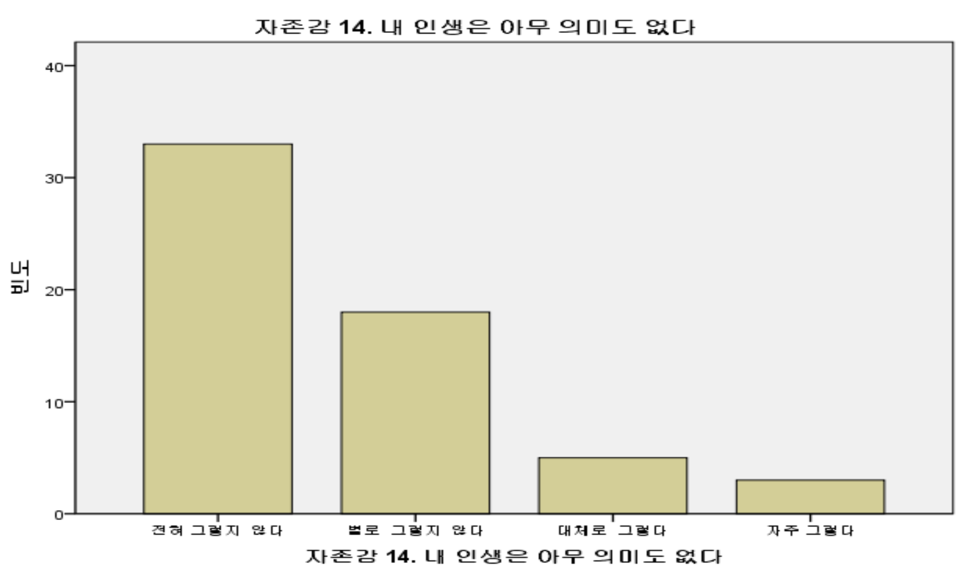
자존감 13.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9	49.2	49.2	49.2
	별로 그렇지 않다	20	33.9	33.9	83.1
	대체로 그렇다	8	13.6	13.6	96.6
	자주 그렇다	2	3.4	3.4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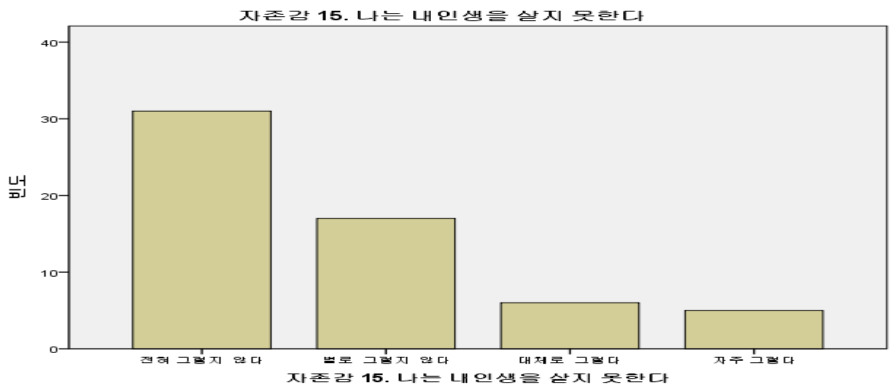
자존감 14.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3	55.9	55.9	55.9
	별로 그렇지 않다	18	30.5	30.5	86.4
	대체로 그렇다	5	8.5	8.5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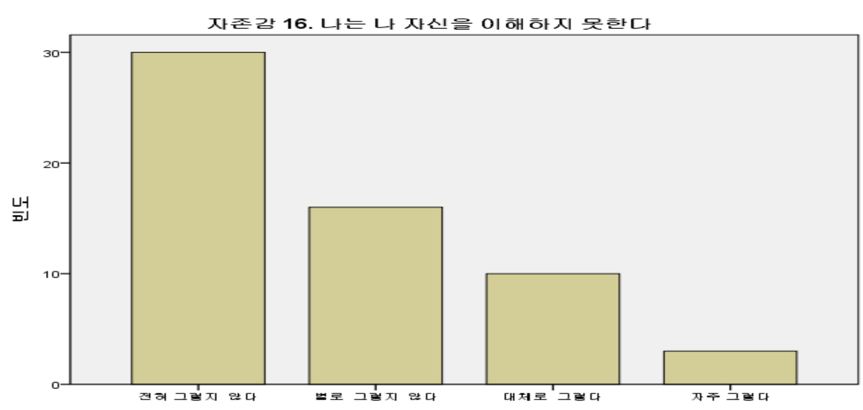
자존감 15. 나는 내인생을 살지 못한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1	52.5	52.5	52.5
	별로 그렇지 않다	17	28.8	28.8	81.4
	대체로 그렇다	6	10.2	10.2	91.5
	자주 그렇다	5	8.5	8.5	100.0
	합계	59	100.0	100.0	



자존감 16.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30	50.8	50.8	50.8
	별로 그렇지 않다	16	27.1	27.1	78.0
	대체로 그렇다	10	16.9	16.9	94.9
	자주 그렇다	3	5.1	5.1	100.0
	합계	59	100.0	100.0	



Ⅷ. 목회 유능성 개발

1. 사이드 팀

	이름	나이	교회직분	직업
명단	윤태섭 (Tai soup Yoon)	63	목사님	
	윤영혜 (Yeong hye Yoon)	60	사모	서비스업종
	류지홍 (Chi hong Ryu)	44	전도사	프리렌서
	박연숙 (Youn suk Park)	60	권사	서비스업종
	최은정 (Eun jeong Choi)	52	집사	서비스업종
	박 미쉘 (Michelle Park)	26	주일학교 교사	사무직
활동내역	• 2주에 1회 만나서 토의 한다. • 교회 안에서 변화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 논문에 제기할 문제들을 질의 토론한다.			
기여사항	• 사이드팀과의 토의를 통해서 논문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 평신도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 볼 수 있었다. • 교인들의 여가활동 외로움, 우울증, 고독극복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사이드팀들은 미술심리치료, 심리,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되었다.			
목회유능성 개발 평가	• 사이드팀원들의 추천 및 조언이 있었다. • 문화사역을 위한 예술능력, 멀티미디어 능력, 그리고 미술심리치료 대한 능력을 보완 개발 할 것을 추천하였다.			

2. 목회 유능성 개발 중요성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발맞추어 교인들이 희망하는 교회의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다. 교회의 기능 또한 신앙의 버팀목으로, 영적보금자리로, 마음을 치유 하는곳으로 그리고 교육적 기능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문화사역 기능의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카메리가 개발되면서 미술사에서 뿐만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아났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으며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 자신의 일상 모습을 올리는 것이 취미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사진예술은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멀티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컴퓨터는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영상편집, 포토샵, 퍼블리셔, 등 다양한 장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 능력 개발은 중요하다. 세째, 미술은 원시시대 부터 주술적의미로, 권력 강화를 위해, 종교적 신앙을 위해 자신의 심리 표현 방법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인간과 함께 해왔다. 다양한 미술재료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할때 심리적 안정과 위로 더 나아가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실제 많은 상담현장에서 미술심리치료는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미술심리치료의 능력 계발은 중요하다.

3. 목회 유능성 개발 계획

1)사진예술 능력 개발

사진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술의 분야가 되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활동에서 벗어나 자연을 함께느끼면서 정서적 치유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사랑커뮤니티센터의 사진교실과 더불어 디포라(Dphotolife)와 사진 굽는 연구소(photobakinglab)에서 활동하며 사진예술 능력을 개발한다. 사랑커뮤니티센터 후원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진 굽는 연구소(photobakinglab)에서 계획하는 'These are not mountains'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2)멀티미디어능력 개발

멀티미디어능력 개발을 위해서 포토샵,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진수정 등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또 다른 이미지 분야를 연구한다.

3)미술심리치료능력 개발

미술심리치료능력 개발을 위해서 심리학, 상담, 미술심리치료에 관련된 연구를 다양하게 한다.

심리학과 상담분야의 이해를 위해서 프로이트 이후, 심리상담과치료의이론과실제,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 그리고 고독의 심리학 등의 도서를 통해서 배경 및 역사를 연구한다. 미술심리치료의 이해를 위해서 미술 심리치료학, 실제 적용 중심의 미술치료,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등의 도서를 통해서 이론 및 실습을 연구한다.

4. 목회 유능성 개발 결과 평가

1)사진예술능력 개발

사랑커뮤니티센터의 사진교실과 디포라(Dphotolife.com)와 사진굽는 구소(photobakinglab.com)에서 활동하였다. 사진굽는연구소(photobakinglab)에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These are not mountains' 사진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회원들의 작품들은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전시회의 수익금은 사랑커뮤니티센터 후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진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2)멀티미디어능력 개발

멀티미디어능력 개발을 위해서 영상편집 프로그램, 페인트, 퍼블리셔 등을 연구하였다. 사진과 연계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배움으로써 또다른 분야를 알게되었다. 앞으로도 멀티미디어는 끊임없이 발전하므로 새로운 분야의 더 많은 노력이필요하다.

3)미술심리치료능력 개발

심리학과 상담분야의 이해를 위해서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고독의 심리학, 미술치료의 이해, 그리고 미술 심리치료학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와 상담분야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프로젝트실습기간 동안 타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Ⅸ. 결론

현대사회는 고령화시대로 자기인생의 1/3 에 해당하는 노년의 삶을 의미있게 통합하는 시기이다. 노후를 저항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타인을 돌아보고 봉사하며 자존감을 회복하여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가야 한다. 로저스의(Rogers)의 인간중심 치료는 인간의 자기실현의 경향성을 전제로한다. 로저스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자기성장의 존재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를 바탕으로 예술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의 자기 개발과 타인과의 관계회복 및 자존감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프로젝트의 대상은 뉴욕에 거주하는 50 대 후반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1 회 1 시간 40 분씩 예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예술교육을하기 전과 하고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건 주변사물을 보는 시각이였다. 매일 보는 하늘, 꽃, 나무, 새, 등 주변의 모든 일상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주변의 사물을 의미있게 관찰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때 마다 느껴지는 성취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자신의 완성된 작품을 전시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긍정적 삶의 태도로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같은 교실의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또는 수업이외의 시간에도 SNS 를 통해 간접 교류도 하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회의 시스템(구조)변화에 있어서는 미술교실 이외의 악기교실, 노래교실, 전문적인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야 겠다.

설문조사는 뉴욕에 거주하는 59 명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질문 14 문항과, 여가활동에 관련된 질문 8 문항, 고독에 관련된 질문 26 문항, 그리고 자존감에 관한 질문 16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표, 그리고 막대 도표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2.03 세로 성별은 남자가 31 명(52.5%), 여자가 28 명(47.5%)였다.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상이 30명(50.8%), 이민 온 년도는 30년이상이 27명(45.8%)로 가장 높았다.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이민온 경우가 19명(32.2%), 혼자 이민온 경우도 17명(28.8%), 이민을와서 처음 갖게된 직업은 서비스업종이 17명(28.8%), 전문직도 12명(20.3%), 현재 함께 살고있는 가족관계는 부부만 23명(39.0%), 그리고 혼자 살고있는 사람도 18명(30.5%)으로 높았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과의 만나는 횟수는 한달에 1번이상이 20명(33.9%), 생활비 마련형태는 일해서 번다가 32명(54.2%), 월평균 소득은 3000불이상이 21명(35.6%)로 가장 많았다. 이민생활의 만족 정도는 보통이 27명(45.8%), 만족이 18명(30.5%), 매우만족이 4명(6.8%)로 설문지에 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여가활동과 고독 그리고 자존감에 관련된 질문은제라크 마크롱의 저서 『고독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여가활동은 예술활동이 주1회 이상이 20명(33.9%), 수작업이 주1회 이상이 12명(20.3%), 지적활동이 주 1회이상이 23명(39.0%), 스포츠활동이 주 1회이상이 18명(30.5%), 여행은 몇년에 1번이 32명(25.4%), 자원봉사활동이 주1회 이상이 16명(27.1%), 사회활동이 주1회 이상이 15명(25.4%) 그리고 소일활동이 주1회 이상 42명(71.2%)로 가장 높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고독과 자존감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고독이 큼을 의미한다. 고독에 관련된 26문항 을 분석해보면, 7번 질문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 에서 평균이 1.42로 제일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반면 질문 14 '사람마다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만의 문제가 있는 법이다' 에서 평균이 2.75로 제일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문항의 답변을 전제전으로 분석해보면 평균이 2.00 이하로 대답한 질문은 19문항 이였으며, 2.00이상 4.00이하는 7문항이 였다. 전체적인 답변을 볼때 긍정적인 답변이 19문항으로 고독에 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자존감에 관련된 질문 16문항을 분석해 보면 질문6 '나는 결국 해내지 못할 것이다' 에서 평균 1.59로 제일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반면 질문4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에서 평균 1.97로 제일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1.59이상 1.97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며, 고독과 비교해 볼때 고독은 2.00이상 4.00이하의 답변인 문항이 7문항 인것과 비교하면 자존감이

고독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의 성향, 특성, 등을 분석하여 노년층의 프로그램개발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업대상자들이 성인이고 다양한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 몇몇분들이 지속적인 참여가 미흡했다. 그리고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앞으로 칼로저스의 인간중심미술치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년층의 창의적 예술교육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제언한다.

Appendix A.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고독, 외로움 등은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이나 기타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 질 것입니다.

본 논문은 " A STUDY ON ART EDUCATION FOR OVERCOMING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노인의 고독 극복을 위한 예술교육) 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위한 연구입니다.

본 설문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보장이되며 조사결과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8. 1. 2017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SANGA LEE

*본 설문내용의 3,4,5 번의 문항들은 제라르 마크롱의 책 『고독의 심리학』p.111, 173, 294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1).귀하의 성별은? ①남자___ ②여자_____

2).귀하의 연세는?______세

3).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매우건강하지 않음 ②건강하지 않음 ③보통 ④건강함 ⑤매우 건강함

4).귀하께서는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십니까?

①1 주일에 1-2 번 ②한 달에 1-2 번 ③두 달에 1 번 ④6 개월에 1 번 ⑤1 년에 1 번 ⑥전혀 가지 않는다 ⑦기타(   )

5).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습니까?

①초등학교 졸업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이상
⑤기타(   )

2.본 설문지는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 해당 질문에 표시해 주세요.

6).귀하께서 이민 온 년도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미국에서 출생

②5 년 미만 ③5 년이상-10 년미만 ④ 10 년이상-20 년 미만 ⑤20 년이상-30 년미만

⑥ 30 년 이상 ⑦기타 (   )

7).귀하는 누구와 함께 이민을 오셨습니까?

①혼자 ②배우자와 함께 ③배우자와 자녀 ④ 부모님과 자녀
⑤기타(   )

8). 귀하께서 이민와서 갖게된 직업은 무엇입니까?(중복 표시 가능합니다)

①전문직 ② 상업 ③예술가 ④ 세일즈 ⑤서비스업종 ⑥전업주부 ⑦기타(　　　)

9).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혼자　②부부만　③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 ④기혼자녀와 함께 거주

⑤기혼자녀와 손자또는 손녀 ⑥룸메이트 ⑦기타(　　　　)

10).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과 만나는 횟수는?

①한달에 1 번이상 ②3 달에 1 번 이상 ③ 6 개월에 1 번 이상 ④1 년에 1 번이상 ⑤기타(　　　　)

11).귀하의 주거 형태는?

①자가 ②월세 ③기타(　　　　)

12).귀하의 생활비 마련 형태는?

①일해서 번다 ②퇴직금을 활용 한다 ③연금 및 생활보조금 ④자녀가 준다 ⑤임대료수입 및 재산소득 ⑥기타(　　　　　　)

13).귀하의 월평균소득(자녀용돈 및 모든 수입 포함)은 얼마입니까?

①500 불미만 ②500 불이상-1000 불미만 ③1000 불이상-2000 불미만

④2000 불이상-3000 불미만 ⑤3000 불이상 ⑥기타(　　　　)

14).현재 이민생활의 만족 정도는 어떻습니까?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 보통 ④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기타

3.여가 활동에 관련된 질문

*다음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 횟수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5 주 1 회 이상	4 1 달에 2 회 이상	3 2 달 에 2 회 이상	2 3 달 에 2 회 이상	1 전혀 안함
1.예술 활동 (그림,조각,사진,영화, 서예,춤,노래,악기,가구제작,연극.)					
2.수작업 (정원손질,요리 혹은 와인 강좌,공작,바느질,수예,가구수리, 집 장식,손으로 하는 묘기….)					
3.지적 활동 (학회 참석,외국어 공부 등 중단한 공부 다시 시작하기,체스,테마 카페 탐방(문학,글쓰기,철학 등),일기나 소설쓰기,성경책 읽기,시 읽기, 두뇌 게임,낱말 맞추기….)					
4.스포츠 활동 (팀스포츠,하이킹,롤러스케이트,사 이클,등산,체조,체육관에 놀러 가기,무술, 자동차트랙 경주,패러슈팅,패러글라이딩,스크 루 다이빙…)					
					몇년에 1 번

5.여행 (크루즈 여행,사파리 여행,유럽 주요 도시 여행하기,테마 여행,댐.공항.항구방문.하룻밤 호텔에서 지내기…..)					
6.자원 활동 (자원봉사,정치활동,구호단체 회원 가입하기,종교단체 활동,교도소.병원 방문하기,아이 학교 활동을 돕거나 가르치기,아이들에게 읽는 법 가르치기,구호단체 소속으로 외국으로 떠나기…..)					
7.사회 활동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학교 동창들과 연락하기, 집에 사람들 초대하기,소원해진 가족과 만나기,먼 곳에 사는 지인 방문하기,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간관계 넓히기, 미팅 사이트 이용하여 친구 사귀기, 친구들을 서로 소개해 주기, 카드 게임.체스.배드민턴 클럽 등에 가입하기…..)					
8.소일활동 (TV 시청, 인테넷, 유투브 시청, 라디오듣기, 휴식 등)					

4. 고독에 관련된 질문

*아래의 항목들을 읽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1. 나는 아무에게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2. 나는 누구에게도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3. 나는 결국 혼잘 남을 것이다.				
4.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나는 상황 속에 갇혀있다.				
5.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6. 나는 거절당할 것이다.				
7.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				
8. 내겐 스스로 상황을 헤쳐 나갈 능력이 없다.				
9. 나는 매력이 없다.				
10.나는 사회 부적응자이다.				
11.내가 남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2.남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3.남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봐 두렵다.				
14.사람마다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만의 문제가 있는 법이다.				
15.사람들은 이기적이다.				
16.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17.사람들은 고독한 사람을 무서워한다.				
18.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19.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거리감 있게 느껴진다.				
20.이 세상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21.뭘 하든지 간에 결국 사람은 혼자이다.				
22.나는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				
23.고독을 견딜 수가 없다.				
24.고독이 무섭다.				
25.인생이 무의미하다.				
26.인생은 헛수고의 연속이다.				

5. 자존감에 관련된 질문

*아래의 항목들을 읽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자신에 대한 사랑	1.나는 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2.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3.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4.나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5.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자신에 대한 믿음	6.나는 결국 해내지 못할 것이다.				
	7.시도하기가 너무 겁이 난다.				
	8.나는 남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				
	9.나는 충분히 역량이 없다.				
	10.내겐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없다.				
자신에 대한 앎	11.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12.나는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잘모르겠다.				
	13.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14.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15.나는 내인생을 살지 못한다.				
	16.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Appendix B. 활동 사진들







Appendix C. 작품 사진들



(작품 1)

작품설명:하얀 백발의 머리카락과 단아하게 꼭 쥔 두손이 그동안 살아온 노인의 삶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



(작품 2)

눈이내린 한국의 시골풍경을 통하여 고향의 추억과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화려하게 피어난 코스모스를 통하여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되세겨 보게하는 작품이다.



(작품 3)

한국시골의 마당에 세워져있던 장독대를 통하여 어린시절의 추억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였다.



(작품 4)

화려하게 피어난 코스모스를 통하여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되세겨 보게하는 작품이다.



(작품 5)

초겨울 강한 생명력으로 마지막까지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나뭇잎을 통하여 삶의 희망을 표현하였다.



(작품 6)

한국 시골 어느 마을의 봄 풍경을 소재로하여 고향의 향수를 표현 하였다.

위의 작품 1, 작품 5 는 김홍수,서인천의 『한권으로 끝내는 수채화』 p271, p65 를 작품 2 와 작품 3 은 남일의 『수채화의 첫 걸음』 p132, p49 를 작품 4 는 클레어 웨이트 브라운의 『꽃그림수채화 바이블』 p166 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BIBLIOGRAPHY

1）외국서적

Arnold, Bill T, & Beyer, Bryan E. *Encountering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8.

Brown, Claire Waite. *The Watercolor Flower Artist's Bible*. New York: Chartwell books, 2010.

Bruce H., Hinrichs. *Psychology*. New York: Person Education, Inc, 2005.

Cathy A., Johnson. *Painting Watercolors*. Ohio: North Light Books, 1995.

Daniel, Menaker. *A GOOD TALK.* New York: Twelve, 2010.

David, Chang. *The Passion and Beauty of Korean Art*. Korea: K&C, 2004.

David, Stafford–Clark. *What Freud really said*. New York: McDonald & Co., London, 1965.

Dayton, Tian. *Emotonal Sobriety*. USA: Helth Communications, Inc, 2007.

Joe Francis, Dowden. *The Landscape Painter's Essential Handbook*. ????: D&C, 2007.

Joseph T., Hallinan. *Why We Make Mistakes*. New York: Broadway Books, 2009.

Larry, King. *How to Talk to Anyone, Anytime, Anywhere*.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1994.

Leon, Morris. *NEW TESTAMENT THEOLOGY*. USA: Zondervan, 1990.

Louis R., Ormont. *The Group Therapy Experience*. USA: Library of Congress, 1992.

Peter, Scazzero, & Warren Bird. *The Emotionally Healthy Church*. USA: Zondervan, 2010.

Richard, Wiseman. *Quirkolkgy*. New York: Basic Books, 2007.

Simon, Blackburn. *Think*. New Yok: OXFORD, 2001.

Terry, Harriso. *Watercolour Landscapes*. Petaluma: Search Press, 2007.

Travis Bradberry, & Jean Greaves. *The Emotional Intelligence Quick Book*. New York: Simon and Schuster, Inc, 2005.

Whittle, Janet. *Watercolour Flowers.* Chartwell Books: Search Press, 2011.

Whyte, Mary. *Painting Portraits and Figures in Watercolor*. New York: Watson Guptill, 2011.

2) 번역서적

Akio, Kado. *본심에서 흑심까지 거짓말 심리백서*, 서현아 역, 서울: 하이파이브, 2006.

Alain de, Botton.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박중서 역, 서울: 청미래, 2011.

Anita Struges, Dole. *말씀의 합리적 이해 1*, 배제형 역, 서울: 다지리, 2001.

________. *말씀의 합리적 이해 2*, 배제형 역, 서울: 다지리, 2002.

Baker's 신학사전, 신성종 역, 서울: 엠마오, 1989.

Bärbl, Wardetzki. *여자의 심리학*, 강희진 역, 서울: 북폴리오, 2007.

________. *따귀 맞은 영혼*, 장현숙 역, 서울: 궁리, 2008.

________.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수없다*, 두행숙 역, 서울: 걷는나무, 2014.

________.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수없다 2*, 두행숙 역, 서울: 걷는나무, 2016.

Ben−Shahar, Tal.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 해피어*, 노혜숙 역,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7.

Bruno, Bettelheim. *옛이야기의 매력 1*, 김옥순, 주옥 역, 서울: 시공주니어, 2008.

________. *옛이야기의 매력 2*, 김옥순, 주옥 역, 서울: 시공주니어, 2008.

Earle E., Cairns . *세계교회사 2,*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5.

Calvin S., Hall. *프로이트 심리학*, 백상창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0.

Cameron, West. *다중 인격*, 공경희 역, 서울: 그린비, 2005.

Charles L., Thompson, Linda B., Rudolph. *아동상담의 이론과 실제*, 천성문 외 6 명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C. Hassell, Bullock. *구약 선지서 개론*, 류근상 역, 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3.

Chris Cortman, Harold Shinitzky. *감정을 선택하라*, 곽성혜 역, 서울: 유노북스, 2016.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외 3 명 역, 경기도: 도서출판, 2002.

Clinebell, Howard.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Corey, Gerald.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조현춘, 외 4 명 역, 서울: CENGAGE Learning, 2012.

Cox, Harvey, *세속도시*, 구덕관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Daniel, Levi. *팀워크 심리학*, 정명진 역, 서울: 부글북스, 2010.

David, Brooks. *인간의 품격*, 김희정 역, 서울: 부키, 2015.

David R., Shaffer. *발달심리학*, 송길연 외 3 명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Donald W., Winnicott. *놀이와 현실*,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Dougles, Alban. *주제별 성경연구*, 두란노서원 역, 서울: 두란노, 2003.

Douglas D, Webster.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빚기*, 윤종석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1.

Edward J., Young. *구약총론*, 홍반식, 오병세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Edwin, Palmer. *칼빈주의 5 대교리*, 박일만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Elisabeth Kübler-Ross, David Kessler. *상실수업*, 김소향 역, 서울: 이레, 2007.

Eric, Ackroyd. *심층심리학적 꿈 상징 사전*, 김병준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Eugene H., Peterson. *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06.

James W., Fowler.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Frederick Brotherton, Meyer. *성경인물설교*, 전의우 역, 경기도: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4.

Geisler, Norman L. *기독교 윤리학*, 위거찬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2.

Gen, Ohi.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안상현 역, 경기도: 윤출판, 2013.

George, Barna. *당신의 자녀를 영적 챔피언으로 훈련시켜라*, 차동재 역, 서울: 쉐키나, 2006.

George, Fitchett. *영적 진단을 위한 지침*, 유영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Gertrud, Höhler. *나눔의 즐거움*, 이수영 역, 서울: 시대의창, 2006.

Gombrich, Ernst Hans. *서양미술사*, 최민 역, 서울: 열화당, 1998.

Guy, Corneau. *마음의 치유*, 강현주 역, 서울: 북폴리오, 2006.

Halley, Henry H. *최신 성서핸드북*, 박양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0.

Harry, Beckwith. *언씽킹 Unthinking*, 이민주 역, 서울: 토네이도, 2011.

Henry, C. Thiessen. *조직신학 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Hiroshi, Minami. *마음을 여는 심리학 이야기*, 류한평 역, 서울: 갑진출판사, 1997.

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Ilse, Sand. *센서티브*, 김유미 역, 서울: 다산, 2017.

James L., Kugel. *하버드대 유대인 학자가 쓴 구약성경 개론*, 김구원, 강신일 역,

서울: CLC, 2011.
James M., Gordon. *복음주의 영성*, 임승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James S., Bell, James T., Dyet. *독학성경*, 배응준 역, 서울: 규장, 2006.
J. I., Packer 외 64 명. *기독교 교양*, 이용복, 전의우 역, 서울: 규장, 2006.
Joel, Osteen. *긍정의 힘*, 정성묵 역, 서울: 두란노, 2006.
Joe Navarro and Marvin Karlins. *행동의 심리학*, 박정길 역, 서울: 리더스북, 2013.
John, Bradshaw.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2008.
John H., Walton. *차트 구약*, 김명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John I., Mason. *크리스천 생활백서*, 배응준 역, 서울: 규장, 2006.
Judith Aron, Rubin. *이구동성 미술치료*, 주리애 역, 서울: 학지사, 2005.
Kaiser, Walter C. *구약성경윤리*, 홍용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Karl, Wite. *칼비테의 자녀교육 불변의 법칙*, 베스트트랜스 편역, 서울: 미르에듀, 2011.
Ken, Blanchard, Phil, Hodges.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최종훈 역, 서울: 포이에마, 2009.
Kenya, Miyajima. *고마워 우울증*, 민경욱 역, 서울: 비타북스, 2014.
Kirchschläger, Walter. *구약성서 첫걸음,* 신교선 역, 서울: 성서와함께, 1998.
성경 핸드북, 김만풍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Küng, Hans.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Lauren, Slater.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조증열 역, 서울: 에코의 서재, 2008.
Leslie, H. Brickman. *셀교회와 자연적 교회 성장*, 도서출판 NCD 편집부 역, 경기도: 도서출판 NCD, 2003.
Louann, Brizendine.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 임옥희 역, 서울: 리더스북, 2007.
Lynda A., Heiden, Michel Hersen. *임상심리학 입문*, 이영호 역, 서울: 학지사, 2007.
Macqueron, Gérard. *고독의 심리학*, 정기현 역, 서울: 뮤진트리, 2013.
Malcolm, Gladwell. *다윗과 골리앗*, 선대인 역, 서울: 21 세기북스, 2014.
Margaret S., Mahler, Fred, Fine. *유아의 심리적 탄생*,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Martin, H. Padovani. *감정의 치유*, 백승치 역, 경북: 분도출판사, 1999.
Mears, Henrietta C. *성경의 파노라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Michael St., Clair. *인간의 관계경험과 하나님 경험 대상관계이론과 종교*,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Mickelsen, A. Berkeley. *성경해석학*, 김인환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11.

Mitchell, Stephen A and Black, Margaret J. *프로이트 이후*, 이재훈, 이해리 역, 서울: 한국 심리치료 연구소, 2002.

Os, Hillman. *하나님의 타이밍*,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Peter Bieri. *삶의 격*, 문항심 역, 서울: 은행나무, 2015.

Peter Scazzero. *건강한 교회,* 최종훈 역, 서울: 이레서원, 2005.

Philip D., Yancey. *필립 얀시 기도*, 최종훈 역, 경기도: 청림출판, 2007.

Ramana, Maharishi. *나는 누구인가*, 이호준 역, 서울: 청하, 2005.

R. A., Torrey. *성령론*, 편집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Richard J., Fost.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Robert C., Burns.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김상식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1.

Robert C., Burns, S. Harvard, Kaufman. *아동이 그린 가족화 분석*, 장연집 역, 서울: 교문사, 2003.

Robort H., Gundry, *신약개론*, 김일우 역, 서울: 엠마오, 1997.

Robert M., Liebert, Lynn Langenbach, Liebert. *성격심리학*,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역, 서울:시그마프레스, 2003.

Roman, Krznaric. *공감하는 능력*, 김병화 역, 서울: 더 퀘스트, 2014.

Rosa Maria., Curto. *꼬물꼬물 창의미술*, 장선하 역, 서울: 그린북, 1995.

Sang-jung, Kang. *살아야 하는 이유*, 송태욱 역, 경기도: 사계절, 2012.

Siegel, Allen M.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권명수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Spencer, Johnson. *스펜서 존슨 선택*, 형선호 역, 서울: 청림출판, 2005.

Strickland, Carol. *클릭 서양미술사,* 김호경 역, 서울: 예경, 2006.

Susan, Cain. *콰이어트*, 김우열 역,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2.

Susan F., Fincher.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김진숙 역, 서울: 학지사, 2008.

Susan, Forward. *이런사람이 무자격부모다*, 이동진 역, 서울: 삼신각, 2004.

Susan, Newman. *거절의 미학 NO*, 나혜목 역, 경기도: 북@북스, 2007.

Taizo, Kato. *나를 발견하는 심리학 나는 왜 눈치를 보는가?,* 이인애, 박은정 역,

서울: 고즈윈, 2007.
Takanori, Fujita. *2020 하류노인이온다*, 홍성민 역, 서울: 청림출판, 2016.
Takashi, Saito.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이정은 역, 서울: 홍익출판사, 2015.
Tamio, Suenaga. *색채심리*, 박필임 역, 서울: 예경, 2006.
Tatsuru, Uchida. *어른 없는 사회*, 김경옥 역, 서울: 민들레, 2016.
Theodore, Zeldin. *인생의 발견*, 문희경 역, 서울: 어크로스, 2017.
Tim keller.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 정성묵 역, 서울: 두란노, 2013.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5.
Tony, Humphreys. *가족의 심리학*, 윤영삼 역, 서울: 다산초당, 2008.
Tony, Humphreys. *셀프심리학*, 이한기 역, 서울: 다산초당, 2008.
Voker Kitz, Manuel Tusch. *심리학나좀구해줘*, 김희상 역, 서울: 갤리온, 2013.
Vos, Geerhardus. *성경 신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Warren W., Wiersbe. *핵심 성경 연구 2,* 송용필 역, 서울: 나침반, 2003.
W. Hugh, Missildine, *몸에 밴 어린시절*, 이석규, 이종범 역,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6.
Wright, H. Norman. *위기 상담학*, 전요섭, 황동현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4.
Yoshifumi, Yokomine.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부모의 말*, 김희연 역, 경기도: 스프링업, 2014.

3) 한국 서적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편저. *인간학*,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7.
강민기 외 5 명.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서울: 예경, 2006.
강현식.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것*, 서울: 소울 메이트, 2010.
구미리암. *치유공동체 신학,* 서울: 쿰란 출판사, 2000.
구평회. *구평회교육학 하*, 서울: 지북스, 2007.
권석만.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________.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8.
권정혜 외 2 명. *사회공포증의 인지치료 수줍음도 지나치면 병*, 서울: 학지사, 2008.
권혜경 외 9 명. *심리톡톡 나를 만나는 시간*, 서울: 해냄, 2015.

김두식.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서울: 홍성사, 2010.

김미경 외 5명.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서울: 학지사, 2007.

김상인. *상담심리 용어사전*, 서울: 생 의 샘가, 2005.

김선배. *이민목회 프로그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김수환 말씀, 신치구 엮음.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위하여*, 서울: 사람과사람, 1994.

김열규. *노년의 즐거움*, 서울: 비아북, 2009.

김영애, *성격심리학*, 서울: 하나의 학사, 2000.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2.

김정규. *게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8.

김현수, EBS 제작팀. *성격의 비밀*, 서울: 블루앤트리, 2012.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2004.

김혜성, 남정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3.

김흥수, 서인천. *한권으로 끝내는 수채화*, 서울: 해든 아침, 2010.

남일. *수채화 첫 걸음*, 서울: 대가, 2011.

도병훈.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서울: 두리미디어, 200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2007.

맹용길. *현대신학사상 I*, 서울: 성광문화사, 1990.

박경애. *인지행동 치료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04.

박윤선.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1984.

박의수 외 3명.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2006.

박태현. *소통*, 서울: 웅진윙스, 2007.

송기득. *인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수경. *그림 초짜 수채화 배우다*, 서울: 그림공작소, 2014.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재활치료연구자료집*, 서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007.

신민섭 외 공저.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신선화. *그러니까 미술이 필요해*, 서울: 노란상상, 2014.

안귀여루 외 3명. *심리치료 가이드*, 서울: 학지사, 2002.

안젤라 손. *기쁨의 영성*,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여문환. *LPDAC 자폐아동 치료교육 프로그램*, 경기도: 공동체, 2007.

원호택, 권석만. *이상심리학 총론*, 서울: 학지사, 2005.

윤용섭 외 6 명. *노인이 스승이다*, 경기도: 글항아리, 2015.

이동원.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서울: 두란도, 2006.

이소현, 박은혜.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2008.

이윤주 외 3 명. *집단상담기법*, 서울: 학지사, 2008.

이장호 외 2 명.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2008.

이재철. *비전의 사람*, 서울: 홍성사, 2007.

이한규. *아름다운 노년의 삶*, 서울: 홍두깨, 2013.

임세라, 오가영. *미술심리 치료학*, 서울: 이담, 2015.

임창복 외 2 명, *교회노인교육*,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8.

임창복 외 4 명, *교회노인교육 프로그램 1,*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9.

장미경 외 5 명. *아동상담의이론과 실제*, 서울: 태영, 2007.

장선경.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영아미술 놀이 100 가지*, 서울: 놀작에듀, 2012.

장유경. *아이의 가능성*, 경기도: 예담, 2012.

전광. *성경을 사랑합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정여주. *만다라와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2006.

________.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7.

정현희, 이은지. *노인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2007.

정현희. *실제 적용 중심의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2008.

주리애. *미술치료 요리책*, 경기도: 아트북스, 2006.

________. *미술치료는 마술치료*, 서울: 학지사, 2006.

조현춘 외 4 명.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2012.

진중권 외 5 명. *화*, 서울: 한겨레출판, 2009.

차영배. *성령론*, 서울: 경향문화사, 1994.

채규만. *성피해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5.

채정한. *우리아빠 우리 하나님*, 인천: 다윗의 열쇠, 2013.

최준식. *너무 늦기전에들어야 할 죽음학강의*, 경기도: 김영사, 2014.

최해림 외 4 명. *전문적 상담현장의 윤리*, 서울: 학지사, 2010.

한국노년학회 편. *노년학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0.

한정란 외 9명. *세계의 노인교육,* 서울: 학지사, 2006.

한태상 외 2명. *미술지도 이렇게 하자*, 서울: 미술공론사, 2001.

함규정.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서울: 청림출판, 2010.

현성숙. *인터넷게임 중독아동의 치료(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미술치료)*,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2006.